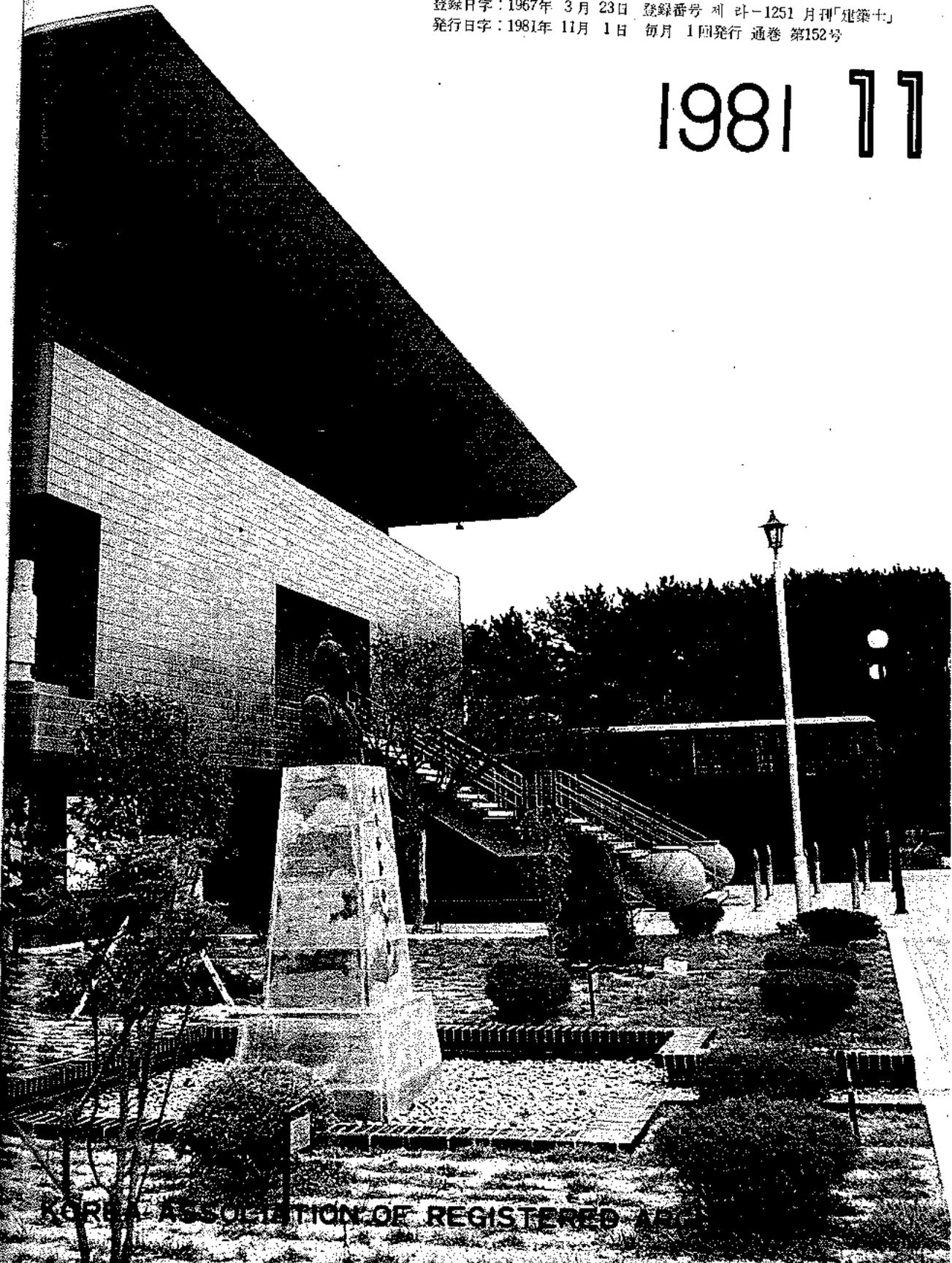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録番号 제 라-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81年 11月 1日 毎月 1回発行 通巻 第152号

1981 11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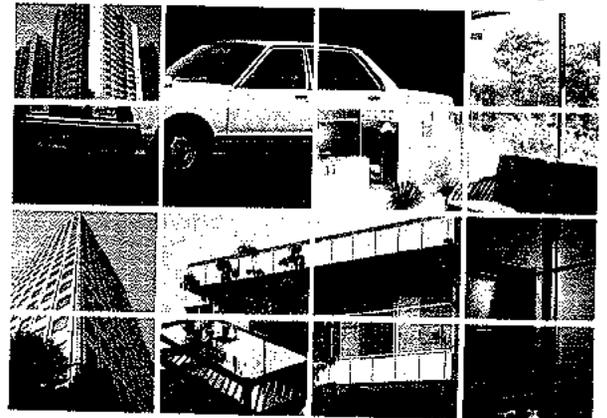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品質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제품특성

두께 (%)	부과특성					열관류율 Kcal/m2hc
	가시광선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직접부과율 (%)	반사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mm)	길이 x 폭 (mm)	길이 x 폭 (inch)
3	1524 x 1220	60 x 48
5	3658 x 2440	144 x 96
6	4267 x 3048	168 x 120
8, 10	7620 x 3048	300 x 120
12, 15, 19	10,160 x 3048	400 x 120

\* 15mm 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月刊 建築士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 目次

通卷152号 1981. 11



表紙說明/忠武公 記念館  
設計·攝影/張錫雄

論 壇 / 어둠속에서 빛을 찾듯이.....張起仁..... 2
論 文 / 新都市計劃 理論의 發展.....朱鍾元.....29 컴퓨터를 利用한 建築設計.....金文鉉.....33 '都市 聯立住宅 外部空間 構成의 問題點.....鄭求殷.....36 障 碍 者를 위한 建築과 都市環境計劃.....林晚澤.....61
評 論 / 評論의 基本方向 (抄錄)(I).....宋旼求.....23 藝術의 本質에 對한 美學의 小考.....姜一東.....69 建築探究의 姿勢.....李甲造.....74
特 輯 / 日本의 集合住宅計劃發展과 今日의 課題...鈴木成文...15 수상소감 / '81협회상 수상자.....20

元老建築家探訪 / 李天承씨.....編輯部.....12

會員作品 / .....44
<input type="checkbox"/> 충무공기념관                   ● 아도무건축.....張錫雄.....48
<input type="checkbox"/> ○○전화국청사               ● 신동아합동건축.....片基奉.....50
<input type="checkbox"/> 춘천성경교회                 ● 국일종합건축.....李國男.....52
<input type="checkbox"/> 현대병원                     ● 진일건축.....金白教.....54
<input type="checkbox"/> 반산별서                     ● 김석윤건축.....金石崙.....55
<input type="checkbox"/> 수협제주청사               ● 금강종합건축.....金守賢.....56
<input type="checkbox"/> 삼굴부리공원휴게소       ● 동원건축.....朴鎮厚.....58

支部巡訪 / 제주도 지부편.....60

<input type="checkbox"/> 協會消息..... 3	<input type="checkbox"/> 建築界뉴스..... 6
<input type="checkbox"/> 11월의 인터뷰.....59	<input type="checkbox"/> 무엇이 궁금한가?.....94
<input type="checkbox"/> 건축행정상담.....82	<input type="checkbox"/> 월간건축정보.....78
<input type="checkbox"/> 全國건축허가통계.....103	<input type="checkbox"/> 회원동정.....104
<input type="checkbox"/> 자료.....96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 일람표.....102

建築講座 / .....曹浚鉉.....91

海外作品 / A+U.....85

淨化 / .....“建築士界의 意識構造”.....金重培.....73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通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2, 723-4287, 724-1045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玟 會  登錄番号 第라-1251  登錄 1967. 3. 23  
 發行 1981.11.1  非売品  印刷人 郭 得 龍 / 三文印刷所 / 261-7676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52 호
구입년월일	1981.11.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지부	

### 編 纂 委 員 會

- 委員長 金正澈
- 委員 金奉勳
- “ 吳昌熙
- “ 尹道根
- “ 尹鳳源
- “ 李文輔
- “ 張錫雄
- “ 洪淳寅
- “ 黃一仁

# 어둠속에서 빛을 찾듯이...



삼성건축대표 張起仁

이제 우리 大韓建築士協會가 새로이 發足한지 二十餘年이란 歲月이 흐르는 사이에 成長하고 發展되어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된것을 慶賀합니다. 이와 같이 된것은 오로지 여러 會員들의 熱誠과 協力에 힘입은것이라 믿으며 아울러 歷代 本會 및 支部 任員의 勞苦가 結實된 것이라 크게 讚賀하는 바입니다.

建築文化는 時代와 地域을 통하여 發展하면서 社會의 進展과 經濟의 蓄積으로 要約되는 것인 만큼 平和를 追求하는 意志와 福祉社會를 건설하는 創造力이 結晶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建築人들 특히, 建築士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어 現在의 建築文化를 實現하게 된 것입니다. 落後된 建築技術을 스스로 向上시키고 무던 創意性을 깨워 先進國의 대열에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더 한층 건설기법을 개발하고 生活文化를 새롭게 形成하는 先殉者임을 自覺하고 보다 深奧한 探究와 斬新한 建築術을 끌어내기 爲하여 一路邁進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建築文化를 擔當하는 建築士는 그 烈火같은 創意力의 發揮와 衝天하는 高度의 技術研磨가 必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個人의 成果나 한 團體의 活動 만으로는 充足될 수 없는 實情이고 보면 우리 모두가 參與해야 할 것이며 특히 活氣찬 젊은 建築士들에 對한 期待가

큰 것입니다.

富強한 나라는 活動과 資本의 蓄積으로, 福祉社會는 勤勉과 誠實의 累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高度의 技術은 探究와 經驗의 總合으로 到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經驗技術은 모두 정리되어 後進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建築士各自가 겪은 작은 經驗일지라도 이를 總合하면 龐大한 技術集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創造하고 努力하는 技術人은 無誠意나 不條理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같은 過誤는 惹起될 겨를도 없으려니와 全身全力 技術解決에 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創造와 建設로서 余念이 없는 것은 우리 技術人의 宿命인지는 모르지만 偉大한 建築의 表現은 찬란한 榮光이 報答으로 받아 드려지기 때문 입니다.

經濟開發事業의 進展過程을 살펴 볼 때 建築部分은 重化學部門이나 다른 어느 産業에 比하여도 뒤떨어지지 않고 또 外國技術도 別로 導入하는 일도 없이 獨自의으로 巨大한 建築都市를 建設하였으며, 새 時代를 여는 地方住宅建設을 이루게 된 것은 오로지 建築士의 열과 힘이 原動力이 되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結實을 맺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技術은 未備未洽한 點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成熟한 技術經驗과 高度의 技術

開發로서 이땅에 뿌리를 박고, 國際舞臺에 꽃피워야 할때가 온 것입니다.

어둠에서 光明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듯이 우리는 固境과 不況속에서 이를 헤쳐나가는 忍耐와 勤勉이 要求되며 一時的 虛妄한 欲望이나 그릇된 行爲도 삼가하고 보다 높은 技術의 研磨와 崇高한 仁德의 涵養으로 80年代를 繁榮으로 이끄는 役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建築의 生産能力이나 質的向上에 關한 難題들이 山積해 있는데 雪上加霜으로 大規模, 大型化에 이어 新資材의 開發, 新工法의 適用등은 또 다른 問題들을 提起하고 있으며, 分斷된 좁은땅에 福祉를 向한 내 집 마련은 現시점에서 풀기 어려운 것인데 人口增加에 따른 10年後의 樣相은 予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를 解決하기 爲하여서는 建築人의 獻身的 努力이 隨伴되어야 할 것입니다.

建築士會誌는 그 年輪이 通卷150 冊을 넘었고 보다 알찬 內容으로 刷新되어 가고 있음은 우리 會員 各 部分의 協調에 힘입어 本會 및 支部의 任員들의 꾸준한 精進이 有한 緣由라 하겠지만 저물어 가는 81年을 契機로 渾然一體가 되어 加一層의 發展을 이룩하여 주실것을 祝願하면서 福祉社會를 建設하는 基盤을 다져 나가야 하겠다고 會員여러분과 함께 願하는 바입니다. <\*>

# 제16회 定期總會 盛了

具琬會회장 주제로 全國代議員 참석  
建設部 李圭孝次官등 내빈참석



본회 제16회 定期總會가 지난달 29일 市內 엠버서더호텔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具琬會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는 건설부 李圭孝차관을 비롯한 金維根 수백국장, 韓在峯건축관리관등 실무진,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李海成 회장등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具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지난해를 회고하고 "이 때를 맞춰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또 한번의 民族中興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고 "그동안 본회는 5大政策事業 추진에 힘써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 5 공화국의 至上목표인 복지사회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주변을 돌아보고, 새로운 질서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건축계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자율정화대열에 솔선해서 참여해 의식구조의 재정립에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부 李圭孝차관은 축사에서 具琬會회장을 위시한 여러분의 수고로 어느때 보다도 건축사들의 활약이 컸고 그만큼 쌓올린 공적도 많았다고 진게하고 "역사적으로나 민족사적 관점에서 도 文化的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남길 수 있도록 각자가 책임의식있는 작품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보다 長期的인 안목에서 질적향상과 창의력을 길러 次元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축사에 임한 李海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은 현재의 시점에서 건축인들의 사명이 막중한 때라고 같하고, 세계속에서 한국건축의 명맥을 파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내빈축사에 이어 진행된 총회는 먼저 추대회원 추대로 65세이상의 회원에 대한 추대에서 李度承(영장건축연구소 대표)회원을 비롯한

11명의 원보회원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하고 추대증을 수여했다.

계속해서 금년도 협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우수상(4명)과 장려상(2명)수상자에게 상패와 기념품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사무처 모범직원 3명에 대한 상패도 수여해서 총회의례절차들 모두 끝내고, 主要業務 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이어서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수요업무 보고에서는 81년도 추가 개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부승인 건등을 위시해서 그동안 본회가 추진한 34건에 달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감사보고는 朴成奎감사와 尹鉦감사가 각각 업무 및 경리관계의 감사 결과를 밝히고 참석대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부의 안건처리에서는 먼저 정관 개정안과 제규정 개정안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복지연금 규정안은 동 연금제도를 폐지키로 결의함에 따라 백지화했다.

그밖에 82년도 사업계획, 수지에산, 특별회계 수지에산안등은 총 7억 9천 9 백만원 규모의 본회 내

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회원업무와 결부되는 건축사업무보수요율 개정안도 당초안(案)대로 받아들여져서 회의는 임기만료된 이사(3명) 및 감사(1명) 후임에 대한 임원개선으로 틀어갔다.

임원개선에서는 새 이사로 宋鶴祚(남성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회원 朴商浩(석림건축연구소 대표) 회원 金一榮(동신건축공사 대표) 회원등이 선임되었고 감사에는 李康植(주·원종합설계 대표) 회원이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이날 총회는 만세삼창을

끝으로 폐회, 오후 4시경에 막을 내렸다.

한편 총회에 앞서 가진, 정화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율정화결의대회에서는 본 운동의 활성화와 생활화에 출선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새로운 覺悟로 時代 福祉社會建設의 役軍으로서 所任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그릇된 惰性和 安逸한 姿勢를 버리고 올바른 建築士 像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努力한다.

2. 우리는 建築士業務를 통해서 不條理한 일이 絶對로 없어야 하

겠습니다.

設計, 監理業務는 勿論, 建築許可 過程에서 法規를 어기거나 不當한 行爲를 徹底히 排摺하며 어떠한 誘惑에도 眩惑되지 말고 正當하게 業務를 遂行한다.

3. 우리는 總和團合하여 會員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여 權益擁護에 勢力하며 不當한 報酬의 割引으로 品位를 損傷하며 會員間의 反目, 疾視, 不信 등으로 全體會員의 團結을 害치는 일이 絶對로 없도록 한다.

4. 우리는 建築士로서의 資質向上을 爲하여 不斷한 研究와 創作活動으로 産業社會 發展에 副應할 수 있는 建築士가 되는데 다같이 努力한다.

### ☒ 새 임원 4명 프로필

宋鶴祚 理事 □36. 1. 16경남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서울지부  
부총무간사·감사 □남성건축 설계  
사무소 대표

朴商浩 理事 □33. 6. 20서울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국방부  
시설국 공사담당관 □한국비로기  
슬부장 □석림건축연구소 대표  
□대표작품: 국제망직 아산공장,  
대한합섬울산공장

金一榮 理事 □39. 11. 14서울  
□한양대건축공학과 □서울지부  
간사 □동신건설공사 대표 □대  
표작품:

李康植 監事 □39. 4. 28경기  
□한양대건축공학과 □공산품 유  
통센터건립위원 □(주)완종합 건  
축 대표 □대표작품: 江南터미널

### ☒ 원로회원추대회원

□李度承(서울) □金秉律(〃) □  
丘龍煥(〃) □崔泳勳(〃) □鄭一  
宣(〃) □李實永(강원) □黃義國  
(전남) □李然億(경북) □林三  
緣(〃) □金南頤(〃) □李正燮  
(경남)

### ☒ 협회상 수상자

□우수상 洪淳嶺 □대우건축연구  
소 대표 □작품명 / 임씨주택  
□우수상 黃一仁 □중합환경연구

소 일진대표 □작품명 / H 씨주택  
□우수상 張起仁 □삼성건축대표  
□논문명 / 한국주택과 주거생활  
□우수상 金仁錫 □중합환경연구  
소일진 대표 □작품명 / 동국대 경  
주분교 사회관

□장려상 金孝一 □원건축연구소  
대표 □작품명 / K 씨 배양열주택  
□장려상 洪思天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명 / 인구·자원·에  
너지

### ☒ 모범직원 표창자

金聖基 □부산지부 총무부장  
梁珍錫 □본부 서무담당  
金銀策 □전남지부 경리

## 建設技術教育院방문

### 具 회장 任員등과 함께

具玆會회장은 지난 4일 建設技術教育院을 방문하고 安秉旭 원장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본회 安箕泰총무이사, 金枝泰서울지부장, 그리고 任仁燮처장등을 대동하고 동 教育院을 방문한 具회장은 安원장을 비롯한 사무처장,

교학처장등과 자리를 함께하고 건축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혀 유대를 다졌다.

건설기술교육원은 국내건축기술자, 기술사, 기사외의 보수 교육을 전달하는 건설부 산하단체로서 앞으로 동양물지의 건설기술 대학으로 승격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安원장은 건축공학을 전공한 金소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건

축기술 발전에

安원장은 具회장과 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두 團體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아끼지 말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具회장은 安원장의 직접안내로 강의실을 비롯한 어학실, 오락실, 기숙사등을 일일히 안내 받고 특히 기술자 교육에 필요한 시적등을 기증받기도 했다.

## 定期理事会 열려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13일과 28일에 본회 회의실에서 本會理事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열렸다.

특히 13일 회의 주제로 열린 13일의 이사회에서는 10월 자금배정 승인 의 건을 비롯, 총회시 모범직원표창자 선정, 그리고 금년도 회원작

品賞 시상의 건, 예비비 사용의 건과 건축사 보수기준 개정안승인 건 등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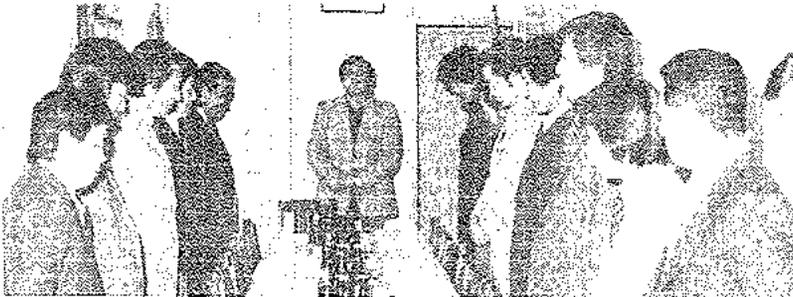
이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제 4회 지부장회의 개최내용을 비롯한 11건에 달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28일에 열린 理事會에서는 16회 총회를 하루앞둔 회의로 會誌 광고요금 인상건과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 수락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 창립16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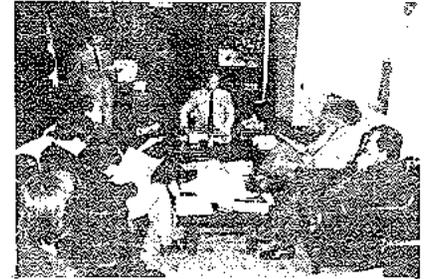
본회 창립16주년 기념식이 지난 달 23일 본 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13일 회장을 비롯한 본부 및 서울지부 任員과 직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기념식에서 本 회장은 지난 16년간을 회고하고 "더욱 발전하고 크게 성장하는 협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천여회원의 굳은 단결과 직원의 헌신적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본부를 비롯한 각 시도 지부는 일손을 놓고 조출한 다 파를 마련해서 환담을 나누고 긴장한 시간을 가졌다.

## 11회 편찬위원회 개최 金위원장 任期滿了



열한번째 편찬위원회(위원장 金正澈)가 지난 4일 본회의회의실에서 편찬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本誌 10월호 合評과 11월호 발간을 위한 편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가진 이날 회의는 먼저 10월호 合評으로부터 시작됐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金위원장은 지난 16회 본회정기총회를 끝으로 理事任期를 다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편찬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金위원장은 지난 79년부터 본회 이사로서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좀 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會誌발간에 힘써왔다.

특히 81년에 들어서는 본회 5대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會誌의 혁신발간을 위해 편집방향의 개선, 개재내용의 정선, 회원 작품 및 원고의 중점 취급에 주안점을 두어 회지의 본체도 진입에 힘써 면모를 바꾸어 놓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 2회 倫理委員會 개최

제 2회 윤리위원회(위원장 閔采基)가 지난달 28일 본회의회의실에서 12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의 심의안건은 설계보수액 부당할인, 사무소폐쇄기간중 업무수탁행위, 명의대여, 건축사법규정 위반건등을 일괄 논의했다.

심의결과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윤리회 규정에 의거 제16회이사회(81. 10. 28)에서 수락)

□ 李相大회원(서울) 자격정지 3개월 □ 李秉... 朴魯善회원(경기) 자격정지 9개월로하고 建築士法



위반 사항은 建設部에 報告 조치 □ 辛琮完회원(경기) 견책 □ 金麒善회원(강원) 建設部에 報告조치

## 司正會議 전달교육 실시

건설부 사정회의 결과교육이 지난 6일 본회 전시설에서 열렸다.

지난달 31일 건설부 사정회의에 참석한바 있는 安箕泰 총무이사가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본부 및 서울지부 직원전원이 참석해서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安이사는 교육을 통해 ① 자율적 행정을 통한 부조리제거 방안 ② 사회정화동향 분석 및 80년대 사회정화 기본방향 ③ 감사방향전환계획 등을 실무적인 예를 들어 당국이 펼치는 정화운동의 기본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安이사는 당국의 기본방향에 입각한 제반 정화작업은 본회를 비롯한 각 지부 업무 수행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자세로 맡은바 업무수행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安이사는 무사안일을 지양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부조리를 없애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활발하고 명량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 서울東部회원 체육대회 농촌 일손돕기운동 벌여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17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폈다.

이날 서울지부 임직원일등은 1정보에 달하는 논외 벼를 거둬들여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한편 24일에는 서울지부 소속동부건축사 연합친목회가 주최한 제 7회 동지구 건축사 및 관내 건축직 공무원 친선축구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 정화·청탁배격운동 실시

지난 10월중 본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는 淨化運動 및 講託배격운동의 활성화와 생활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 위원회개최, 자체점검등으로 나눠 동운동의 심층화에 힘쓰고 있다.

支部別 활동내용을 보면 부산지부는 순회교육과 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지도요강을 마련, 실시해오고 있고 자체점검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실제로 회원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정립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지부도 거리질서 지키기, 자연보호운동, 청탁이권 개입안하기, 복무자세 확립등을 위한 실천사항을 만들어 이의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지부의 경우

는 각종행사시에 동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봉사자세를 확립해서 신뢰받는 풍토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충남지부도 지난 14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운동을 벌이는 등 행사를 통한 동운동의 체질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남·북지부의 경우도 불신풍조를 없애기 위한 자체 교육과 이해증진을 도모키위한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공감리 및 시공의 불실방지, 각종 부조리 추방에 힘을 쏟고 있다.

그밖에 경남·북지부와 제주지부도 본 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자연보호운동, 정화교육, 물차절약, 성신교육, 기강확립등 다채로운 실천사항을 마련해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具兪會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는 강남지구, 성동지구, 강동지구 소속회원과 강남구청, 성동구청, 강동구청, 서울시청건축과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부직원들도 자

리를 함께 했다.

제 3한강교 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날 축구대회는 具兪會회장의 시구로 각팀이 땀을 흘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새建築士像 定立에 노력



朴商浩 理事

오늘날과 같이 急速度로 變化發展해 가는 時代에 強한 氣流속에서 한 그루 理想的인 建築士像의 나무를 꺾개 키우기위해 한 주먹의 맑은 영양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建築士業이 內的으로는 一般事業과 달리 受注에 따른 經營과 最新의 技術情報과 作品의 藝術性등의 多次元的 制約속에서 고민하게 되며 外的으로는 建築關係法과 運營制度面과 設計監理 報酬, 建築士의 福祉 厚生 문제등 많은 複台的인 諸要因이 多面的으로 投網되고 있는 現實情속에서 本協會의 會長을 中心으로 옳은 길과 方法을 찾아 會員의 相互 친목과 發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出發해 봅니다. 우매한 자에게 能力있는 會員의 進言과 戒격을 바랄뿐입니다.

和合하고 一體가 되도록...



宋鶴祚 理事

부덕한 제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본협회 이사 한사람으로서 말은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 충북건축학술 발표회

### 벼베기 일손돕기도

秋季學術발표회를 겸한 건축가협회 충북지부 결성회가 지난달 24일 반공연맹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있었다.

계23회 충북예술계 집행위원회

것인지 먼저 큰 부담을 느낍니다. 국가나 사회나간에 한두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서 그 운영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먼저 그 운영을 책임맡은 모든 사람들이 사심없이 화합하고 일체가 되어야하며 그 국민이나 그 조직원이 원하는 방향설정과 그 국민이나 그 조직원의 호응이탄 큰 배경하에 사심없고 희생적인 노력으로서만이 건설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협회의 살림살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바 없기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임기동안 회장을 보필하고 임원간 화합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협회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사의 한사람이 될것을 약속하며 아무쪼록 주무부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회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여건조성에 힘쓸터



金一榮 理事

서울特別市支部 살림살이의 內助者로서 일하다가 2천여명에 달하는 全國會員을 거느리는 協會任員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함과 同時에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對內的으로는 人和團結과 相互協助의 「기틀」을 다지고 對外的으로는 團結된 우리의 몇몇한 모습과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제반문제들을 슬기롭게 打開할 수 있고

가 취최하고 본회 충북지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 발표회에는 본회회원인 윤영재(종합건축설계공사 대표, 청주대 강사) 회원이 "태양열 이용에 관한 연구" 논문발표와 "Earth Sheltered Housing에 관하여"를 소개한 충북대 이훈교수, 그리고 "한국 고건축의 기

회원각자의 安定된 生活여건과 充足한 作協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 업무에 微力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결심하는 바입니다.

## 近代化와 協業



李康植 監事

여러會員과 같이 協會 運營에 對하여 아는것이 없는 제가 監事 라는 重責을 맡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보답 할 수 있는지 먼저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모르고 있던 協會運營에 對하여 여러會員과 같이 배워가며 서로 相議하여 서로의 不滿을 줄여갈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진 任務이며 여러분의 權利인가 生覺됩니다.

協會는 協會대로 會員은 會員대로 불만을 가지고 서로 장벽을 쌓아 간다면 우리 協會는 發展할 수 없고 近代化될 수 없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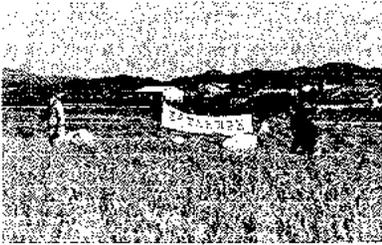
우리 社會가 모든面에 近代化作業으로 先進國대열에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우리모두 協力하여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近代化된 協會가 되어 오는 88年度 國際올림픽 大會때에는 外國人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作品은 물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遺産으로 남게 最善을 다하여 協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協會의 近代化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감안 하시어 積極的인 指導鞭撻 있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더욱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동배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이재현교수(청주대) 등이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발표회와 특히 건축가협회 충북지부 발족을 위한 행사로 이날부터 동지부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한편 동지부는 13일 정화운동주



□ 서울지부농촌일손돕기

진 및 간담회를 지부회의실에서 가졌으며 충주분소에서는 중원군 양성면 태자우(대명촌)부락에 TV수상기 1대와 선풍기 1대, 낫15자루, 삽10자루를 기증하고 1천2백명의 논에서 추수를 거들어 줬다.

### 새마을운동 활력화대회 경북지부·자연보호 캠페인도

경북지부는 지난 10월21일 대구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기라성에서 새마을운동 활력화 결의대회 및 정화교육을 실시했다.

동 支部소속 회원 1백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金在佑支部長의 건설부장관 훈시문 낭독에 이어 김중배회원의 정신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정화 핵심요원인 김중배 회원은 교육을 통해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각자가 노력해서 건축



□ 충북지부 학술발표회

부조리 철폐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이날 서로 작성할 것을 다짐하는 새마을운동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7일에는 대구 시내 앞산공원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 92명의 회원들이 주변에 흩어진 오물들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탄을 흘렸다.

### 한라문화제에 성금기탁

제주지부는 지난 10월14일부 3일간 열린 제20회 한라문화제행사에 성금기탁을 비롯한 캠페인을 벌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했다.

13일 동지부는 회원일동이 모은 10만원을 한라문화제행사 집전 본부에 맡겨 동행사를 더욱 빛나게 한데 이어 같은 날 제주신문 1면에 문화제행사 경축광고를 결합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서



□ 충주분소



□ 경북지부자연보호개회



□ 경북지부결의대회

제주도민의 자연보호의식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월여전에는 자매부락등에 성금과 도서류등을 기탁하는등 많은 사회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 建築界뉴스

### 建設部人事内容

다음은 지난 2일 中央行政機關에 대한 職制改定令공포에 따라 실시된 각 부처 人事内容 가운데 建設部人事内容만을 뽑은 것이다.

▲ 기술심사관 李載明(산업입지국장) ▲ 수도권 정비계획관 柳常悅(건설기획관) ▲ 토지구장 金襍鍾(관리국장) ▲ 건설진흥국장 李和永(해외국장) ▲ 국립건설 연구소 토목부장 金丙玉(대구지방 국토관

리청장) ▲ 국립건설 연구소건축부장 韓奎峯(주택국건축관리관) ▲ 국립건설연구소 훈련부장 崔錫潤(국립지리원 지도부장) ▲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鄭淳虎(토지구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李相泰(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국립지리원장 韓守根(상하수도국장) ▲ 국방대학원입교예정본부 金永植(국립건설 연구소 건축부장) ▲ 해외연수(본부) 崔在和(국립 지리원측지부장) ▲ 산하단체 파견(도공) 柳察容(기술심사관) ▲ 해외 연수

본부 崔炳勳(해외협력관) ▲ 정책연구관(본부) 鄭在善(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 ▲ 국방대학원 입교예정(본부) 徐柄基(국립 건설연구소 훈련부장) ▲ 정책연구관 柳永春(광주지방 국토관리청장) ▲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 사무소장 朴泰權(대구-광주간 고속도로건설 사무소장) (말호는 前職位)

### 韓奎峯관리관 자리 옮겨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직제개정령공포로 지난 2일 건설부를 떠난

韓建策건축관리관은 건설연구소건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韓部長은 건설부재직시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으며, 특히 건축을 전공한 관리로서 건축계의 제비사항을 폭넓게 이해, 원활한 건축행정집행에 큰 몫을 한 공적자로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본회와는 깊은 인연을 갖고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 회원권익보호를 위해서나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건설부신하기관인 건설연구소에서 건축부문을 관장할 韓部長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障 碍 者 를 위 한 施 設」 討 論 會

### 建 築 家 協 會 주 최 로 열 려

韓建策建築家協會는 지난 13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障 碍 者 施 設」을 주제로한 금년도 建 築 博 論 會 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醫學的인 측면에서 본 障 碍 者 의 문제점』(李康穆·漢陽大), 『韓國의 心 身 障 碍 者 복 지 施 設 과 對 策』(閔泳在·三育再活院), 『心 身 障 碍 者 복 지 사 業 의 현 황 과 과 제』(田炳勳·保社部), 『장 碍 者 를 위 한 建 築 및 都 市 空 間 을 위 하여』(朴勇煥·漢陽大)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다음은 朴勇煥 교수의 발표내용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는 약 4억 5천만명의 장애자가 있고 이것은 총인구의 약10%에 해당하며 매년 3백만명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구를약 1백만정도로 추산, 총인구의 2~3%정도인데 국제수준에 비하면 낮은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자의 범위를 극히 한정했기 때문인것 같다.

이들 장애자는 가정이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인의 한사

람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예를들면 도시의 곳곳에 만들어진 육교는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올라갈 수가 없고 보도의 段 差, 出 入 口 의 開 閉, 엘리베이터등에 있어서도 장애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장애자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창조, 즉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한 都 市 및 施 設 計 劃 의 需 要 가 要 求 된 다.

장애자의 취업 역시 최근 공포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고용촉진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실제로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는 한두가지가아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자를 위한 공공시설이나 번소동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까지 갈 수 있는 교통시설 및 수단이 없다면 그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시설이 이용을 가능케하는 수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위해선 장애자나 노인을 위한 시설을 대규모화 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하여 분산 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자란 단순회 의학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인하는 2차적 3차적인 여러가지의 不 自 由, 不 利 益 을 겪고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학적인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훈련에 의하여 능력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환경을 바꾸어 줌으로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자를 위한 환경조성이란 결국 그와 같은 노력을 말하며 장애자를 위한 생활환경의 확대는 「장애」가 핸디캡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위법건축물에 연대책임

서울시는 위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지금까지 건축사만 처벌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 주·시공자·공사감리사를 연대처벌하고 건축사가 1년 이내 또다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기준의 2배까지 加 重 처벌키로 했다.

12일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위법건축사에 대한 처벌기준에 따르면 건축사가 단순한 허가사항위반 등 경미한 위반을 했을때는 관대한 처분을 하고 법규위반이나 행정청의 지시등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앞으로 위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사는 물론 건축주·시공자·공사감리사등을 연대처벌해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았던 건축사가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년안에 다시 1개월 이상의 폐쇄명령을받을만한 위반을 했을때는 처분기준의 2배까지 加 重 처벌키로했고 한번에 여러가지의 위반내용이 적발됐을때는 가장 무거운것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 건축민원등 구청에 이양

서울시 본청에서 취급하던 1백 82종류의 민원 가운데 88가지가 곧 있을 직제개편과 함께 구청으로 넘겨진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을 단계적으로 구청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1백 82종류 가운데 석탄가공업 허가등 엄격한 본청통제가 필요한 94종류만 본청에서 처리키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넘겨주기로 했다.

시는 또 구청의 직제개편 때 구청에 재무국을 신설, 소규모공사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가옥부수시설 허가없애

높이 2.1m이하의 장독대등 7가지 가옥의 부수시설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높이 2.1m이하의 장독대, 책, 망루, 옥탑, 우물덮개, 대문, 가정용 불탱크, 가정용 차광막 등을 가정생활의 편의시설물로 간주, 이웃 가옥에 피해를 주지 않는한 무허가 건물단속에서 제외키로했다. 또 화장실은 주택면적이 9평미만 일때 건축물에 관계없이 수세식을 조건으로 1.5평까지는 관할동사무소에서 신고받아 처리토록했다.

## 住公서 새 住宅型개발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2개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隔層 복도식 고층아파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地表面 아래에 건설하는 履土주택등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주택공사에 의해 선보일 예정이다.

20일 住公에 따르면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은 에너지절약·관리비절감등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끝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것들이다.

住公이 개발, 곧 모습을 보이게 될 새로운 住居型은 다음과 같다.

▲ 併呑성향형아파트=소득중대에 따라 두 가구의 아파트를 병합하여 한 가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이미 城南 지역에 건설중이다.

▲ 混合型아파트=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한棟에 평수가 다른 아파트를 함께 배치한것으로 서울 開浦지구에 시험건설중이다.

▲ 격층복도식 고층아파트=엘리베이터 승강장을 매 2층마다 설치, 공용면적을 줄임으로써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자는 것으로 내년에 果川에 시험 건설할

예정이다.

▲ 북토주택=에너지를 절약하고 구릉지에 건설이 가능하면서도 환경보전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地表面 아래에 짓는 주택으로 유지관리비는 싸지만 초기건설비가 20~30%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 지체부자유자 아파트=전체 인구중 1.57%가 지체부자유자란 점을 감안, 노약자와 유아에게 편리 하도록 설계도를 개발, 내년에 果川에 시험건설할 계획이다.

## 空中건조물도 登記

대법원은 지하건물이나 空中건조물에 대한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지상권등기 처리예규를 새로마련, 이달부터 등기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소유주와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지하상가, 지하철등 지하건조물과 육교위의 상가 또는 고압선등 공중건조물도 그 점유공간만큼에 대한 지상권을 별도로 등기할 수 있게됐다.

종래 지하점포 입주상인들이나 지하철등을 운영하는 서울시 측은 이들 지하 또는 공중건조물의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소유주와 분쟁의 소지를 안고있었다.

## 건물 容積率차등제 실시키로

金周南건설부장관은 국회건설위에서 『현재 대도시 농촌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물의 용적률을 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용적률 규정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병원 학교등 특수 건물과 3층 이상 또는 3백평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검사 이외에도

2회의 중간검사를 받도록한 현행 규정을 고쳐 용도에 관계없이 3층이상과 3백평이상의 건물만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있음을 보고토록한 의무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 小型住宅 건설늘려

건설부는 10坪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13坪형의 주택을 대폭 건설할 방침이다.

金周南건설부장관은 국회건설위에서 국민들의 생활환경, 주거의식 구조 개선에 따라 7.5坪형 또는 10坪형 이하의 소형주택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13坪형의 주택건설의 폭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住宅公社(사장 姜信卓)는 駐韓외국인의 거주안정과 안보 및 외교의 측면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서울 馬山등지에 1천 2백 75가구의 외인주택을 준공,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임대료는 평당 21 달러(일반외국인), 美軍선용의 경우 16.3달러로 국내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형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임대료를 12%정도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舍堂지구 재개발 착수

무허가 불량가옥이 즐비했던 능작구 사당동 산22번지 일대 불량주택을 현대식아파트로 바꾸기위한 사당3지구 제2차 재개발 사업이 27일 착공된다.

지난 7월 착공한 1차에 이어 사업을 폐기될 2차지역은 1만 3백여평에 난립한 4백18동의 불량가옥을 헐고 그 자리에 내년 10월 준공계획으로 5층짜리 아파트(14평형)11개동(5백70가구분)을 건립하게 된다.

# 李喜泰 회원 別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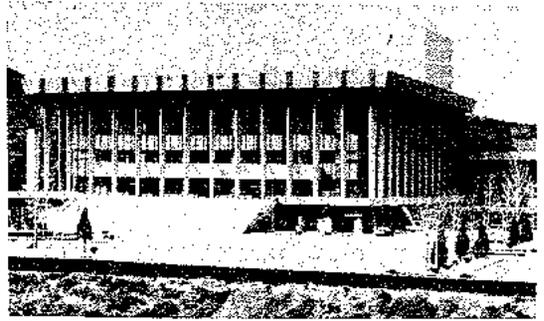


본회 회원이며 영이건축연구소 대표인 **李喜泰** 씨가 지난 1일 오후 7시 시내 강남 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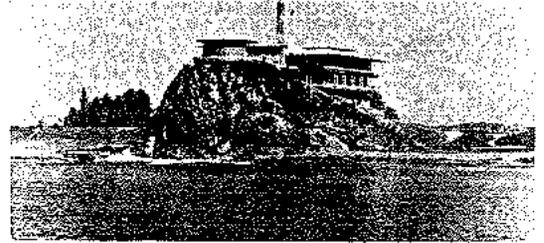
56세를 일기로 별세한 **李喜泰** 씨는 우리나라 건축계를 대표했던 건축사로서 지난 1925년에 서울에서 출생했다.

国立劇場, 부자기념성당 등 널리 알려진 作品들을 남긴 **李喜泰** 씨는 지난 77년 3월에 영이건축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 1925年 7月 10日 서울 生
- 大韓建築學會 理事
- 韓國建築家協會 理事
- 서울대학교美術大學 講師(9年)
- 韓國美術家協會建築部 代表委員
- 國展초대작가
- 國民審査 委員
- 新人藝術賞 審査委員
- 民族文化센터建立委員會 常任委員
- 서울市民會館 顧問委員
- (意匠, 計劃分科委員長)
- 野彫刻 推進委員
- 貿易協會技術顧問(홍콩코리아센터근무)
- 멕시코정부초청 멕시코건축문화 시찰
- 정부파견歐美各國文化施設(극장) 視察
- 정부파견歐美各國 박물관視察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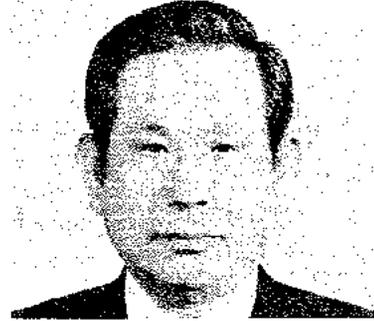
복자기념 성당

다음은 故 **李喜泰** 씨의 장례식전에서 행한 韓國建築家協會 李海成會長の 弔辭를 옮긴 것이다.

## 故 李喜泰 先賢님 靈前 절두산에 오묘한 詩 한폭을 남겨두시고

**李先輩님!**  
李先輩님의 訃音은 여기 모인 建築同志들에게 날벼락같은 衝擊입니다. 우리는 모두 꼭 잘 못된 곳에 잘못 알고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先輩님이 남겨놓으신 聖堂이나 博物館, 劇場들이 아직 손때도 타지 않고 남아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先輩님의 訃音을 半信半疑하며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일찍이 李先輩님은 우리나라 建築文化를 위해 鍾路한 夙願에서 젊은 血氣를 불태우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先輩님의 獻身的 貢獻이 建築人의 求心體인 韓國建築家協會의 뿌리가 되었으며 그 뿌리 위에 協會는 四半世紀동안 成長해서 成人이 되었습니다. 先輩님은 그 功을 내세우지도 아니하셨으며 어떤 功도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先輩님의 그 겸허가 後輩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었다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李先輩님, 先輩님의 透明한 睿智와 銳利했던 感性이 豐富하고 珠玉같은 言語로 化해서 數많은 作品이 創案되어 남겨졌습니다. 惠化洞 聖堂을 비롯한 여러 종교建築이 凝集되어서 漢江邊 절두산에 奧妙한 詩 한폭을 남겨 주셨습니다. 先輩님은 그에 그치지 않으시었습니다. 公州의 博物館을 筆頭로해서 慶州에, 釜山에 民族의 얼을 담고 先祖의 業績을 기리 진사할 틈 없고 소담한 그릇을 장만하여 못사람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先輩님 그뿐입니까, 先輩님의 손으로 이룩된 南山의 国立劇場도 年中行事가 끊이지 않고 이 나라 文化藝術의 殿堂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後輩들이 先輩님의 또다른 円熟한 새 作品을 期待하고 있는데 幽明을 달리하시었다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先輩님의 精力이 衰盡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무급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실 길을 재촉하시겠습니까! 아직도 先輩님의 卓越한 識見과 人品속에 後輩에게 남겨주실것이 많다고 믿고 있는데 先輩님은 한마디 말도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先輩님 고하 잠드소서 여기 모인 여러 後輩들이 先輩님의 敎訓과 業績을 貴重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先輩님이 가르치신 後進들이 先輩님의 뜻을 받들어 謙虛한 마음으로 또한 世代的 眞心적 努力을 建築文化를 위해 傾注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後進들이 先輩님 靈前에 굳게 盟誓하고 있습니다. 先輩님 고히 잠드소서. 一九八一年十一月三日

對話기회 자주가져  
시야를 넓혀야...



□ 건축사법 만들어 국회통과... 협회에서 공로상 줄안하자...

□ 張 언제봐어도 늘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 李 네,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으로 다스려 나간다고 할까요. 먼저 정신적으로 풀치아픈 일이 간혹 생기면 5~10분가량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후에 일단 시간차를 두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일은 그 후에 절대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대로 좋은일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되짚어서 늘 웃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듭니다. 육체적으로는 예들들어 뭘 먹을까 생각해시 아. 그게 좋겠구나 하고 떠올리면 그걸 먹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외사도 그렇게 권유 하더군요. 또 여자관계는 될 수 있는대로 인합니다. 그렇다고 늙었다고해서 아주 멀리하면 그것도 안되지.

□ 張 칠순이 넘어서까지 정정하신 것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李 이자리가 마침 건축사협회니까 내가 건축사법 통과 될 때 얘기 한번 할까요... 건축사법 만들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나라는건 잘 모르는것 같아요.

해방 후 김순화씨하고 건축사법을 만들어 자유당때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리사법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테 건축사법에 건축사는 비파세로 해서 올렸는데 제리사는 면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통과과정에서 제리사법 때문에 건축사법도 면세가 안되었어요. 그때 면세가 되었으면 꼭 좋았을텐데... 그래도 공로상은받을 만 한 일이죠. (웃음)

□ 張 그 건축사법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현업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계 발전을 위해서 교수들도 설계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그 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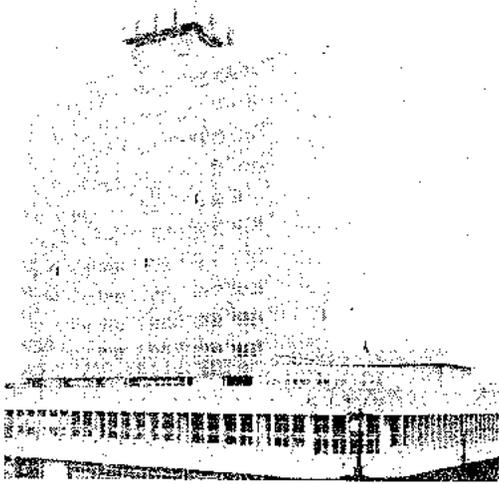
□ 李 네, 맞습니다. 이제는 교수들도 해야합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업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공 정도만을

□ 출생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4 □ 학력 및 경력 /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 경성공업건축과 졸업 / 경성 박길용건축사무소 근무 / 남만주원도(주) 지방부 공사와 근무 / 도시계획연구회이사 / 국회전문위원 / 흥익개발(주) 이사 / 남일건설(주) 대표이사 □ 주요작품 / 대련역사 / 동대문시장 / 경성고교 / 국제극장 / 신신백화점 / 시민회관 / 조흥은행본점 / 한은 부산지점 / 동아일보본사등 다수 / □ 수상경력 / 대한기술 총협회 기술상 / 서울시 7차건축문화상 /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공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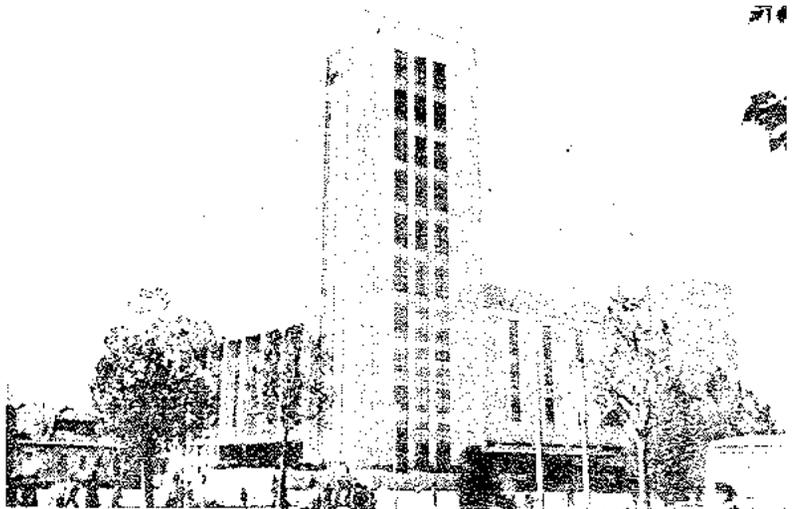
☒ 对談 / 張錫雄 <본지편집위원>



□ 하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축사가 되도록 노력 필요.



조홍은행본점



시민회관

해서는 얼마안됩니다.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해야 됩니다. 즉 기술연마를 해서 직접 뛰어들어 설계도하고 또 시공도 해야되다 이겁니다.

□ 張 선생님은 해방이후에 처음으로 설계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하시면 어떻습니까—

□ 李 지금은 내이름으로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고 하면 지금도 의뢰가 오곤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는 좀 봐주고 도와주죠. 그래야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하면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이 많아져요.

□ 張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조로(早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은퇴하는 예가 있어서…

□ 李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 張 그렇죠. 계속 작품활동을 하셔서 후배들에게도 보여주셔야…

□ 李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어떤때는 후배들과 맞닥뜨리는(부딪치는)예가 있어요.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럴때는 내가 양보하죠. 다만 바달라는 이런저런 것을 보여주지만—

□ 張 제가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양식에 관계가 되는 점이라든가 하는…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떤 흐름을 이루어서 건축계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李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전중전 흐름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시대 건축가가 힘을 쓰면 흐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강물속의 모래에 비유하는데 강물속에는 큰 바위도 있고 또 작은 모래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비록 작은 모래지만 불의 흐름에 작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처지가 비록 작은 모래라고 해도 여럿이 모이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민습니다. 노력해야죠.

나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박길영씨 이후에 내가 바톤을 이어 받았어요. 박길영씨와는 약 10년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후에 김중업씨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김수근씨로 이어진다고 봐요. 물론 각각 10년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아니겠어요.

□ 선배들과 대화나누고 시행착오 다시 없도록 해야지…

□ 張 네. 재미있는 비유 같습니다. 결국 젊은 건축인들이 책임껏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李 맞아요. 맞습니다. 한테 요새 젊은 건축가들은 자세를 고쳐야 해요. 뒎고하니 어떤 일을 맡아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공개해서 좀더 검토 연구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선배들은 이미 많이 해 봤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결과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말예요. 그런것을 혼자해서 또 시행착오를 범하는데 그런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세가 중요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미해결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미해결의 부분을 선배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張 네. 오늘과 같은 이런 대화의 기회를 마련한것도 바로 그런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 李 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거든 낙성식 때도 좋고 아무때라도 선배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라

□ 기술연마해서 해외진출해야 바람직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될 배앗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못하고 서보 혈뜰는 예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삼자에게 소개할 때 나쁜점을 말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장점을 알려줍니다. 특히 작품을 말기는 건축사에게는 더욱 그 건축주의 장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것을 묻는 건축주의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은 단점을 말해주는데 이 선생은 어째 그러냐고 말입니다. 서로 깎아내리면 결국 남는게 됩니까? 그래선 안되죠.

□ 전통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계승되어야...

□ 張 전통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고유의 건축 전통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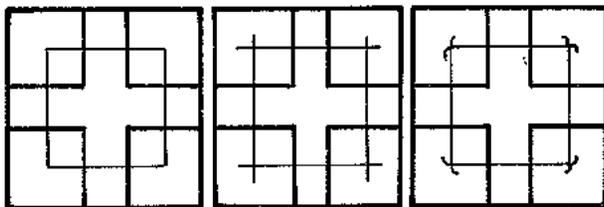
□ 李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배우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을 배웠잖아요. 해서,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것을 잘 몰라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것을 안다는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아는척 할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전통의 맥을 찾아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전통을 배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후배들이 전통의 뿌리를 찾아 연구하고 검토해서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것은 알고있지요. 특히 일본것은 어느정도 압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맛이 나 멋을 어떻게 내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나름대로 모양을 내더군요.

□ 張 어떤 분위기가 풍기죠.

□ 李 그럼, 맛이나요. 한국, 중국, 일본이 나무건축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성적이라면 일본은 여성적이고 한국은 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성과도 연관된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양인 완자무늬 하나를 가지고도 간단하게 세나라의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러한 나름대로의 멋이 하나의 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통이 아니겠어요.

□ 간단한 문양으로 한국·일본·중국의 맛을 낸다.



□ 張 네. 하루속히 확고부동한 우리의 건축을 찾아야 할텐데... 선생님 학교에도 오래 관계하셨죠?

□ 李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안다닌 학교가 없었지... 서울대, 한양대, 이대등등 많이 다녔어요.

□ 一人者が 되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방향제시가 필요

□ 張 학교교육과 실무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李 도제제도(從第制度)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인자(一人者)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전반을 마스터한 후에 한가지 분야만을 파고드는 교육이 필요하죠. 교수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학교교육과 실제적인 실무가 다르다는 것은 교과과정도 그렇지만, 일인자로 커우는 교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張 네, 또 요즘 학생들은 졸업후에는 90% 이상이 건설회사로 가고있는데, 그런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 李 보수문제 때문에 시공회사쪽으로 가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시공만으로는 안되죠. 기술을 팔아야됩니다. 실계를 해야죠. 그들의 방향을 고쳐줘야 할 책임을 교수들이 져야합니다. 여건이 좋아지도록 작자가 노력해야 되고...

□ 張 선생님 작품소개 좀 해주시지요. 대표작품 등등...

□ 李 작품? 없어, 애착이 가는 작품이 없어요. 생각나는건 내손으로 처음해본 만주 대련역사(大連)가 있는데, 당시에 현상응모에 당선되어서 한전때 지금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영보빌딩도 했으나 헛렸고... 해방후에는 자랑할만한게 없어... 그래도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시기에 나름대로 공헌했다고 여겨요. 그 시기에 그만큼 했으니까...

□ 張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한 일을 하신걸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은...

□ 李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다른거야 다 잘들하고 있으니까...

작품이 나오면 선배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고 자유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밥줄 배앗길까봐 그렇지 전혀 그런게 없어 안타깝습니다.

□ 張 네, 우리는 너무 대화가 없는것 같아요.

□ 李 박길영씨가 제실때는 그곳이 사랑방이었습니까, 늘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큰 설계가 나와도 걱정이 없었지... 누구든지 와서 해줬거든. 시간만나면 나와요.

진보하는 사람은 다름니다.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고 배우거든요.

□ 張 그렇죠. 선배님들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 李 휴게실하나 만들어 언제든지 올 수 있게해야... 자꾸 친목을 해야 합니다. 배타주의는 곤란합니다.

□ 張 하루속히 모든 건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당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후배들 많이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日本の 集合住宅計劃의 發展과 今日の 課題

鈴木 成文

(日本 東京大学 工学部建築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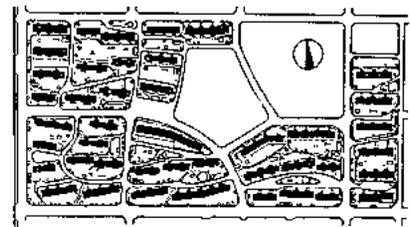
本稿는 지난 10月初, 日本東京大学校 工学部 建築科 鈴木成文 教授의 訪韓에 즈음하여 大韓建築学会가 主權한 座談會 “題·日本의 集合住宅의 計劃과 今日の 課題”의 要約을 本協會의 의뢰에 따라 座談內容中 特히 鈴木成文 教授의 메모를 번역, 정리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漢陽大学·朴勇煥 教授)

/ 參席者 /

尹張變, 金熙春, 田耕培, 安英培, 李延德, 金柄汐  
宋鍾奭, 李海成, 具一鈺, 金眞一, 具琬会, 朴勇煥.

正로 世界 2次大戰後부터 始作하여 發達한 集合住宅 計劃은 本日 日本의 公共住宅 建設과 함께 劃期的인 發展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우기 最近에는 民間建設이 이에 가담하는 事例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樣相이 점차 多樣化하는 實情이다. 이 時点에서 日本의 団地住宅의 計劃의인 側面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成功한 面도 많지만 問題点 또한 적지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反省도 할겸, 戰後 35年間을 時期的으로 戰後復興期, 高度成長期, 安定反省期의 3期로 나누어 各 時期마다 集合住宅計劃의 特徵的인 現象을 살펴 보기로 하면, 우선

年度別 団地住宅의  
配置計劃의 实例



古市団地 (大阪市營 1953-4年)

## 戰後 復興期(1945~1955年)

公營住宅에 의한 集合住宅의 普及에 있어서, 戰後 日本에서는 大都市의 황폐로 因하여 1945年の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하는 것이 큰 問題가 되어 그 応急조치로 國庫에 依한 住宅面積이 6.25坪에 지나지 않는 簡易住宅이 大量으로 建設되었다. 그것은 비록 극히 미흡한 團地計劃이었으나, 처음으로 國庫에 의해 建設된 것으로 以後 公營住宅의 發端이 된 셈이다.

公營住宅은 建設費의 半을 國家가 負擔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賤싼 賃貸住宅을 建設하는 制度로서, 이것에 의해 全國적으로 수많은 集合住宅 및 住宅團地가 建設되었다.

量的으로는 年間建設戶數의 불과 몇%에 지나지 않았지만 住生活을 考慮한 住戶平面計劃, 一團地에 의한 環境形成等의 點에서 民間住宅建設의 本보기가 되었다.

한편, 1945年以後 公營住宅의 標準設計의 作成과 더불어 그것이 公營住宅 R·C造의 建設에 있어서 原則이 되었는데, 每年 標準設計가 새롭게 作成되어 追加 혹은 改訂되었다. 그 結果, 當時 R·C造 建물이 거의 全無했던 地方都市의 경우, 建設技術을 普及하는데 標準化가 커다란 役割을 담당하였고, 또한 그 設計에 있어서도 一流의 設計事務所, 大學研究者 等の 參與로 그것이 日本의 住樣式의 近代化에 크게 기여했다는 點이다.

특히 1951年度의 標準設計에서는, 食寢分離, 就寢室 獨立을 計劃原理로 하여 이른바 DK型 plan의 原型이 되기도 한 點은 近代化의 推進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被害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地方이나 地域의 特性이 無視되었고, 標準化 自体가 항상 時代의 要請에 따라 새롭게 対応할 수 있는 姿勢가 不可欠 함에도, 結局 全國적으로 劃一的이며 同一한 形의 住宅建設이 이루어진 點을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고, 또 다른 問題點으로서는 計劃에 있어서 個體(住戶)와 全體(團地)의 分裂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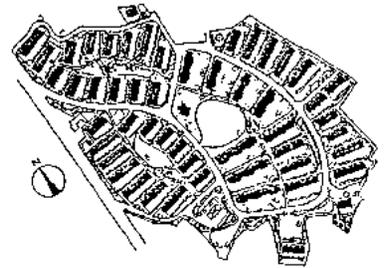
標準設計가 初期에는 주로 住戶만의 標準으로 作成되어 住棟은 단순히 그것을 集合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住宅團地로서의 全體計劃 역시 標準화된 棟을 나열하는 作業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本來 敷地의 狀態나 個別的인 조건에 따라 計劃되어야 할 全體計劃과 그 構成要素인 住棟, 住戶가 전혀 別途로 設計되어 兩者의 分裂이 深化되고, 또한 그것이 그 以後의 集合住宅計劃에 있어서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 點이다.

한편 團地設計基準에 있어서, 住棟은 특히 建設의 經濟性이 優先한 結果, 대체로 4層 階段室型이 一般적이었으나 地方에서는 2層 建物도 많이 建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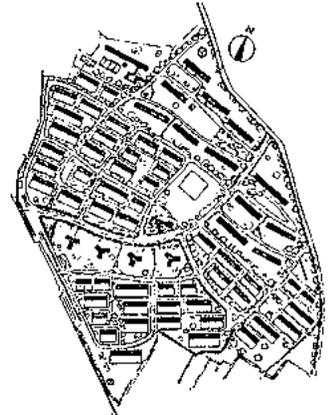
配置計劃上의 하나의 基準으로서 隣棟 間격을 살펴보면 단순히 冬至 때 「4時間日照의 確保」라는 形態로 지켜져 왔으나 그것이 반드시 衛生上의 檢討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團地空間의 密度를 어느 限度 이하로 억제시켜 良好한 戶外環境을 維持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되어 그 役割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反面, 그러한 數値에 規制되어 항상 劃一的이며 單調로운 南面 平行配置된 一即 「團地風」의 景觀을 만드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 高度 成長期(1955~1974年)

住宅公團에 依한 團地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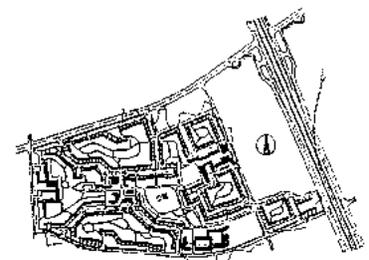
阿佐ヶ谷團地(住宅公團 東京 1958年)



中百舌鳥團地(住宅公團 大阪 1958年)



千里ニュータウン B住区(大阪府 1962年)



八田荘團地(大阪府營 1967-)

經濟的인 發展과 成長에 따라 人口의 급격한 都市集中이 進行된 結果, 大都市圈의 住宅建設이 活潑하게 되었고, 特히 1955년에는 마침내 日本 住宅公團이 設立되기에 이르렀다.

日本 住宅公團은 大團地 住宅建設을 主導한 半官半民의 住宅建設機關으로서 初期에는 1000戶정도, 곧이어 3,000戶, 6,000戶等의 大團地를 建設하였고, 나아가서 뉴-타운 開發에 着手하게 되었다.

한편 住宅公團은 住戶의 標準設計를 一室型에서 3室型에 걸친 標準設計의 型系列을 作成, 整備하였다. 이때 家族型과 住戶規模의 対応 問題가 作成上 主要한 計劃上의 理念이 되었지만, 現實的으로 供給方式이 賃貸費와 取入에 의해 左右될 뿐으로 家族型과 家族數와의 対応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結局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만 셈이다.

標準型의 型系列에 對한 整備는 家族型과의 対応이란 面에서 보다 오히려 大量建築에 따른 計劃·設計作業의 能率化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반면에 그것은 점차 住戶型을 固定化시켰고 住戶의 集合計劃과 住戶計劃을 分裂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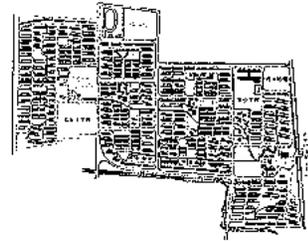
住宅公團의 最大功績은 團地設計에서 찾아볼 수 있다. 適正密度의 維持, 住棟集團의 形成, 어린이 놀이터의 分散配置, 둘러쌓인 戶外空間의 形成, 景觀變化의 演出, 線地의 連續的 確保, 步行者 道路의 整備, 生活領域의 計劃, 公共施設의 適正配置等을 主題로 하는 아름다운 團地가 여러곳에서 計劃·建設되었으며, 計劃 技法上에 있어서 研究分野로 부터의 協力이었다. 住宅公團은 많은 委託研究를 通하여 大學研究者와 긴밀한 紐帶關係를 가지고 새로운 技術의 開發, 檢討, 아이디어 등에 관한 交流를 가졌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의 實態 近隣交際의 實態, 近隣集團의 形成, 生活領域形成의 實態 등에 對한 調查研究는 오늘날 團地計劃의 基礎가 되고 있다. 점차 建設은 大規模化되어 1960年代에는 뉴타운이 建設되기에 이르렀다. 이 計劃의 基礎理念은 英國과는 달리 生産機能이 없고 母都市에 對한 通勤都市로서 密度 또한 높게 建設되었다.

이 計劃에 있어서도 研究分野로부터의 協력이 至大하여 地域人口의 變化予測, 教育, 醫療 등의 公共施設의 規模計劃, 生活圈의 想定, 近隣住區機能, 交通予測, 植物 生態와 綠地 保存 등에 관한 수많은 研究等을 紹介할 수가 있으나 한편에서는 뉴타운 建設로 因하여 都市의 스프롤(sprawl) 現象을 가져왔다는 批判도 적지 않다.

1960年代 末부터 都市가 巨大化, 集中化됨에 따라 既成市街地內의 工場을 郊外로 移轉하고, 그 敷地를 市街地 高層團地로 再開發하는 計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심한 地價의 高騰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高密化를 招來하게 되었고, 그 結果 高層, 中復道型, 南北軸 住棟이 많이 採擇되어 1,000人/ha 以上の 高密度計劃이 많아지고, 巨大性, 劃一性, 좁은 住戶의 開口部幅, 方位의 無視, 日照時間의 缺如等, 居住上의 問題點과 地域住民과의 關係에 관한 問題點을 提起하기는 하였으나, 本來 既成市街地의 高密地區에 넓은 空地를 提供한 點에 對한 評價와 함께 空地의 利用狀況, 周辺地域과의 關係 등에 관한 많은 研究가 行하여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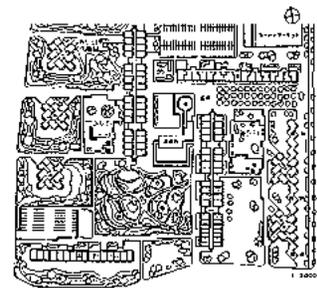
構法의 工業化 - 大量建設에 따른 量産工業化構法이 크게 進歩함에 따라, 그 技術的인 面에서 世界有數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까지에는 政府主權의 提案競技나 建設實驗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며 優良部品の 認定制度 등에 의하여 建築이나 設備의 部品化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技術的인 面의 進歩에도 불구하고 大量供給을 保證하는 制度的인 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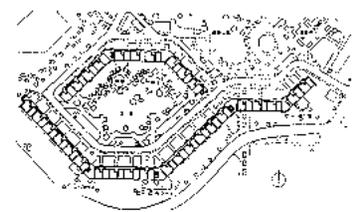
草加松原團地(住宅公團關東 1961-63年)



高根台團地(住宅公團東京 1961-63年)



1968. 日本住宅公團關西支社



1969. 奈良北團地(横浜市)

면에서의 施策이 뒤따르지 못하여 그러한 技術이 充分히 反映되지 못하고 또한 施工, 生産面에서만 偏重되어 設計의 多樣化나 個性化에 있어서 有效하게 寄與하지 않는 点들이 構法的 伸長을 阻害하고 있다.

密度와 住宅形式-地備가 높아짐에 따라 集合住宅의 計劃에 있어서도 高密度化가 要求될 때가 많고 특히 民間의 경우 더욱 그러한 傾向이 심하였다. 따라서 過密을 防止하는 措置의 必要에 따라 그것이 좋은 住環境의 形成을 위한 基礎로서 또한 密度에 따라서 적절한 住宅形式을 選擇하는 即, 計劃上의 要点이 되었다.

現在 日本의 경우 密度와 住宅形式의 관계는 대개 아래의 表와 같다.

(純密度를 表示한것임)

	人口密度 $\alpha$ /ha	容積率 %
低層獨立住宅地	60~200	20~60
低層集合住宅地	100~300	30~70
中層 "	200~450	50~110
高層 "	350~700	90~160

### 安定 反省期(1974年~1980年)

情勢의 變化와 轉換—1974年 오일쇼크의 余波로 인한 急激한 經濟變動과 不況 以後 事態는 一變하였다. 大規模開發이 억제되고, 어느때 보다는도 훨씬 어려운 經濟條件下에서 建設해야만 하였다.

公團住宅의 경우, 都心에서 비교적 遠距離에 位置한 곳에서는 비교적 統出하게 되어 以前과 같이 단순히 建設하기만 하면 된다는 狀況과는 正反對로, 이제는 需要의 精密한 予測下에서 多樣한 形態의 計劃이 必要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機會에 과거 成長期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人間性의 回復이 活潑한데, 이 時期의 問題點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規模의 縮小, 分節化
- 大規模開發 → 小規模開發
- 巨大한 프로젝트 → 人間的 스케일의 존중, 스케일의 分節
- 高層住宅 → 低層住宅(타운 하우스)의 流行

規模가 巨大化되면 自然히 人間性을 잃게 되기 쉽고, 全体가 劃一的 이고 單調로우며 非人間的인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人間性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周辺과 融和하는데도 適合한 小規模開發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大規模의 開發인 경우 그것을 人間的인 스케일로 分節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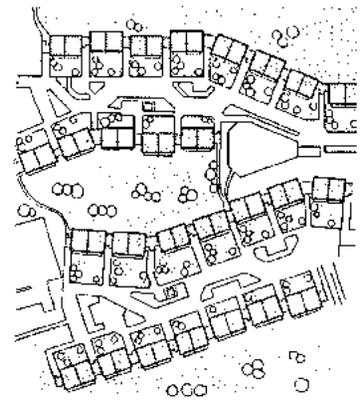
또한 大規模開發이 非經濟的이고 非能率的이라 하여 低層住宅, 타운 하우스에 관심이 集中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좁은 敷地에 高密度로 住宅을 建設하는 미니(mini) 開發이 생겨나서 都市空間의 構成上 새로운 問題가 되고 있다.

- 多樣性, 個別性
- 劃一性 → 多樣性
- 標準化 → 個別性
- 近代化 → 傳統性的 尊重
- 統一性 → 地方性, 地域性的 尊重
- 레디메이드(Ready Made) → 셀프메이드(Self-made)
- 公共性 優先 → 小集團의 尊重

共有空間의 重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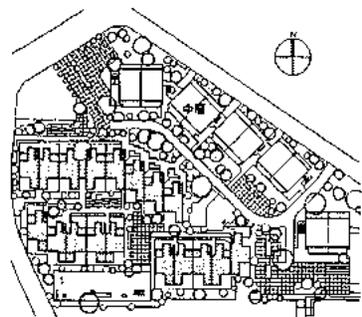
基町団地(広島市) 1972



館ヶ丘団地(東京都八王子市) 1975



六番池団地(水戸市) 1976



下細井団地(前橋市) 1978

高度成長期에는 能率의인 面이 무엇보다 優先하였기 때문에 規格化, 標準化, 近代化의 推進과 더불어 全國 어디에서나 同一한 形의 것이 建設되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이 點에 對한 反省이 빠르게 시작하여 公營住宅에 있어서 各縣, 各地方이 獨自性의 強調과 더불어 多樣한 計劃이 생기게 되고, 居住者의 小集團에 의한 安定된 居住環境을 造成하고 나아가서 住戶內部에 이르기까지 자기 自身에 의한 造作이 尊重되기 시작하고 있다.

人間性

• 能率優先 → 人間性 尊重, 居住性 尊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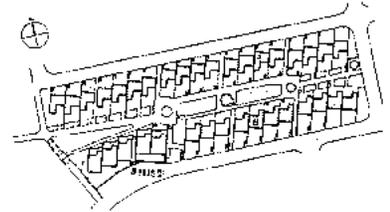
• 建設量優先 → 將來에 남을 資産으로, 高度成長期에 있어서 建設量 即, 戶數확보에 急急하였던 것을 反省하기 始作하여 一戶一戶에 對한 規模의 確保를 追求하고 있다. 이 때문에 公營住宅의 경우 그 戶를 1戶로 改造한다든가 増築에 관한 事業이 일어나고 있다.

住戶 規模의 増加에 따라 居室空間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問題를 포함하여 住戶平面計劃의 理念에 이르기까지 再檢討의 必要性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將來에 남을 資産으로서의 住居」를 計劃한다는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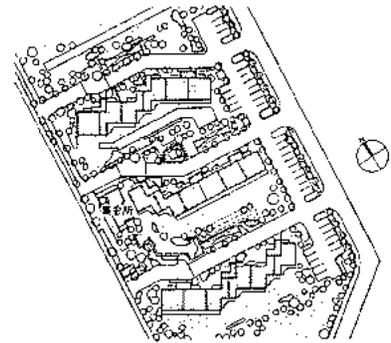
結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日本의 住宅建設은 高度成長期를 通해서 量的으로 擴大되었고 技術的인 面에서의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왔지만 同時에 그것으로 因한 많은 問題點을 남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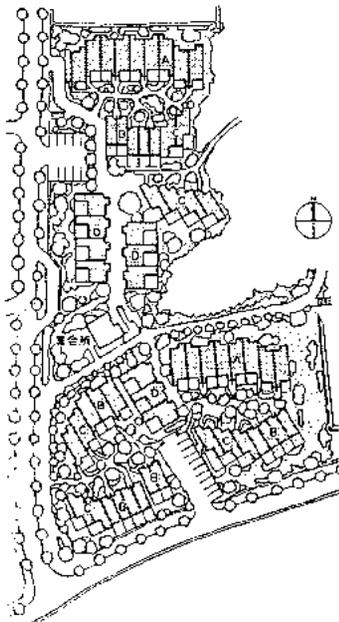
특히 住居規模의 擴大, 適正密度의 확보, 巨大한 規模의 分節, 人間性, 個別性의 尊重등이 큰 課題로 남았다. 이것은 當면한 經濟성과 반드시 兩立하지는 않지만, 住宅이 將來 資産으로서의 價值가 있어야 한다는 보다 긴 眼目으로 볼 때 重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庭代舎 타운하우스(大阪府泉北 뉴 타운) 1975



さつき団地(神奈川県海老名市) 1978



타운하우스 諷訪(東京都多摩ニュー타운) 1979



北岸和田団地(大阪府門真市) 1978

## 회원위해 더 힘쓸터



삼성건축 張起仁

이번 총회에서 저의 조그마한 논문을 우수상으로 하여 주신것은 60평생을 지낸 오늘 분에 넘치는 것이라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보다 훌륭하고 좋은 작품과 논문들을 쓰신 회원에게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밝고 큰 기쁨을 안겨주신 것은 오로지 여러 회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면서 보다 많은 일과 더 한층 좋은 일을 해보라는 격려와 편달로 알고 쇠전하여 가는 불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다시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후학·후진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별다른 유산도 없이 한낱 헛되게 지낸 것을 크게 뇌우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으로 가득찬 저에게 과대한 성정과 넘치는 찬사를 보내주시니 더 없는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협회와 여러 회원을 위하여 힘쓸 것을 다져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건축은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계속 주력하여 문화의 창조와 기술의 고도화로서 약진하는 건축의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 건축사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회원과 발맞추어 저도 따를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책임감 절실”



대우건축연구소 洪淳寅

같은 시기 비슷한 환경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친 우리들 건축공토에서는 수상작이라 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작품을 얻기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는 현상공모설계에서도 많이 보아왔으며 이를 심사하여 수상작 또는 당선작을 뽑아야 하는 심사위원님들의 고충은 더욱 알만하다.

다음은 지난 10월29일 본회 제16회 정기총회에서 '81협회상을 받은受賞者들의 수상소감 및 작품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張起仁 / 논문 : 한국주택과 주거생활  
□洪淳寅 / 작품 : 임씨주택 □黃仁 / 작품 : H씨주택 □金仁錫 / 작품 : 동국대 경주분교사회관 □金孝一 / 작품 : K씨태양열주택

다만 수상작의 경우는 다른 작품보다 많은 작가의 성의와 사용자

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볼수 있으며 필자 역시 그중 한예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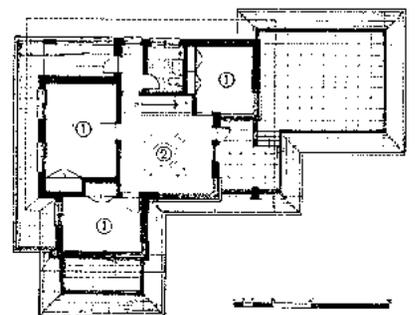
준공이 끝난 지금의 솔직한 느낌은 설계자가 설정한 어떤 구획에 사용자(입주자)의 생활이 구속되나 않는지? 또는 설계자의 어려운 디테일상의 주문이 설비상 구조상 하자를 안고 있거나 않았는지 항상 염려스럽다. 그리하여 준공후 1~2년후 방문할 기회를 가질때 두려움없이 보람의 시간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인해야 할 것도 있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때도 있다.

화려한 작품기록 뒤에는 어려운 과정과 많은 인내가 있어야 하고 좋은 작품은 사용자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순수한 결정 같은 것 이어야 한다고 평소 입버릇 처럼 이야기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사용자에 대한 애정이 좋은 작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더욱 바란다면 당해 입주자(사용자)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이젠 설계하는 주택의 주변환경 나아가서는 그마을 그골목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기존마을 분위기에 유리되지 않은 조형, 기발하고 독창적이 아니라도 좋다. 단 위주택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 전체와 융화되어 마을마다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의 창출이 우리 설계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洪淳寅씨 作品「임씨주택」



## 살만한 환경을 위하여



黃一仁

중합환경연구소 일건

81년도 협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주택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짓는 이유는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로 볼 때는 훌륭한 주택이 많지만 이들이 모여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새로이 개발된 지역일 수록 더욱 거칠고 메말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곳에 들어선 집들이 싸구려여서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인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가족의 안식처로써보다 교환가치로 더 크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 아니 어쩌면 아무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높이는 축대, 요란한 재료, 과장된 장식 -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그릇된 생각으로 만드는 이런 장치들이 결국은 그 집을 포함한 동네 전체를 정 떨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애정을 가지고 짓는 집만이 좋은 집이 되고 좋은 집 - 비싼집이 아니고 - 이 모여서 만드는 좋은 마을이야 살만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좀더 질이 높은 생활환경, 좋은 마을, 자랑스런 도시가 되도록 협써야 하겠습니다.

### 審査評

## “作品意圖 분명해져”



李延德  
고려대학교수

지난 1년 「建築士」誌에 실렸던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였으나 이제 한된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대할수가 있었다. 특히 설계作家의 作品意圖가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이 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음을 특기하고 싶다.

이것은 건축사의 설계방향에 건축주가 순수하게 따라갈 만큼 우리나라 民間文化의 水準이 높아진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高層사무소·호텔·백화점 등의 작품에서 느껴진 상업주의적 건축은 그 외관은 물론 공간과 구조계획에 이르기까지 獨創性의 작가적意志가 돋보였고, 대부분의 교회

와 일부의 학교에서는 평면과 외관에 대담하고 집요한 창의적意志를 부각시키고 있다.

住宅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면이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짜여진 이른바 합리주의적(rational)경향이 짙고 또한 현대적 생활감각에 맞도록 각방마다 아주 細心한 계획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좋은 작품들 가운데서 優劣을 가려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건축작품은 항상 그 배경적 요인이 건축마다 다르고 건축가의 설계의도도 여러가지의 窠으로 「올터네이트」되며 또한 심사하는 사람의 主觀과 시간·장소적 제한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비록 이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현상설계같은 데에서 응모한 건축사들과 심사위원이 공동적으로 똬똠 맛을 씹을하게 느끼게 되는 원인도 이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서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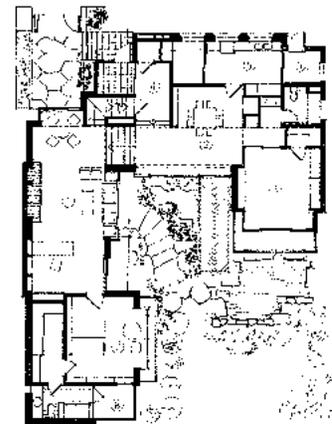


## 많은 참여 바람직



金仁鎬  
중합환경연구소 일건

뜻하지 않게 “협회상”을 받고보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 송구한 마음입니다.



黃一仁씨 作品「H씨주택」

분에 넘치는 영광을 준 협회당국과 심사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유능한 선후배 동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지는 해마다 발전이 있었고 좋은 회원 작품도

눈에 띄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달 받아보는 협회지를 통해 우리는 건축계의 동정을 알 수 있고 좋은 설계 자료가 되어주고 우리들 자신의 발전상을 직감 할 수 있어 흐뭇하여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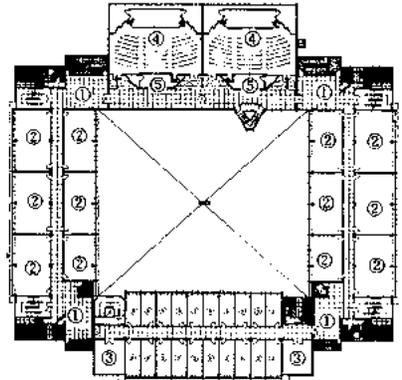
아쉬운것은 아직 폭넓은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개되지 않은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협회당국에서는 더 많은 수고가 되겠지만 보다 좋은 자료와 작품

을 찾아서 협회지에 소개하므로서 회원전체의 설계 활동에 도움이 되고 질의 향상에 매개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과 참여로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金仁錫씨 作品「동국대 경주 분교사회관」



## 적극적인 작품평가를



金孝一  
원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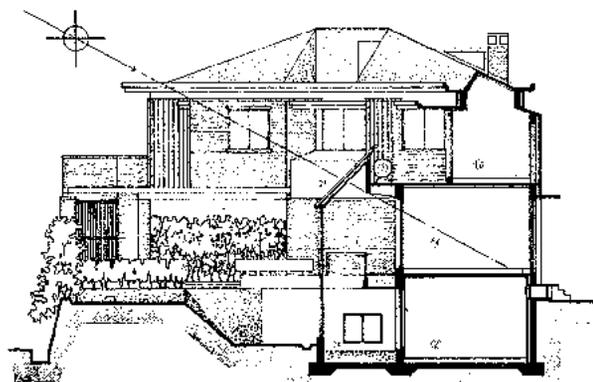
본 협회가 과거 어느때보다 다 른 차원에서 시도한 이번 회원작 품전과 주택특집 회지발간등 일련 의 새로운 변혁은 전국회원들에게 밝은 희망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 되며, 이를 과감히 주도한 협회장 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 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협회 상 작품전이 앞으로 더욱 권위있 고, 진취적인 발전을 기하려면 연 례적인 전시나 시상제도, 평가방법 등의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사회원 작품전은 현실 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간에 숨겨 진 더 큰 교훈을 회원 상호 간에 교류하는데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時空間과 光 의 효과에 따른 대단히 복합적인 内外空間의 분위기를 몇장의 사 진만으로 한정된 지면을 채워 진

시를 위한 기교에만 치중 한다면 실존건물의 본질을 도외시한 기만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현지답사에 의한 비평이라든지 보다 다른 각 도에서 연구와 보완대책이 강구되 었으면 합니다.

협회상작품전이 질적, 양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전국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많은 제약과 부담 을 안고 있는 지방회원에게 여유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설계자는 누구나 결코 시 상제도에 의한 수상의 자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金孝一씨 作品  
K씨태양열 주택

## 評論의 基本方向 (抄錄) (I)

Bush Brown 著  
宋 攷 求 譯  
(宋攷求建築研究所)

다음은 Architectural Record 1959년 10월호에 실린 M. I. T. 副教授 Bush Brown의 論文이다.

소위 機能主義라는 機械時代建築에 대한 날카로운 批判이 일고 있었던 때이며, 또 모든 藝術을 言語로서 파악하려는 研究가 무르익고 있을 때이다.

1970년 이후, 또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記호로 보려는 思想, 다시 말하여 記号論(Semiotics)에서 藝術을 考察하는 그야말로 世界의 尖端을 걷는 思想이 建築論에서도 支配的인 것이 되었다.

그러한 底流에는 다음이던 論理的 經驗主義 哲學과 構造主義 言語學, 즉 英, 美, 佛의 思想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특히 無限論争으로 始終한 哲學을 再建하기 위하여는 言語의 曖昧性을 除去하여야 된다는 思考는 建築에도 妥當한 것이며, Brown의 論文 도처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主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된다는 것은 비단 建築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初學者를 위하여 本文中에서 그러한 것들을 譯者나름대로 註釋을 달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 譯者註 /

現代建築에 관해서 막연히 放談되는 따위의 마치 무너진 Babel의 탑과 같은 批評의 구설들 때문이 아니었다 라면, 聖 Augustine의 라틴旗를 휘날릴 필요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Poisy에서 Ronchamp에 이르기까지, Bauhaus에서 Baghdad까지의 章을 넘겨 본다음, Mies風의 透明체로부터 Dublin 大使館의 施廻하는 모양의 壁面에 이르기까지에서 날개를 켜 독수리를 본다음에는, 몇몇 評論家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같이 사람들은 現代는 死滅한 것인가 아닌가를 묻고자 한다. — 死滅이라 함은 예들들어 裝飾의 復古主義의 犧牲, New Brutalism에서 추악한 죽음의 신음소리, 新自由의 嘆願이 機能主義의 死体위에 沒落함으

로써 終末을 告하게 된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死亡記事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많은 法人組織이라던가 政府와 같은 依賴人이 한번도 좋은 設計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 (現在도 그들은 그것을 育成하여야 할 業務이며 團體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또, 한번도 現代作品과 같은 높은 水準이며 또는 다양한 變化를 우리들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死亡記事가 이르다는 것은, 建築이 지금 Aalto에서 Zimmerman까지를 보면, 充滿한 空間을 지니고 있으며, S.O.M.의 경우는 普遍的이고 믿음직하며 뛰어난 才氣를 다 갖추어 나타내고 있으며, Wurster, Rudolph 또는 Yamasaki는 個性의이면서 때로는 詩的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이 일어났었던가 하면, 建築이 오랫동안 理論에 뒤쳐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現代建築의 design에 갈려 있었던 偏狹한 理論에 대한 挑戰은 동속에 고기를 풀어주는 것과 같이 용이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일찌기 1950년에 Nowicki는 “形態는 形態를 따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機能主義의 slogan의 指導力을 소멸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初期建築의 社會的 支柱는 戰後의 繁榮으로써 흐트러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잘 反映한 것이 Yamasaki의 宣言인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建築의 社會的 機能이 藝術作品을 創造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不幸하게도 理論과 評論이 形態에 관해서 거의 아는 바



〈그림 1〉



〈그림 2〉

없었으며, 또 藝術에 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였던 時期에 그들의 試金石이 정확하게 잃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에 그러한 無知가 建築에 대한 오늘날의 막대한 機會를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建築은 다시 한번 그것이 지녔던 野心과 몽둥한 理論的 風土를 틀림없이 발전시켰을 것이다.

아무리 그러한 潮流를 높이 評價한다 할지라도, 直觀的인 洞察力에 의한 高度로 生産的인 時期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經驗이 축적된 理論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依賴人이건 建築家이건 (兩者가 전부 좋은 建築을 필요로 함으로) 그들이 지니는 創造的 精神은 곧 批判的 精神이 아니면 안된다.

吟味되고, 研究되며, 축적되어야 하며, 또 檢討되며, 評價되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하며, 그리하여 必然的으로 이끌어지는 完全性으로 觀念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아직도 達成하지 못한 드높은 理想을 지니지 않은 建築家가 있겠는가?

만일 그러한 理想을 지니지 않은 建築家가 있다고 하면, 그로 하여금 라틴어를 더 공부하게 하고 Augustine을 다시 한번 읽게 하여야 할 것이다.

/譯者註/

聖 Augustine이 引用된 것은 Aurelius Augustinus (354 - 430)는 初期그리스도敎의 敎義를 神學的 統一을 하여 中世思想體系 形成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偉大한 獨創的인 思想家이다. 특히 그는 美의 本質論을 中心課題로 한 많은 글을 남겨 中世의 美學思想을 싹트게 하였던 것이다.

Poisy에서 Ronchamp에 이르러까지라는 것은, 물론 Le Corbusier에 관한 말이며, Poisy에 유명한 Le Corbusier의 Savoie 邸가 있다.

Bauhaus에서 Baghdad까지라는 것도 Walter Gropius에 관한 것이며, Baghdad에 관한 것은, Gropius가 'The Architects Collaborative International Ltd'를 設立하고 1950년 후반에 Bagdad 大學 綜合計劃案을 作成 發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Mies 風의 透明체로부터 云々の 句節은, 사실 Saarinen의 作品에는 Mies 風의 것도 많다. 특수리모양을 한 T. W. A. air terminal은 Sydney Opera House를 審査하고 作사 만든 作品이라고 한다.

## I. 建築의 評價基準

위대한 建築은 여러가지 段階의 기쁨을 준다. 우리들의 知性에 영향을 미치며, 零圍氣를 造成하고, 우리들의 記憶을 攄흔들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것은 材質, 音響, 향기로운 특히 視覺을 통하여 우리들의 感覺에 호소하며 우리들의 環境에 대한 認識을 刺激하는 것이다.

A. 建物이라는 것은 다음 세가지 경우에서는 建築일 수가 없다.

1. 완전히 失敗하였을 경우.

a) 失敗가 뚜렷한 경우.

b) 論할 여지가 없는 경우.

2. 目的에 適合하지 않을 경우.

a) 이것은 機能上的 失敗를 말한다.

사람들은 住宅이 非能率的인데도 그들의 適應性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며 심지어 資本化까지 하는데, 그러한 人間에 대한 居住性을 判斷하는 것보다 住居를 機械로서 이끄는 것을 評論으로서는 더욱 중대시한다.

b) 결출한 作品은 모든 目的에 대하여 반듯이 이로운 것은 아닌 것이다.

음향학으로 명확한 聽取를 위하는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敎會에서는 그러한 것이 최상의 方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극단한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敎會 둥근天井 구석 구석을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聖職者가 真理探求를 함으로써 찾을 수 있도록 聖父와 聖子와 聖神에게 비는 것이다.

c) 말할 나위없이 완전한 作品이라는 것은 美와 는 분리되어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美의 結果이지 美의 生成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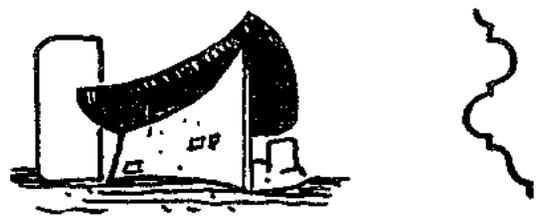
/譯者註/

機械時代의 作家들은 航空機라는가 船舶의 경우와 같이 必要한 것 以外の 것은 除去하고 오직 機能을 완전히 發揮시켰을 때 美가 生成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때 生成된 새로운 機械美를 人間은 創造하였으며 '形態는 機能을 따른다.' 라는 유명한 말도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批判한 것으로서, 사실 表觀과 內容은 表裏와 같은



〈그림 3〉



〈그림 4〉

것으로서 어떤 한편을 斷論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機能이라는 것은 形態에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된다.

Cram의 Gothic Marquand教会가 長老教派사람들이 大多數인 Princeton에서 宗教的 儀式을 점차로 英國國教化로 促進시킬 때,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났던 것이다.

3. 藝術作品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

a) “무엇이 藝術作品인가?”라는 反問에 대답할 때 타당한 批判基準이 있어 그것을 強調하는 것인데, 그 批判의 基準이 論難의 余地가 많은 것이다.

b) 우선 傳記의 名言을 判斷할 때 혼돈 하여서는 안된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句節도 흥미있는 傳記의 名言의 한토막이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채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한 정도에서 모든것이 處理된다는 것은 좋던 나쁜 自身の 趣向의 水準을 皮력할 따름이다.

c) 둘째는 “아름다운고로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句節을 생각하여 보자.

이것은 質에 관한 判斷인 것이다.

그러한 傳記的 情報은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句節과 같이 適切치 않다든가 근거없는 것일 수 있다.

### B. 藝術의 基本으로서의 統一性

1. 趣向이라는 것은 분명히 主觀的인 것이다. 歷史라는 것은 좋고 나쁜 趣向의 屍體室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쉽게 흔들리며, 마치 流行이 變하는 것과 같고, 때로는 Clark Gable이 主演한 “It Happened One Night”라는 映畵에서 그가 가슴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슴을 들어낸 까닭으로 綿製內衣産業은 거의 破産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無知한 者의 判斷이라는 것은, 公正한 法廷은 아닌 것이다.

Hagia Sophia, Taj Mahal 또는 Amies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는 사람이 Milwanukee州 戰爭記念館을 判定하기 위하여 현명한 辯護人일 수는 없는 것이다.

2. 知識人, 藝術學徒속에서 일고 있었던 批判的인 判斷은 두드러지게 일정한 것이였었다.

世界各地에 있는 큰 建物 100個에 대해 表를 만들어 보라.

評論家가 除外하였던 10個를 당신은 포함시킬 것이나, Paul Revere House, Mother Lode에 있는 통나무造 飲食店, 美軍團의 野戰郵便局같은 것은 表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Howard Johnson이 아니고 Philip Johnson의 建築에 注目할 것이다.

그것들이 社會의 한 記錄으로서 얼마나 讚美에 차고 興味에 찬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써는 위대한 建築에서 期待되는 卓越함의 基準이 될 수 없다.

그러면 建築이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무엇이 啓示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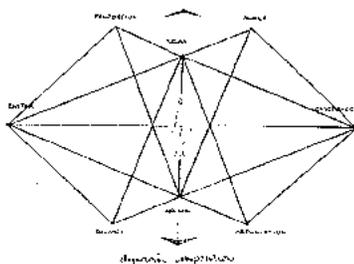
3. 光線과 陰影속의 mass를 본다든가, 앞으로 나온 다든가 뒤로물러선 平面, 突出한 部分과 움푹들어간 部分을 보게된다고하여, 또 目的이 명확하게 表現이 되어 은신처에 대하여 확실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된다고 하여, 그것이 강하고 統一된 言語가 되며, 그 自体가 완전히 一貫性을 지닌 建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a) 統一性이라는 것은, 一貫性있는 要素의 組織이 이루어진 결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위대한 建築이라는 것은, 支配的인 主題를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主題는 Villa Capra의 경우와 같이 한없이 맑은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림 1)

또는 Seaton Delavel (그림 2)와 같이 主題가 不安과 刺激으로 兩立된다면, 對立에 부닥치게 되고 違背됨에 놀라는 感情으로 充滿될 것이다.

b) 藝術作品이라는 것은 반듯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Picasso의 Guernica 못지않게 Berlin에 있는 Mies Van



(그림 5)



(그림 6)



(그림 7)

der Rohe의 Liebknecht 記念碑는(그림 3) 어떠한 달콤한 感覺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두가지가 다 人間行動을 告發하는 것이며, 그들이 非難하는 그 醜惡한 面에서 人間을 壓倒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c) 그러므로 藝術作品의 構成은 目的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美라는 것은 相對的인 것이다. — 相對的이라는 것은 觀照者에 대한 것이 아니고 自体가 지닌 全體的인 意味에 대한 것이다.

이 構成의 原則은 主觀的인 것이 아니며, 특정한 效果를 이룩하기 위한 道具인 것이다.

하얗은 예이나, 빨간 壁은 空間을 縮少시키는 느낌을 준다든가, 軸이 形成된다든가, 外觀上 무게가 感少된 것으로 느끼게 한다든가, 壁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든가, 크기를 확실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空間에 視覺的 效果를 내기 위하여 色彩를 利用하는 原則도 普遍的으로 作用하는 것이고 客觀的 事實인 것이다.

d) 다만 어떤 특정한 점에 原則을 採擇할 것인가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루어야 할 目的에 左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垂直壁에 대한 曲線과의 關係는, 만일 曲線이 垂直壁에 대하여 切線이 平行하지 않을 때는, 또 直交面을 지나 交叉할 때는, 대개의 경우 가장 정밀하고 뚜렷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原則이 많은 建物の 構成을 올바르게 뚜렷이 하는데 反하여, Ronchamp 寺院은 그렇지 않아 그 価値를 심히 感少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굽은 지붕과 base가 없는 壁으로 神祕를 나타낼 작정이었으나, 垂直面, 완만한 傾斜面과 曲面사이의 명확하지 못한 관계가 意圖的인 神祕性을 誇張한 것이 되었다. (그림 4)

e) 反復하여 보자. 모든 原則은 확실한 反對命題를 지니는 것이다.

原則의 利用은 成遂하여야 할 目的에 依存하는 것이다. 不協和와 協和사이에도 그 나름의 固有의 法則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原則이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는 대단히 差異가 있는 것이다.

### C. 空間의 統一性和 包括性

1. 대부분의 公共環境이 오늘날 4가지 原則的인 誤謬로 美學的인 見地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a) 즐겁고 쓸모 있는 環境을 空間의 秩序, 連續 및 律動的인 繼起에서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고 認識되어야 할 것이 利用面에서 構成하고 陽地와 陰地를 들추는 것으로 잘못 認識한 것이다.

b) 建物이 지닌 一貫性이라는 것은 構成(空間과 mass의 調整—均衡, 律動, scale 및 抑揚)을 통하여 우려나 오는 것이며, 어떤 樣式(Gothic, Georgian 또는 現代)에 부합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난 失敗가 그것이다.

c) 主道路, 크라이막스, 終結 이러한 식이라든가 構內 또는 公共空間이 지니는 內的 리듬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난 失敗도 그 하나다.

d) 構成에는 두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 하나는 靜的인 것이며 Parthenon과 같은 單純性, 統一된 形態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動的인 것으로서 多面的이며 標題藝術과 같은 것이다.

動的인 것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標題藝術的인 것으로서 進行順序의 여러 부분이 非對稱的으로 調整되고 또 여러 平行한 軸 또는 群集하는 軸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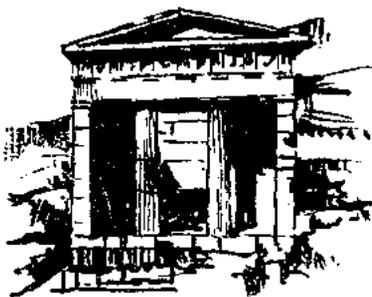
다른 하나는 方向性 또는 律動性이며, 相間인 긴 韻律이 mass 또는 空間의 긴 方向으로 움직임을 知覺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5)

i) 靜的인 것의 한 예는 Pyramid이다. (그림 6) 하나의 空間속에서 있으며, 孤立되어 있고, 自足的이며, 周圍 어디서나 보이고, 軸이 限定되며, 크라이막스를 나타내고, 構成이 象徵的役割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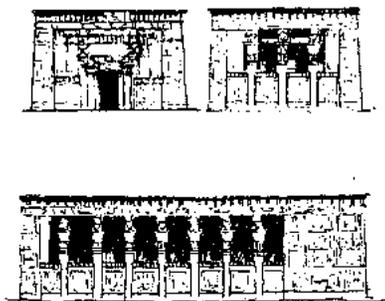
動的인 것에서는, 空間이 mass를 支配하여 外形을 이루게 한다.

軸은 獨立되지를 않으며, 다른 建物 또는 떨어져 있는 空間과 均衡을 이루어야 完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ii) 이 두가지 종류의 構成은 두가지 理由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첫째, 靜的이라는 것은 結節点이며, 그것으로써 크라이막스를 支配하는 것인데 反하여 動的인 것은 連續的인 外部空間의 윤곽을 드러낸다.

둘째, 이 두가지 建物에서 靜的인 建物 내부에서는 올바르게, 영원하며, 相對的으로 安定된 속에서 公共의 機能이 깃들어 機能할 수 있게 되는데, 動的인 것에서는 一時的인 것, 過激的인 것, 私的인 利用으로 말미암아 可變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iii) 그러한 分類의 法則이 주어짐으로써 두가지 型的인 建物이 서로 相反되는 design의 原則에 흔히 따르게 되는 것이다.

靜的인 것은 하나의 總體로서 또 統一된 構成으로써 그것을 孤立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의하여 助成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Volume, 水平性, 垂直性 등으로 3部로 나누는 区分이 靜的인 建物을 強調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8)

動的인 것은 重複性, 長大한 것, 헤아릴 수 없는 韻律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建物이라는 mass에 들어가는 出入口은 空間의 視覺的인 反應에 스며들어 反應하는 것이다. (그림 9)

重複性和 rhythm은 觀照者로 하여금 反應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강요하며, Viterbo에서와 같이 重複性을 外部의 均衡되는 점으로 轉換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림 10)

2. 例: 베니스의 Piazza di San Marco (그림 11)

a) 이 현명하고 予期치 못하였던 地利用에서 隣接한 것, 連續性을 지닌 것에서 먼 거리에 있는 要素들까지 空間의 律動的인 繼起를 受容하도록 構成이 自體의 限界 밖까지 뻗어있다.

b) 一貫性은 rhythm, scale 및 均衡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특정한 樣式에 符合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c) 建物形態가 지닌 階層(hierachy)이라는 것은 뜻깊은 公共의 建物에서는 강한 建築言語를 留保하는 것이다.

記念性을 띤 建物이 그러한 것인데, 主出入通路로써 그

것이 나타나고 또 限定되는 것이며, 또 좁고 긴 조망(vista)이 긴 内部의 rhythm으로써 形態를 이루게 한다.

d) 空間은 漸進的으로 커지며 記念的인 Basilica에서 끝맺어진다.

空間은 標題藝術的인 建物으로써 規定지워지는데 一列拱으로 된 壁이 긴 桁間의 繼起를 構成하고 있다. 또 그 結果에서 이루어진 空間은 塔과 같은 記念的인 要素로써 強調되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이의 空間에는 注意를 이끌어 焦點이 되게 하는 軸이 여러갈래 있다.

平面에서는 形態의 變形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며, 錯覺과 立體感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mass 및 空間, 빛과 그림자의 對比로써 強調되고 그와 함께 色彩, 材料, 質感 및 scale의 差異에서 강조된 것이다.

D. 基本的인 分類: 樣式 대 構成 (그림 12)

統一性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空間과 mass를 組織하는 機能이며, 樣式은 아닌 것이다.

1. 建築에서의 '樣式'이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수의 建物이 空間, mass 및 平面에서 어떤 要素가 共通點을 지녔을 때 그 結果로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기, 모양과 機能에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類似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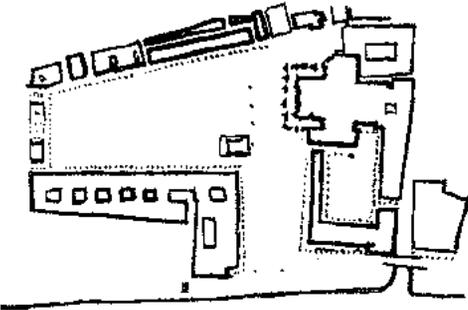
2. 構成이라는 것은 樣式的인 要素의 組織이라는 뜻으로 귀착된다.

3. 그에 대한 法則에 관해서 몇가지 基礎的인 說明을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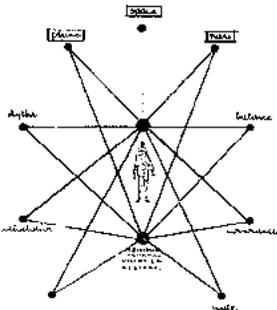
a) 같은 樣式的인 두 建物을 예를 들어 Amiens와 Chartres를 선택하여 보면, 한편이 構成에서 뛰어난다고 할 수 있다.

b) 서로 다른 樣式的인 두 建物, 말하자면 Parthenon과 Vierzehnheiligen은 構成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감탄할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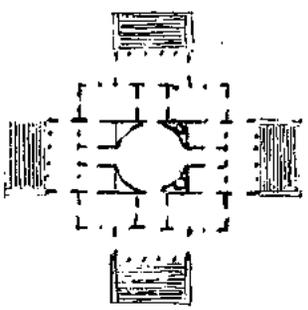
c)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기를 贊成하지 않는 樣式的인 建築으로서 예를 들면 Havard에 있는 Richardson의 Sever Hall 또는 Washington에 있는 Bacon의 Lincoln 記念館과 같은 것은 탁월한 構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이와는 달리 Frank Lloyd Wright의 Kansas City 에 있는 Community Church는, 樣式에 있어서는 마땅히 是認되어야 하나, 한탄스럽게도 design으로서는 失敗한 것이다.

4. 그러므로 樣式이라는 것은 一構成과는 同一한 것이 아니며 一形式面에 있어서 卓越하다는 것의 基準은 아닌 것이다.

다음에 樣式에 대해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II. 樣式의 理解에 대하여

“樣式”이라는 어휘와 같이 現代建築家에 의해서 摺呑된 말은 거의 없다.

그 말은 古典的 秩序에 관해서 教科書的 發想으로 잘못 이끌어낸 것이며 構造를 털어 써우는 化粧性的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公認롭게도 現代理論은 대개 樣式에 관한 것이 되는 다루지를 않았으며, 새로운 樣式을 主張하였었고 또 理論全體를 樣式을 造作하는 것에 돌리는 잘못을 犯함으로써 오늘날 批評의 基準을 혼미로 빠트려 헛되게 한 原因의 하나가 된 것이다.

### A. 樣式의 範圍와 意味

#### 1. 樣式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東洋과 原始建築과 구별되는 西洋建築에는 連續性이 있다.

東洋과 原始建築은, 平行 4 邊形과 專制君主的인 상자와 같은 人間의 은신처에 대하여 偏愛하는 식을 西洋과 같이하지는 않았다.

樣式이라는 것은, Gothic이 2대지 3백년을 지속한 것과 같이 歷史의 한 時期를 證明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Spain과 그의 植民地에서의 Plateresque와 같이 排他的이며 國家的인 것이며, 또는 이탈리아식 Gothic과 같이 한 時代의 樣式을 國家的으로 變革한 것도 있다.

Provençal Romanesque와 같이 단지 地域的일 수도 있으며, Venice주위에 있는 Palladio의 꽃과 같은 作品같이 단 하나의 派의 作品조차도 포함되어 地方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個人的인 基準에서 Gaudi의 作品이 그러하였듯이 樣式은 完全히 個性的일 수도 있다. 또 個性的인 樣式이라는 것은 承認할 수 있는 斷切을 지나게 된다. 그러한가 님게 Frank Lloyd Wright가 걸어온 길은 여러 段階로 細分할 수 있는 것이다.

2. 樣式이라는 것은 特色을 지닌 空間, 그림자, 構造體系, 裝飾에 관한 暗喩인 것이다.

a) 建築에 관한 想像力은 幾何學的 形態와 數學的 크기와 함께 作用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原初的인 形態로서, Giza의 Pyramid; Pisa의 円筒形; Palazzo Strozzi의 平行 6 面體; 円筒形 柱만이 水平으로 깔린 것; 球의 절반 또는 dome; 雙曲面 vault; 인도의 토막집과 같은 여러종류의 円錐形, Alberobello에 있는 흙손질한 집과 같은 꿀벌통 모양의 dome; Padua에 있는 San Antonio의 지붕과 같은 3角 프리즘形; 또 Ravenna에 있는 San Vitale와 8角 프리즘形 등이 있다.

b) 그러한 基本的인 모양은 建物全體를 限定하게 될 것이며; 格을 낮추면 構成要素가 된다든가 또는 단순히 다른 形態의 補助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걸음 더 格을 낮추게 되면, 기둥위 라든가 裝飾이 되는 것이다.

3. 모든 樣式上의 暗喩는 由來를 保證하는 것이다. 特定한 場所와 時間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중에서 그 起源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a) 이집트인은 軸에 대하여 直角인 幅에서 平面을 連續시켜 배치하였다.

平行한 映像이 연속됨으로써 생기는 律動感은 不規則하며, 同一하지 않고 空間이 細分된 것을 단순하고 긴 軸으로써 連續되고 연관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b) Gothic 建築은 알아볼 수 있는 空洞으로써 主軸을 이루게 하고, 空洞을 細分함으로써 桁間의 規則的인 韻律이 일어나게 하여 그것을 강한 律動的인 裝飾으로써 묶는 것이다.

명확한 分離는 많은 細胞와 같은 空間으로 区分하게 되며, 강한 軸은 全體 幾何學的인 것과 더불어 焦點을 향해서 一貫性있게 立體感을 強調하게 된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 新都市計劃 理論의 發展

하워드(Howard)로부터 코르비제(Corbusier) 까지

朱 鍾 元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教授)

## 1. 序 論

近代에 이르러서 英國에서 비롯된 田園都市의 理論이 發表된 이래 많은 理論들이 展開되었다. 이들 理論中에서 實現된 것도 있고 실현을 보지 못한 것도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都市計劃理論을 考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理論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田園都市와 田園近郊

하워드(Ebenezer Howard)는 자급자족하는 제한된 규모의 도시를 1892년에 제안했다. 즉 넓은 정원화 저밀도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의 첫째 개념은 중심도시 주위에 배치된 클러스터 도시(Cluster cities)를 제안했다. 그안(案)에서는 작은 규모의 도시에 살면서도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이편(利便)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소도시(小都市)에서 제공할 수 없는 대학, 미술관, 극장등을 이곳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 이론에서는 저밀도의 주거지 개발을 표방했으나 저밀도의 개념이 하워드의 원래의 안(Scheme)이 아니었다. 하워드는 평균 대지의 크기를 6.1m×40m (74평)로 하여 에이커(acre) 당 17호의 밀도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하워드는 아이들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햄프스테드(Hampstead Garden Suburb)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전원근교(garden suburb)의 설립자인 바넷(Dame Henrietta Barnett)의 원래의 개념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1000여명의 거주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전원근교는 1907년 운윈(Sir Raymond Unwin)의 설계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계층을 위하여 마련되지 못하였고 그 대지(地)는 이상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즉 기술공(artisans)의 고용의 기회를 마련할 공장이 너무 멀었다.

그것은 중산층(中産層)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 커뮤니티

는 교회와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장 되었다. 그 커뮤니티는 개성을 가진 개인의 장소이었고 아이들이나 가정생활을 위한 친밀한 환경이었다.

하워드와 바넷트의 아이디어를 운윈(Unwin)이 어떻게 흡수하고 개발하였는가 하는 것은 1909년 발간한 "Town Planning in Practice" 라는 책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안(scheme)에서는 중심에 교회, 공회당, 도서관, 공공기관, 점포, 여관,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village community)의 창조는 조합(組合)에 의하여 통제 되므로서 성취될 수 있다고 했다.

운윈(Unwin)과 파카(Barry Parker)에 의하여 1903년에 렛치워스(Letchworth)에 제 1 전원도시가 건설되었다. 그곳에는 하워드의 제안이 나타나지 않았다.

1919년에 비롯된 웰윈(Welwyn) 전원도시의 성장은 느렸다. 1946년에 인구가 40,000이었는데 그 이유는 구(ward)로 분리하는 필요성과 보조적인 사회적 중심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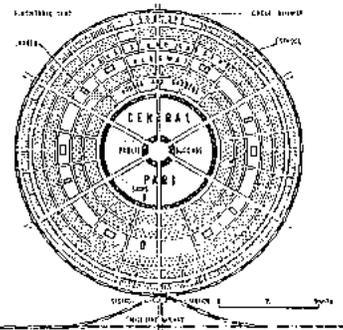


그림 1.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 3. 선형도시(linear city)

아주 혁신적인 도시계획 이론의 스페인의 기술자 소리아 마타(Arturo soria Y Mata)에 의하여 고안 되었다. 1882년에 그는 선형도시의 아이디어(idea)를 발전시켰다.

그것은 500m폭의 도로이다. 그 끝은 카디즈(Cadiz), 피터스버그(St. Petersburg) 나 북경(北京), 브뤼셀(Brussels)이 될 수도 있다.

이 무한히 뻗어 나가는 띠모양의 도시 중심에는 기차,

전차, 수도관, 가스관, 과 전기, 저수지, 정원, 시 (市)의 시설을 위한 건물 즉 소방서, 위생, 보건, 경찰서 등이 있게 된다.

소리아는 기존의 두 도시를 연결하는데 이 이론을 적용하려 한듯하다. 그는 실제로 마드리드(Madrid) 교외에 55km에 달하는 커뮤니티를 설계했는데 그중 1/4정도가 건설되었고 소리아가 설립한 회사는 재정난으로 1940년에 해산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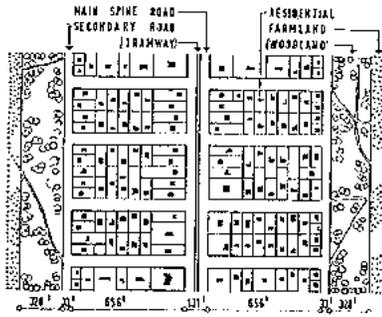


그림 2. 마타(Soria Y Mata)의 선형도시 패턴

그런데 이 선형도시가 현대 교통체제와 결합 지어지는 첫번째의 응답이었다. 그것은 쿠이다드 리니얼(Cuidad Lineal)에서 보는 200m의 주택지와 40m의 간선도로로 구성된다. 그리고 바깥쪽에 부도로(副道路)와 산림(森林) 및 농토로 형성된다.

쿠이다드 리니얼(Cuidad Lineal)은 완전한 개념이 아니다. 즉 끝부분(point-city)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선형도시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2차대전 후 런던을 위한 말스플랜(Mars plan)에서 다시 이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 4. 근린주구의 아이디어(Neighborhood idea)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인데 학교를 공동체 활동의 중심으로 사용한다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은 페리(Clarence A Perry)가 1910년에 발표한 "The Wider Use of the School Plant"에서 찾을 수 있고 근린주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것은 1916년에 계획현상(計劃懸賞)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개념은 1929년에 발간된 페리의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 7 "The Neighborhood Unit : A Scheme of Arrangement for the Family Life Community"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페리는 워리스트 힐(Forest Hill)이라는 인구 5,000의 뉴욕(New York) 교외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 전진한 커뮤니티였다.

그곳에서 관찰한 항목은 ① 국민학교, ② 작은 공원과 놀이터 ③ 점포 및 ④ 주거환경이었다. 이 연구 결과로 1000가구(家口) 혹은 인구 5,000이 한단위가 되었을 때

그 유대가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론적인 연구는 워튼(Queen's Borough, N. Y. by Robert Whi Hen)에 의하여 인구 6,124, 학교아동 1,021명 전체면적 160acre(20만평) 순수주거지역 90acres(11만평)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그런데 전체면적의 10%를 공원과 위락 recreation grounds 을 위하여 할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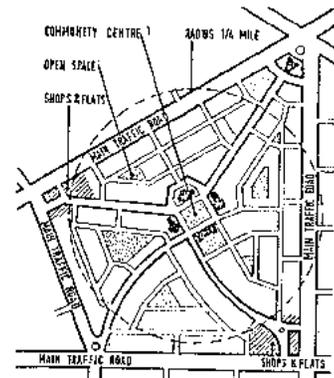


그림 3. 1929년에 페리(Clarence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단위

#### 5. 래드번의 아이디어(The Radburn Idea)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린주구 단위형태(neighbourhood unit pattern)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적용한 곳이 뉴저지주의 래드번(Radburn, New Jersey)였다.

사기업(私企業)인 시 주택조합(City Housing Corporation)은 뉴욕에 썬사이드 가든(Sunny side gardens, New York 1924, 1928)을 건설하고 부정형(不整形)한 토지 5.12km<sup>2</sup>(1,536,000평)를 샀다. 그것은 3개의 근린주구에 25,000인을 위한 전원도시(garden city)를 건설할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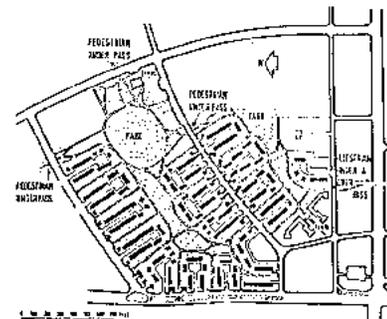


그림 4. 래드번(Radburn) : 공원과 보도(歩道)의 체계를 나타내는 건설된 도시의 일부분

슈타인(Clarence Stein)과 라이트(Henry Wright)가 안(案)을 마련했다. 800m를 반경으로 한 중심에 국민학교와 놀이터를 설치하고 인구 7,500~10,000의 근린주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30~50acres(36,720~61,200평)의 차보도분리(車歩道分離)에 원칙을 둔 대형가구(Super block)로 이루어 진다.

래드번(Radburn)은 완성되지 못하였다. 첫번 입주자가 들어오자마자 불경기(不景氣)가 미국을 휩쓸었다. 1933년

까지 건물과 토지취득율은 감소했다. 조합(Corporation)은 파산하고 신도시의 꿈은 불경기로 인하여 깨지고 말았다.

표면상으로는 레드번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지 계획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 신도시를 완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는 경제적 불황(不況)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좋지 못하여 산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레드번의 개념은 그 규모가 80acres(10만평)인 로스앤젤레스의 볼드윈 힐즈 빌리지(Baldwin Hills Village, Los Angeles 1941)에 적용되었다.

### 6. 소련에서의 근린주구

근린주구의 아이디어(idea)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았다. 소련에 있어서 1930년대에 모스크바(Moscow) 제안현상에서 진스버그(Ginsberg)의 선형도시안과 운윈(Unwin)의 제자인 메이(Ernst May)의 근린주구 안(案)이 경합이 붙었다.

1936년에 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의 주택국장 이었던 카우후만(Eugene Kaufmann)은 근린주구 안(案)을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그 안(案)은 페리(Perry)의 것과 비슷하고 주요도로는 다량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주구에는 점포, 학교, 탁아소, 및 음식점이 마련되었으며 그 단위의 위계(hierarchy)적인 수요(needs)에 따라 계획되었다.

그 제일 적은 집단의 단위는 5층 아파트로 된 1,000~1,200인 규모로 중학교는 이 두 집단에 하나 마련되고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1,000명이 되도록 계획했다.

일인당 공기(Open space)는 10m<sup>2</sup>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 10m<sup>2</sup>속에는 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에서는 탁아소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적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카우후만(Kaufmann)은 사이몬(A. P. Simon)의 Manchester Made Over라는 책을 참고로 했지만 페리, 운윈과 기타 영국이나 미국 계획가의 작품은 알고 있지 못한 듯 했다.

### 7.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

쾨르비제(Le Corbusier)가 1922년에 제안한 빛나는 도시와 그의 저서 도시(Urbanisme)는 현대도시계획의 이정표(里程碑)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명백하게 20세기 도시의 결점을 파헤쳤고 도시는 도구(tool)라고 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효력이 없으며 우리들의 육신을 다 소모했고 우리의 영혼을 좌절시켰다고 했다. 질서가 결여된 곳에서 도시는 우리를 공격하며 그들의 타락은 우리의 자기존중을 훼손했고 우리의 존엄성을 추락시켰다고 했다.

그 도시들은 더이상 우리에게 가치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쾨르비제는 그 문제의 핵심이 교통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힘은 폭풍우에 의하여 불어오는 강물과 같고 우리 인간은 사냥꾼에게 잡힌 짐승과 같으며 우리들의 생존의 규범은 완전히 무너졌고 뒤집혀 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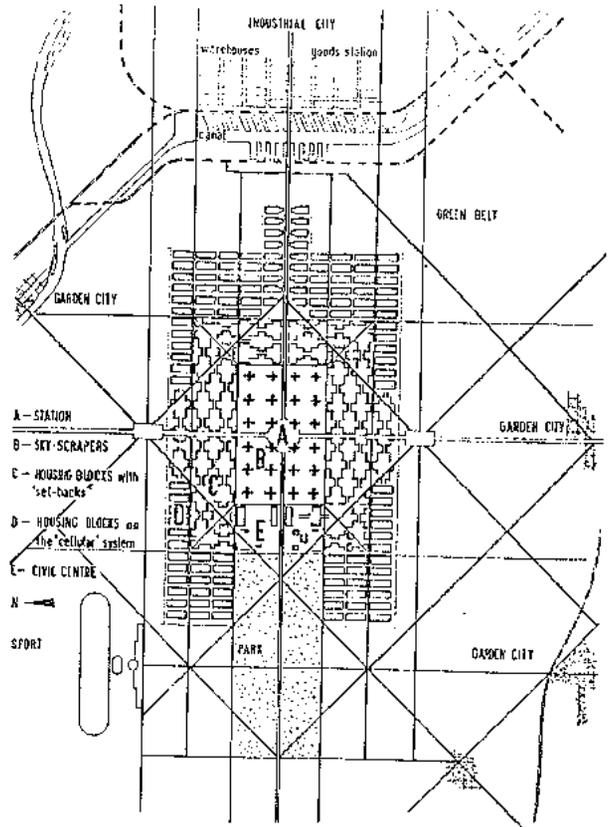


그림5 빛나는 도시 쾨르비제(Le Corbusier)의 이상도시 계획안

쾨르비제의 사상의 기초는 기존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기초적인 원칙에 이를 수 있는 철저한 이론에 입각한 공식을 고안(考案)하는 것이다.

그가 제창하는 요구조건은 교통의 수요(需要)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심지의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고 중심지의 밀도를 높여서 사업에서 요구되는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공원, 녹지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게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고 혁신적인 형태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쾨르비제는 인구 300만의 도시를 제안 했는데 그는 시민을 ① 도시에 살면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 ② 교외에 거주하면서 교외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③ 교외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도시 자체는 사업의 중심지로서 파격어져 있어야 하고 생기가 넘쳐야 하며 접촉하는때 소요되는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집중되어야 한다. 신선한 공기와조용함이 필

수적이므로 공지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전통적인 복도와 같은 가로(Corridor street)를 탈피하여 건물의 고층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꼬르비제는 합리적인 교통체계에 바탕을 두고 그의 제안을 전개하였다. 즉 3가지 종류의 도로체제를 제안하였는데 밑의 층에는 물품을 운반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그 위에는 보통 접속도로(access road) 그 위에는 콘크리트 교량위에 도시의 두개의 축 즉 일방통행의 간선도로가 밑의 체계와 1.6km간격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부차적인 가로 패턴은 400m간격으로 격자로 형성하여 교차점의 수를 줄이면서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그는 또한 완전한 철도체제를 제안했다. 그것은 각400m가구(街区)의 중심에 지하 정거장이 있고 튜브(tube) 체계로 도시와 주된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 밑에는 교외교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의 루프(loop)체계가 마련되도록 하였고 또 그 밑에는 동서남북으로 가는 주된철도가 부설하게 된다. 이 모든 체계는 하나의 커다란 중앙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정거장은 돔(dome)으로 덮여져 있게 된다.

도시의 심장부인 정거장 주위에는 60층의 사무소건물이 큰 공원과 인접하여 있게 된다. 또한 그곳에는 레스토랑, 극장, 상점, 공공건물, 박물관, 및 행정건물이 있게 된다. 그리고 도심의 확장을 위하여 쓰이게 될 공원용지도 마련하였다. 중심지역 주위에는 주거지역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400m가구(街区)로 구성되었고 모두 아파트(flat)를 짓도록 하였다. 공업지역과 화물역은 도시로부터 공지에 의하여 격리되어 설치되었고 이 공지인 녹지대(green belt)는 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300만인의 2/3를 수용할 수 있는 전원도시가 될 것이다.

꼬르비제가 제안한 도시의 패턴은 현대적인 이동성과

그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위한 정열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은 지나치게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첫 인상이 들게 된다. 그것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지에 실험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그의 안(案)은 인간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즉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안(案)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주거조건을 마련하였으며 공지의 필요성과 시의 모든 부분에 훌륭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센스(sense)가 있었다.

현대기술의 혜택에 힘입어 꼬르비제는 길다란 수평적인 아파트 대신에 수직적인 전원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의 원칙은 실용적이 못된다는 이유로 실망적이라고 했다. 그 원칙들은 과거의 것들과 확실히 다르다. 즉 24년 전에 제창한 하위드의 전원도시안과 다르다. 그런데 꼬르비제의 원칙은 완전히 바뀌어진 세계에 있어서의 방향제시였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들의 도시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꼬르비제가 제안한 것 중에는 자동차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결 언

본고에서 하위드의 전원도시이론부터 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의 이론까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어느 이론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게 되어있으나 이론전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나행이겠다. 이 이론 외에도 런던계획을 위한 MARS안(案), 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브로드 에이커 시티(Broadacre City)안 등이 있으나 기회가 있는대로 계속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新刊書籍紹介

### 障 碍 者 를 爲 한 建 築 의 計 劃 과 設 計

監修 韓國建築家協會長

李 海 成

編著 漢陽大學校 教授

朴 勇 煥

定価 9,500원

發行処 理 建 社

# 컴퓨터를 이용한 建築設計

## A Sketch on the Computer-Aided Architectural-Design

“Architecture as frozen Music”  
“Building as frozen Data”

金 文 鉉

(韓國科學技術院, 工博)

### I. Prologue

컴퓨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지도 15년 가까이되고 또한 建物の 構造解析, C.P.M (Critical Path Method)에 의한 工事管理技法 等に 컴퓨터가 활용된 것도 그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構造計算 等 이른바 엔지니어링 部門에 대한 컴퓨터의 이용은 이제 普遍化되어 가고 있으며 施工会社에서는 經營管理 目的으로 大型컴퓨터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電算補助建築設計(CAAD: Computer-Aided Architectural-Design)는 최근 많은 엔지니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電算補助設計·製作(CAD/CAM: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의 建築設計分野의 應用으로 주로 中·小型컴퓨터에 映像處理장치(Graphic Display), 計數型資料入力機(Digitizer), 自動製圖機(Plotter) 等 컴퓨터 固刃기기들을 연결하여 空間計劃(Space planning), 空間合成(Space synthesis), 形態合成(Synthesis of Form) 등 設計基本概念(Design Concept) 단계부터 詳細圖製圖까지 컴퓨터의 能力을 활용하는

설계방식(Design Methodology)인 것이다.

筆者는 建設分野와 컴퓨터 應用의 겹쳐지는 分野가 研究의 対象인 관계로 이 分野의 研究·開發·普及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技術分野, 工事管理 等に 컴퓨터 이용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CAAD分野의 研究開發現況을 스케치하고자 한다.

### II. CAAD

#### II·1. 무엇인가?

強力한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효율적인 資料의 蓄積·分類·再生 시스템)를 基盤 으로한 컴퓨터의 도움으로 建物の 設計에 필요로하는 各種形態(숫자, 문자, 그림)의 資料(設計事務室에 쌓여있는 資料, 顧客으로 부터의 注文資料, 建築家の 머리속에 맴도는 資料等)를 저장·수정·조작하여 空間設計에 필요로 하는 問題를 解決하여 그 결과를 주로 그림(圖面)형태로 表現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즉 空間(Space)과 個體(Object)를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과 개체간의 相互關係를 計量化하여 많은 可能한 조합가운데서 설계자가 부여하는 目的函數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시키는 方法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CAAD 혹은 CABD(Computer-Aided-Building Design)이라 함은 CAE(Computer-Aided Engineering)의 일부인 구조 해석·설제도 포함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공간처리문제가 중점적인 대상이 된다.

#### II·2 어제/Archiputer

초기의 컴퓨터는 빠른 계산속도때문에 開發되었다. 즉 숫자처리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후 컴퓨터는 오히려 各種 大量資料들의 분류·정리 등 文學처리능력이 크게 이용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는 記錄情報의 또다른 形態의 한가지인 圖型處理分野까지 확대되고 있다.

各種工作機械, 自動車, 船舶, 航空機의 設計·製圖 그리고 建築設計 等 컴퓨터 利用能力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확장되고 있다.

“컴퓨터의 能力을 건축설계에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엄청난 의문은 지금부터 20년전 미국의 MIT, Harvard 等の 建築科에서 젊은 設計方法研究者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 시절은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론티어(New Frontier) 기치아래 달나라 탐사계획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은 빛이든지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구가 왕성하여 기존의 방법들을 부정하던 때 인것이다. 1950년대 말 부터 1960년 초기까지의 이른바 “새로운 것에의 도전의 황금시대”였다. 이 무렵 MIT, Harvard, Yale, Penn State 대학의 건축학도들(N, Negroponte, C. Alexander, M. Milne, ...)은 새로운 설계방식의 한 형태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에 대

해 연구 하였다.

이 당시 이웃 土木科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인 STRESS, 道路設計用 COGO等 이른바 ICE S (Integrated Civil Engineering System)이 개발되고 컴퓨터 分野에서는 동료 Ivan E. Sutherland가 박사논문으로 圖型映像處理方法인 SKETCHPAD를 발표하여 크게 주목을 끌고 있었다.

MIT 建築科의 The Architecture Machine Group, Harvard의 Center for Environmental Research, Carnegie Mellon 대학의 Institute of Physical Planning, Pennsylvania 주립대학의 CADLAB이 이 무렵 미국 東部지역의 CAAD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구름이었다. 한편 英國에서 수학과 건축을 전공한 Christopher Alexander가 Harvard에서 “形態合成에 관한 研究(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으로 Ph.D.를 받고 Berkeley로 옮기고 나서 UCLA의 W. Mitchell과 西部지역의 CAAD 구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무렵(1960~1970년초기)에 발표된 시스템으로는 COPLANNER(1964, Souder, Clark), URBAN 5 (1970, Negroponte, Grossier), IMAGE 1968, Johnson, Dietz, Weinzapfel), BUILD (1970, Teague), Design Problem Solver (1975, Pfefferkorn) Building Optimization Program(1971, S. O. M.) 등이 있으며 그후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補充開發되어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한편 英國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研究·開發·活用되었다. 대학으로는 Cambridge의 CAD Center가 연구의 중심이었으며 이때 보급된 시스템으로는 우체국 설계용의 CEDAR, 병원설계용의 HARNESS, OXSYS 등이 있다. 日本에서는 Osaka 대학과 Nikken Sekkei 회사가 실용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이들 건축가, 연구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무한이 빠른 컴퓨터, 크기는 작으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컴퓨터, 정밀도가 높으며 빠른 自動製圖機, 쉽게 그리고·지우고·재생시킬 수 있는 映像處理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하드웨어(Hardware: 기계自体) 시스템의 비싼가격 때문에 극히 일부 설계회사(S. O. M. Ellerbe Architects, Caudill-Rowlett-Scott, Nikken Sekkei)에만 한정되어서 실용화되거나 오히려 生産性이 높은 航空機, 自動車 제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1970년 중반의 전체적인 不況으로 건축분야에서는 다시 고전적인 설계방식으로 복귀하였으며 이 분야의 연구는 컴퓨터 周辺기기 製造業체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 II · 3 오늘 / Computect

1970년대의 반도체중심의 電子部門의 급속한 개발로 컴

퓨터의 성능은 가격과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서 컴퓨터에이커들의 성장은 건축설계·시공회사의 성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창업 35년만에 세계 5大企業으로까지 성장한 I. B. M. 회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社會構造가 情報化時代로 옮겨감에따라서 컴퓨터産業은 컴퓨터本体메이커 뿐만 아니고 각종 주변기기 제조업체, 이에따른 소프트웨어(Software: 利用技術)開發기관에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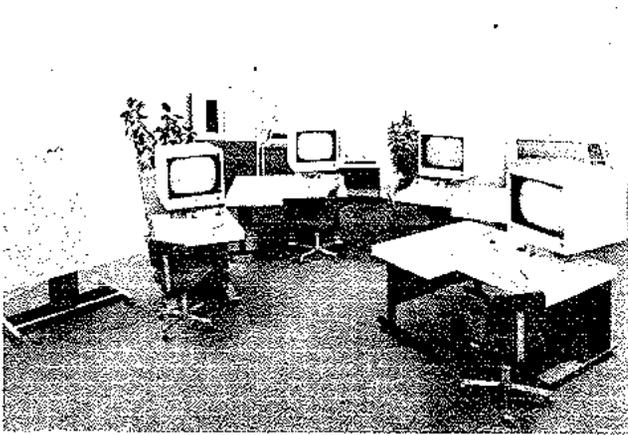
1960년대 건축가로서 컴퓨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새로운 設計方法을 모색하던 一群의 건축가들— 이른바 Archi-puter Group (MIT의 Architecture Machine Group의 James Taggart, S. O. M.의 Lavette Teague, Villier 등) 중의 일부는 圖型處理장치, 自動製圖機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중요 개발담당자로 건축설계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CAAD 시스템 제조업체중 대표적인것으로 Decision Graphics, Computervision, Applicon, Calma 등이 있는데 Applicon에는 J. Taggart가 Computervision에는 P. Villiers, Decision Graphics에는 J. Nilsson 등 건축가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Archi-puter에서 Compu- tect로 變身을 한 것이다.

한편 70년대 후반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컴퓨터메이커의 끝없는 이윤추구의 소산으로 CAAD 시스템이 요구하는 값싸면서도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를 보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大學, 研究機關에서는 새로이 CAAD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中·小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관심을 갖게되었다. 현재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기관으로는 Charles M. Eastman 교수의 Carnegie-Mellon 대학의 Institute of Physical Planning, William Mitchell, Murray Milne 교수의 UCLA 건축학교, Nicolas Negroponte의 MIT Architecture Machine Group 그리고 Eric Teicholz가 Director로 있는 Harvard의 Computer Graphics and Spatial Analysis Lab 등이 있다. 또한 건축설계회사로는 Chicago의 S. O. M., Ellerbe Architects, Caudill-Rowlett-Scott, Clifford-Douglas-Stewart 등이며 日本의 Nikken Sekkei가 있다.

### II · 4 내일 / Architect

60년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하드웨어 그리고 가격의 문제는 建築外的인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컴퓨터분야에서 이미 해결했다. Alvin Toffler는 “제3의 파도”에서 마이크로컴퓨터의 大量보급, 資料送信技術(Data Communication)의 급속한 개발로 머지않아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집에서 生業을 하게되는 職住一體의 時代가 올것이라 예견하고 있고 장·자크 세르방 슈레베르도 “세계의 도전”에서 거의 같은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기술개발속도를 볼 때

사진1 ) 전산보조 건축설계 시스템의 설계실 / 4명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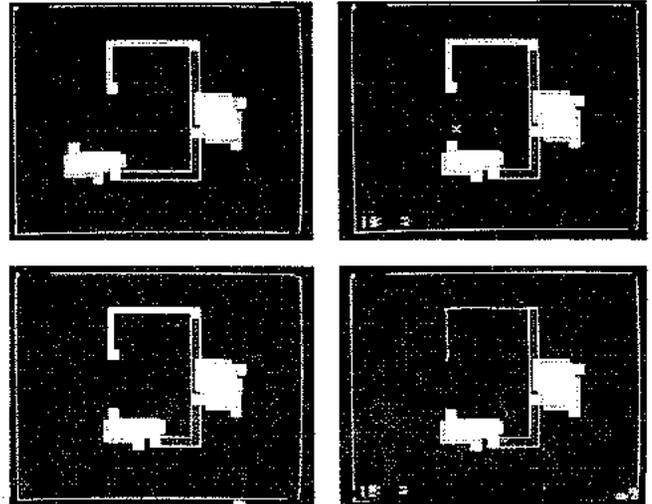


이러한 견해는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주목을 끌고있다. 그러나 건축설계과정이 갖는 固有의 特性은 이른바 機械化에 많은 문제를 갖고있다. CAAD의 내일에 대하여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건축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자자 다른 견해를 갖고있다. 먼저 U. C. Berkeley 건축과의 Vladimir Bazjanac교수는 “建築設計行為란 創造的이고 連續的인 作業이다. 흔히 非創造的이며 勞動이라고 말하는 製圖作業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건축가는 이로부터 해방된다고 한다. 그러나 건축가란 製圖를 하고있는 순간에도 창조적인 여러가지 생각들을 潛在的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CAAD 研究에 대해 그가 오랫동안 쏟은 노력에 대해 회외적으로 말하고 있다.

UCLA의 Murray Milne교수 역시 초기에는 Christopher Alexander의 “Synthesis of Form”이론에 심취했으나, “CAAD가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이에 관련되는 연구 노력이 컴퓨터메이커가 아니라 건축가들의 많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MIT의 Nicolas Negroponte교수 역시 “비관적인 측면도 낙관적인 측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짓고 있다.

和蘭의 Delft공대와 독일 Hambourg두 대학의 건축과 교수이며 건축가인 Jos Weber는 “컴퓨터가 스스로 創作行為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컴퓨터에게 필요한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느라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UCLA에서 CAAD의 가능성, 실용성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William Mitchell교수는 “앞으로는 제도판대실에 건축가는 도형처리장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며 설계도면은 카세트테이프로 대치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분야를 위해서 設計시스템設計者 (Designer of Design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ata Base Manager) 등 새로운 專門職種이 생기게 되며 이미 構造, 設備, 見積, 示方書作成 업무가 自動化되었으며 建築設計란 개념자체가 다소 변경될 것이다”고 CAAD의 앞날을 보고있다. Carnegie-Mellon 대학의 Charles Eastman교수 역시 같은 견해이다. 많은 연구

사진2 ) 영상도출, 처리장치를 이용한 설계과정



가, 건축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技術的인 측면, 製圖, 見積, 示方書作成등은 이미 기계화되었거나 또는 쉽게 개선 가능하나 基本計劃, 動線計劃, 空間設計 等の 문제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集約되고 있다.

### III. Epilogue

“Computer Graphics : Yesterday's Toy becomes Today's Tool”

— Art Paradis —

하드웨어의 저렴화, 基本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미국의 경우 회사규모가 20명 정도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CAAD 시스템을 도입해도 경제적으로 타당한 수준까지 되었다. 국내에서도 연구진, 건축가들의 약 2년간의 노력끝에 CAAD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물론 필요한 하드웨어는 도입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국내 실무자,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초기작업이어서 시행착오도 많고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초보적인 Computer-Aided-Drafting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다음단계로 발전하기위한 훌륭한 발판을 국내에 갖게되었다. 또한 다른 몇몇 설계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 소프트웨어는 도입이 가능하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應用소프트웨어는 국내 실정, 회사 특유의 상황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CAAD를 의면해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싫든좋든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때에 대비하여 이 분야에도 관심을 돌려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각 대학 건축학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CAAD란 어디까지나 컴퓨터는 보조수단이라는 AIDED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컴퓨터는 일개의 수단으로 건축가의 창작행위를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 “都市 聯立住宅 外部空間 構成의 問題點”

鄭 求 殷

(三峯綜合建築 代表)

## 第1章 序 論

聯立住宅은 産業化에 따른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하여 高密度化의 必要에 따라 發達된 住居形式으로서 單獨住宅이 가지고 있는 長點과 아파트가 안고 있는 모순점을 보완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都市 聯立住宅 建設은 量的 確保와 機能充足에 급급한 막연한 大衆概念과 順應主義에 젖어 진정한 人間的 要求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올바른 聯立住宅의 概念을 忘却한채 商業性과 法的規制에만 置重 되어 똑같은 형태의 反復과 剛一的인 配置의 過密한 密接으로 都市 住居環境을 汚染시키고 近隣生活을 低下시키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과 결함들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바로 잡아져야만 하며, 과거의 아파트에서 빚어졌던 初期의 數 많은 試行錯誤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이러한 都市住居 環境을 決定하는 外部空間 構成의 모순들을 종합적으로 整理하고, 外部空間 構成方法을 研究하고, 기존 聯立住宅의 外部空間 構成의 問題점을 分析하여 實질된 聯立住宅의 올바른 認識을 되찾아 새로운 形態의 都市住居로서의 可能性을 모색 하고자 한다.

## 第2章 기존 聯立住宅 外部空間의 實態分析

### 1) 實態調査

① 調査地域: 서울市内 全 地域에 걸친 主要 聯立住宅.

② 調査方法: 가. 地塊規模別 선택.

나. 比較적 계획이 잘 되었다는 評을 받은 地域을 中心으로 계획상 問題가 있는 地域도 다소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聯立住宅은 大部分 소규모로 아주 불량한 狀態에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다. 現地 답사를 通하여.

③ 調査時期:

第1次 調査: 1981년 3월20일~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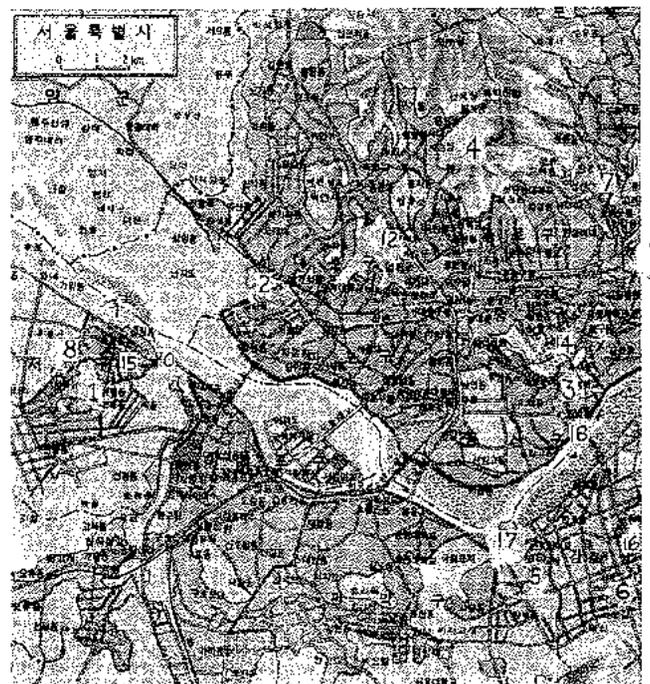
第2次 調査: 1981년 4월20~4월25일

④ 調査內容:

서울市内 分散 建立된 聯立住宅地는 不動產 投機者들이나 個人所有의 차투리 땅을 活用하기 위한 目標으

로 개인이나 집장사에 의한 소규모의 建設이 大部分이며, 配置形式도 南向 취향과 法的規制에 따른 最少幅의 隣棟 間隔에 맞춘 순수 一字形 平行配置에다 施設水準도 형편 없는 것이었다.

이는 入住者들의 취향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지나친 商業性에 맞추어 最大의 利益을 얻기 위한 最少의 經費로 단지 집의 形態만 갖추었다고 보는 편이 솔직한 表現일 것이다. 입주자들 또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 그 實現의 첫 단계로서 적은 資本으로 내집을 갖자는 욕심 때문에 주위 생활환경이나 配置方法 등에는 무관심하며 施設環境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단독주택의 꿈을 키워가는 발판으로 聯立住宅을 선택하고 있는 관계로 聯立住宅의 水準은 向上되기 어려운 實情에 있다. 여기 調査對象에 포함된 聯立住宅들은 比較적 계획이나 施工이 잘 되었다고 評을 받고 있는 地域으로 公共機關에서 建立한 聯立住宅을 中心으로,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에 의한 聯立住宅과 外國人을 爲해 建立한 聯立住宅, 그리고 個人이 소규모로 建設한 聯立住宅을 多少 포함시켜 外部空間에 나타난 實態를 比較하여 調査分析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표 1>

범 예 : ○양호, □보통, ×불량.

연립주택 조사지역명	단지규모 (층 수)	연립형식	배치방법	집합형식	접지유무	주호주위 보호공간	주호주위 행위공간	보도와차도 분리유무	주차시설	공유 공간
1 화곡동 시범연립	大 2층	Chain형 선상연립	平行배치형 Cluster배치	연속형	접지형 준접지형	○	○	분리	○	○
2 성산동 연립주택	大 2층	규칙적 격자연립	平行배치	독립형식	준접지형	□	×	혼합	×	×
3 한남동 일반연립	中 2층	불규칙 Chain형	Cluster배치	연속형	접지형 준접지형	□	○	분리	○	○
4 평창동 경	中 2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과직각혼합	적층형	준접지형	○	□	혼합	□	□
5 서초동 삼풍연립	大 3층	경사지이용 요철형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비접지	○	○	분리	○	○
6 서초동 Royal	中 3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비접지	□	□	혼합	□	□
7 길음동 연	中 3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비접지	×	×	혼합	×	×
8 등촌동 GMS(외인)	小 2층	경사지이용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독립형식	접지형	○	□	분리	□	×
9 목부일연립	中 2층	불규칙 Chain형	Chain형배치	연속형	접지형 준접지형	□	○	혼합	□	○
10 연철동 덕수연립	小 3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비접지	×	×	혼합	×	×
11 미아리 경사연립	中 2층	경사지이용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독립형식	접지형	□	×	계단분리	×	×
12 연천 재개발	大 2층	경사지이용 순수—字 선상연립	분산平行배치	적층형	준접지형	□	×	경사지분리	×	×
13 미아리 재개발	大 3층	경사지이용 순수—字 선상연립	분산平行배치	적층형	비접지	□	×	혼합	×	×
14 한남동 서민연립	中 2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준접지형	×	×	혼합	×	×
15 화곡동 현대연립	小 2층	경사지이용 순수—字 선상연립	분산平行배치	적층형	준접지형	×	×	혼합	×	×
16 서초동 일석주택	中 2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적층형	준접지형	×	×	혼합	×	×
17 서초동 RCH(외인)	大 1층	순수—字 선상연립	平行배치	독립형	접지형	○	○	분리	○	□
18 한남동 미8군(외인)	大 4층	Walk-up Apt	Cluster배치	적층형	비접지형	○	○	분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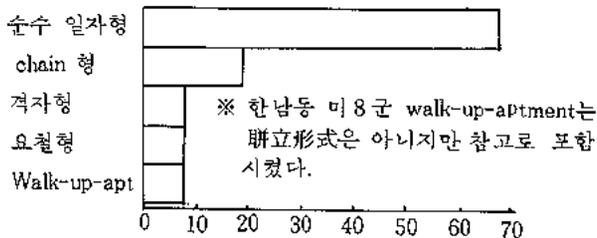
2) 調査分析과 問題點

① 調査內容 分類

㉞ 聯立形式에 의한 分類

가. 연립형식에 의한 비율.

연립형식	순수일자형	chain형	격자형	요철형	walk-up-apt	계
대상연립수	12	3	1	1	1	10
%	66.7	16.7	5.5	5.5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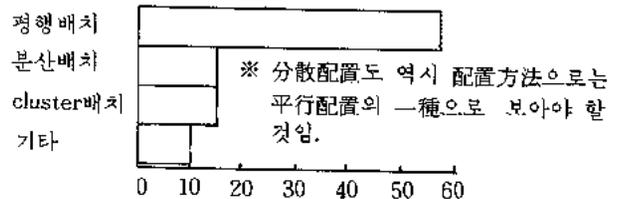


<표 2> 연립형식에 의한 分類

㉟ 配置方法에 의한 分類

나. 배치방법에 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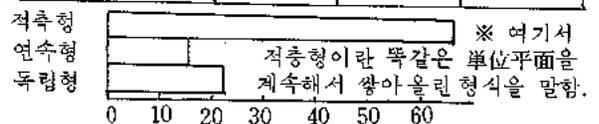
배치방법	평행배치	분산배치	cluster배치	기타	계
대상연립수	10	3	3	2	18
%	55.6	16.7	16.7	11	100



<표 3> 배치방법에 의한 分類

㊱ 集合形式에 의한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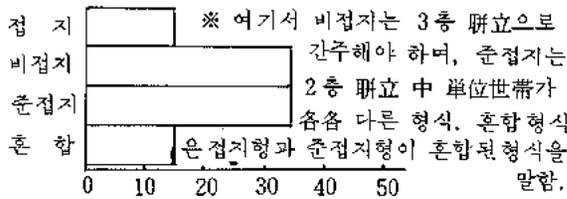
집합형식	적층형	연속형	독립형	계
대상연립수	11	3	4	18
%	16.1	16.7	22.2	100



<표 4> 집합형식에 의한 分類

㉔ 接地 有無에 의한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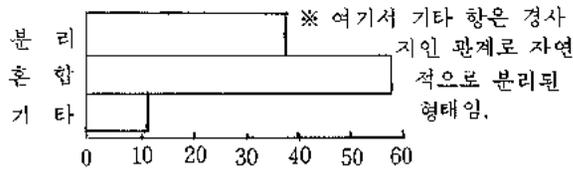
접지유무	접지	비접지	준접지	혼합	계
대상연립수	3	6	6	3	18
%	16.7	33.3	33.3	16.7	100



(표 5) 접지유무에 의한 分類

㉕ 歩道와 車道の 관계에 의한 分類

보도와 차도의 관계	분리	혼합	기타	계
대상연립수	6	10	2	18
%	33.3	55.6	11.1	100



(표 6) 歩道와 車道の 관계에 의한 分類

3) 調査結果 問題點

① 大部分의 配置形式은 南向 취향에 의한 순수 一字 形式으로 平行配置와 混合분산配置를 取하므로서 空間의 性格이 剛一的이거나 무질서하고, 지나친 商業性으로 法的 規制에만 맞추어 配置計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隣棟간격이 협소한 實情이다.

② 外部空間의 領域形成이 불확실한 관계로 生活意識을 基本으로한 空間感覺 또는 空間意識이 상실되어 있다.

③ 都市內 大部分의 聯立住宅은 再開發事業에 의한 것이거나, 小規模 住宅建設業者들에 의한 「充填(infill)」 開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全体的인 環境을 고려한 계획성이 부족하며 경제성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不良하여 住戶에 애착감이 없어지고 프라이버시, 眺望, 騒音等 住居環境이 좋지 못한 狀態에 있다.

④ 單一平面의 積층으로 因한 層高와 모양이 똑같이 住居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建築規法的 改正以後 3층 聯立住宅이 서서히 都市에 등장하고 있으나, 그 形式이 아파트의 축소판으로 聯立住宅의 特性은 사라지고 있다.

⑤ 住居地內에 歩道와 車道가 分離되어있지 않아 차량이 住居地內를 占有하여 공유정원이 침식되고 近隣交流가 일어날 수 있는 「行為空間」과 「保護空間」이 상실되었다.

第3章 解決方法의 모색

1) 隣棟간격과 配置計劃

聯立住宅 団地가 매력적이지 못한 큰 理由中의 하나는 建물이 南向 취향에 의한 平行配置에다가 철저한 商業性으로 인한 法規에 맞춘 隣棟간격으로 空間의 폐쇄감뿐 아니라 Privacy, 채광, 通風, 소음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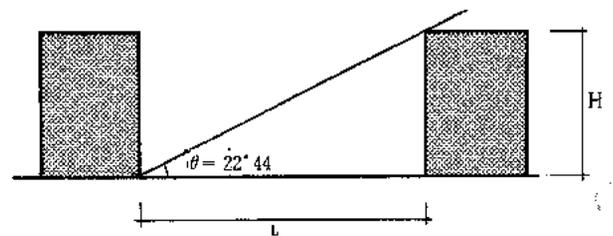
본 調査對象에서 나타난 몇몇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大部分의 新興 聯立住宅들은 거의가 이러한 實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現行 設計基準에 隣棟간격은 앞 건물 높이의 1.2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다음 표: 7 참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규정이지 장려할만한 規定은 되지 못한다.

그런데 實情은 団地마다 철저하게 이 隣棟간격에 맞추어 配置計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視界의 開放性뿐 아니라 privacy 및 多樣한 外部空間 構成을 위하여 法規 규제를 시정할 必要性이 要求된다.

隣棟간격 決定에 관계되는 要素로서 住棟 前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㉑ 日照, ㉒ 眺望 및 분위기, ㉓ 프라이버시, ㉔ 접근로(Access), ㉕ Set back에 따른여유 ㉖ 테라스에 따른 여유 ㉗ 녹지 ㉘ 소음 ㉙ 燃燒의 순서로 比重을 차지하게 되며 住棟 좌우로는 차도나 (인도×2)의 폭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영향要素들 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要素를 定하면 나머지 영향要素들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日照가 가장 큰 영향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注意해야 할 點은 低層의 聯立住宅의 경우에는 privacy문제가 日照문제보다 더 큰 영향要素로 등장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地方에서(위도: 北位 37°34')의 冬至에 午前 10時부터 2時까지 4시간 동안에 太陽光線을 얻기 위한 隣棟간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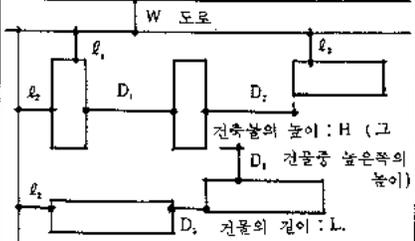


$$L = \epsilon H \quad \epsilon = \frac{\cos A}{\tan H} = \frac{\cos 150^\circ 11'}{\tan 22^\circ 44'} = 2.042 \quad \therefore L = 2.042H$$

(그림 1) 서울地方의 冬至 4時間 基準 인동간격

따라서 隣棟간격은 前面 建物높이의 약 2.042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의 數値는 日照條件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리이며 이것을 低層의 聯立住宅에 적용하여 보면 一般적으로 2층 聯立일 경우, 처마높이는 보통 6.6m 정도이므로 인동간격은 15m로 나타난다. 그러나 現行法規 규정으로 보면 隣棟간격은  $L \geq 1.25$ 배이므로  $6.6m \times 1.25 = 8.25m$ 가 되고 여기에다 양측 住棟의 처마길이 1.

(표 7) 住宅配置時의 隣棟간격 現行 關係法規

항목	설치기준	기타 관계법령	항목	설치기준	기타 관계법령
1. 인동간격	 <p>1) <math>D_{1,2} \geq H &lt; \text{서울시조례 } D \geq 1.25H &gt;</math>                  2) <math>D_3 \geq 6m</math> (<math>H &gt; 2</math>층)  <math>D_3 \geq 4m</math> (<math>H &lt; 2</math>층)                  2.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 3조.                  1) <math>4D_{1,2} \geq L \leq 120m</math>                  2) <math>\frac{1}{5}H \leq D_3 \leq 6m</math></p>		2. 도로가 있는 경우. 1) 건축법 41조 $l_1, l_2 \geq \frac{2}{3}H - W$ 2) 건축법 시행령 제 167조. (1) 정북방향, 기타 방향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 $l_1 = \frac{1}{2}H - W$ ( $H > 8m$ 인 경우) $l_1 = \frac{1}{4}H - W$ ( $H \leq 8m$ 인 경우) (서울시조례 0.625H) (2) 정북이외의 방향의 개구부가 없는 방향. $l_1 \geq \frac{1}{2}H - 6 - W$ (서울시조례 0.625H) 3) 건축법 시행령 168조의 2 (1) $l_1, l_2 \geq \frac{1}{2}H \geq 6m$ (공동주택, $W > 15m$ 일 때) (2) $n, m \leq \frac{P}{1000} + n, m \leq D \leq 20m$ P: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의 각 건축물의 연면적. l: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4)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l_1, l_2 \geq 2m$ ( $W < 15m$ 일 때)		
2. 대지경계선에서의 거리라.	1. 도로가 없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167조. 1) 정북방향 기타방향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 $l_2 \geq \frac{1}{2}H$ ( $H > 8m$ 인 경우) $l_2 \geq \frac{1}{4}H$ ( $H < 8m$ 인 경우) (서울시조례 $l_2 \geq 0.625H$ ) 2) 정북이외의 방향에서 개구부가 없는 방향. $l_3 \geq \frac{1}{2}H - 6$ (서울시조례 $l_3 \geq 0.625H$ )	건축법 41조 (대지안의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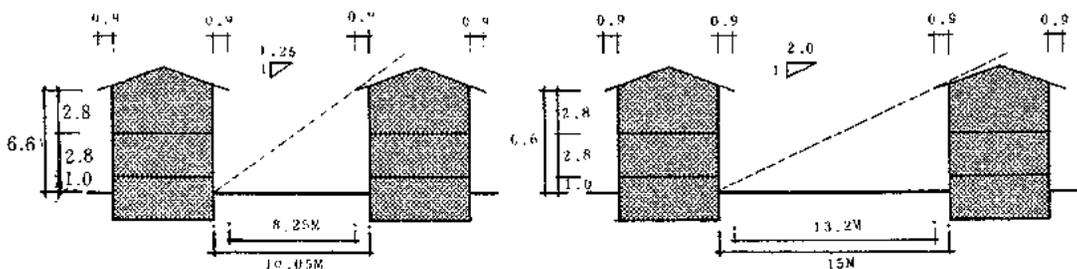
註) “國民住宅의 적장규모와 부대복지 시설기준 연구”, 건설부 1976. 12. 30 P. 106

8m를 포함시키더라도 隣棟간격은 10.05m밖에는 확보되지 않으며 이것을 프라이버시 保護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굴의 表情을 일 수 있는 범위 12m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리이므로 대단한 모순으로 드러난다.

영국의 University of Strathclyde 研究에 의하면 최소 隣棟象面距離 (Minimum Distance Between Windows) 는 18m로 定한바, 그 크기는 車道幅 7.2m, 步行路 1.8m 그리고 3.6m의 정원길이에 의하여  $7.2 + (1.8 \times 2) + (3.6 \times 2) = 18m$ 가 되며, 보통 70 Feet (21m) 이상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土地利用의 實情을 감안할 때, 당장은 科學

的으로 바람직한 기준을 適用 規制할 수 없는 처지일지도 모르나 住居團地의 健全하고 基本的인 生活要件 中에서도 가장 필수적 要件인 日照문제는, 聯立住居 形式이 都市民의 居住形式으로 계속 開發되어질 전망과 建物の 利用수명이 거의 無限定이라는 長期的인 안목에서 생각한다면 規制의 내용을 시정할 必要가 健全한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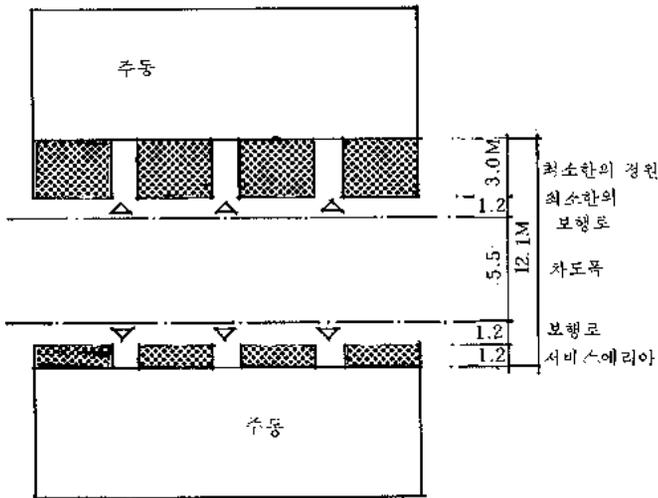
低層 聯立住宅의 경우 인동간격은 日照條件에 의한 規制보다는 privacy 保護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平行配置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안으로 最小隣棟거리 12.1m를 확보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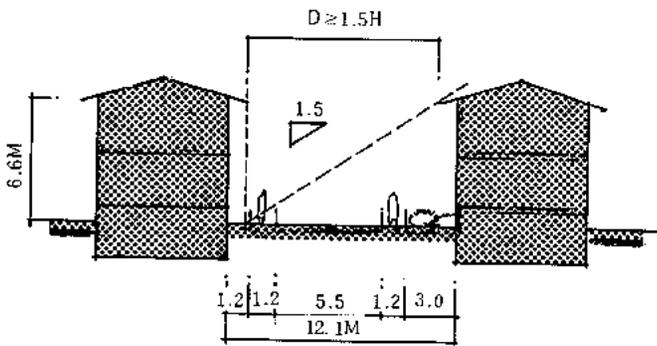
① 現行法規 규정에 의한 인동거리

② 서울지방에서 冬至에 4時間 日照를 얻기위한 인동거리.

(그림 2) 인동간격 비교도



① 2층 연립주택 平行配置일 경우 최소 인동거리 12.1m



② 최소인동거리 12.1m를 확보할 경우 인동거리 규정은  $D \geq 1.5H$ 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림 3) 최소한의 인동거리

※ 2층 聯立住宅을 기준으로 하고 進入方向이 한 세 대는 北쪽에서 進入한다는 가정下에서 알의 그림 (3)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現行 隣棟간격은 最小  $D \geq 1.5H$ 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동간격의 문제는, 향에 따른 주동배치 방향에 따라 變化될 수 있는 관계로 日照의 方位에 따른 開放面과의 軸方向을 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東西軸 주동의 住宅의 開放面은 南과 北으로 面하고 南北軸 주동의 경우는 東과 西로 面하게 된다. Zig-zag型의 住棟形態를 채택하면 住棟全體의 軸方向과 開放面 方位와의 關係를 상당한 정도로까지 조정할 수가 있다. 「南向으로 햇빛이 잘 든다」고 하는 것이 좋은 住宅의 條件이라고 한다면 東西軸의 住棟이 이 條件에 가장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pm 30^\circ$  정도까지의 方位의 偏差는 日常生活上 眞南向과 그리 큰 變化가 없으므로 이 범위의 方位의 편차에 對한 住棟을 대체로 東西軸 住棟이라 부를 수 있다.

南北軸을 포함해서 住宅의 受照面의 方位가  $45^\circ$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開口部에 日照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必要하며 住宅內의 平面計測도 研究가 必要하다. 南北軸으로 住棟을 配置할 경우 긴 走道를 선사하거나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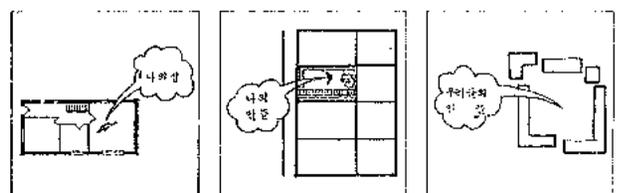
은 景觀을 열어 줌으로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는 그 部分의 층수를 높여 南向으로 향하는 開口部를 利用할 수 있는 平面計測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은 配置計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聯立住宅의 配置計測에서는 單位住居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하며 平行配置로 인한 單調로움을 피해야 하는 등, 獨立住居나 아파트 配置이상으로 高度의 테크닉이 뒤따라야 하며 그 配置形式도 多樣하다. 이러한 配置形式들은 配置要素와 결부시켜 이상적인 配置計測方法을 table로 만들어 비교하므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配置要素들을 100으로 했을 때, 日照, 通風, 採光, 室內眺望 등의 自然的 要素들을 40으로, 親和力(identity), Privacy, Enclosure, Open Space 보도효과, 시간변화, 경계성 등의 要素들을 60으로한 評點은 入住者의 계층, 建設工事費, 주위환경과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變化되겠으나 이런것들을 고려치 않고 住宅配置와 客觀的 條件下에서 理想的인 方向을 규정한 평점은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近隣의 관계, 프라이버시, 시각적 變化 등, 보다 인간적인 次元에 입각한 聯立住宅의 配置方法에서 클러스타형에 의한 엔크로저형이나 클디자型的 配置方法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 2) 外部空間의 領域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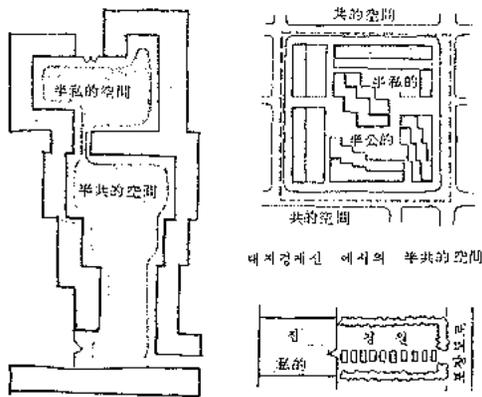
기존 聯立住宅이 機能的으로 效率있게 만들어져 있는 反面, 單調무고 불품없으며 人間生活이나 人間心理의 복잡성에 알맞지 않으며,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批判을 자주 듣는다. 住宅地는 住宅이나 나른 構成要素가 機械的으로 集束된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 相互關係가 作用하고 있으며 그것을 忘却한 狀態에서 計測된 住宅地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 重大한 결함을 갖고 만다. 住宅地는 한사람의 立場에서 住宅을 中心으로 물의 波紋처럼 퍼져가는 생활空間의 系列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즉 各個人은 privacy를 유지하면서 自己 住戶에 「나의 空間」을 形成하게 되며, 이 私的 領域(Private Space)은 半公的 또는 半私的(Semi Public or Semi Private) 이라는 媒介空間을 通해서 점차 街路나 동네, 地域 등, 公的 領域(Public Space)으로 발전된다. (그림 4)



(그림 4) 領域形成 과정

이 各各의 領域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엄격한 限界가 存在하게 되고, 이 空間의 단계적인성격을 분명히

하므로써 個人의 領域形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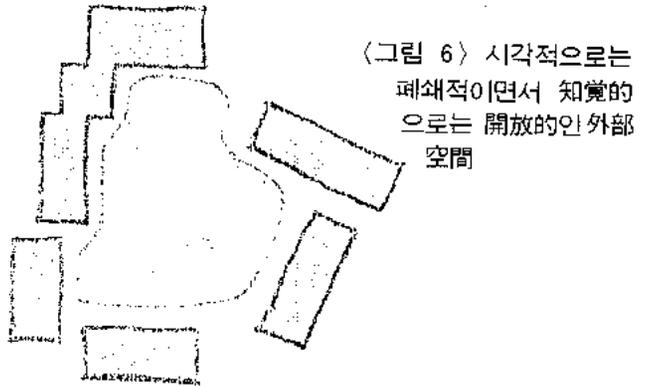
〈그림 5〉 半私的空間과 半公的空間과의 관계

또한 이들 各各의 領域은 그 自体로 完結해서는 안되며 어떤 空間의 結節點(Node)에서 다른 空間의 結節點으로, 사람의 意識에 있어서 空間의 連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連續性은 양쪽 空間의 結節點이 명확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비로써 意味를 갖게 된다. 모든 空間이 같은 크기, 같은 비율, 같은 detail 들로 똑같이 구분된 空間을 形成한다면 그 空間은 單調롭고 특성이 없는 空間이 될 것이다. 따라서 空間은 그 空間의 性格, 또는 분위기에 따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공간의 크기와 형태, 공간의 質에 變化를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空間形成의 基本原理를 구체적으로 表現하면 enclosure 空間을 만들므로 해서 空間의 流出을 막고,

視覺적으로 폐쇄되고 감겨지면서 知覺적으로 開放되어 트여지도록 建物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므로써, 空間에 一體感을 얻을 수 있다. (그림 6). 또한 이와같은 外部 空間들은 모두 제각기 特性을 갖고 한 곳에라도 똑같은 空間이 되풀이 되지 않게 連續적으로 上位 및 下位 空間에 次하여 方向性을 가지므로 해서 形成된다.

秩序있는 空間構成을 위해서는 空間의 一體感, 連續性, 方向性을 가진 體系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體系」는 抽象的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 生活하고 行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認識이 가능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3) 기존 環境과의 調和

都市内の 聯立住宅 開發은 大部分의 경우 再開發이거나 小規模 住宅建設業者에 의한 「充填(infill)」開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건 새로운 住宅地開發이 기존 특색의 스케일이나 性格과 關連지어져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8〉 聯立住宅의 理想的 配置計劃을 中心으로한 TABLE

配置形式	配置要素 評點	日 照	通 風	採 光	室內 照望	親和力 identity	enc- los- ure	住居 群의 Pri- vacy	Open Spa- ce	步道 의 効果	視覺 의 效果	經濟性 (建立費)	評點	備 考 (순위)
		20	10	5	5	5	10	10	10	5	10	10	100	
平行配置	南 西 平行配置	20	10	5	3	3	5	5	5	3	3	8	70	8
	東 西 型 平行配置	15	8	4	3	3	5	5	4	3	3	8	61	10
Clust- ure 配 置	enclosure	17	7	4	5	5	10	10	9	5	10	6	88	2
	Cul-de-Sac	15	8	4	5	5	8	10	9	5	7	6	83	3
	enclosure cul- de-sac	17	8	4	5	5	10	10	10	5	0	6	90	1
Loop 配 置	Loop	15	7	4	4	4	5	9	5	5	7	7	72	7
	Loop with Garden	15	7	4	5	5	7	9	10	5	7	7	81	4
	Loop (With parking & Garden)	15	7	4	5	4	7	8	8	5	7	7	77	5
	Loop (Withonly motor court)	15	7	4	4	3	6	8	7	5	7	7	73	6
傾斜地 配 置	南 西 側	20	10	5	5	3	4	6	4	3	4	6	73	6
	東 西 側	15	7	4	5	3	4	6	4	3	4	6	64	9
	北 西 側	5	5	2	5	3	4	6	4	3	4	6	50	11

어떤 주어진 敷地內에 새로운 建築物을 計劃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주어진 敷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속박력과 그 敷地가 要求하는 敷地密度 및 주위 建物과의 調和인 것이다. 傾斜된 형태의 敷地에서는 敷地의 억양에 맞추어 各各의 次元에 알맞는 開發을 通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計劃家나 設計者가 直面하는 까다로운 문제는 새로운 住宅團地를 주위의 都市環境의 짜임새 속에 어떻게 삽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都市의 質을 評價할 경우, 여러가지 要件과 構成要素들이 기준들로 거론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環境”이라는 集約된 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人工的 環境도 人間의 健康, 快適 및 生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明白하다. 그렇지만 고객은 最低水準의 위생, 혹은 構造上의 安全度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무관심할 때가 흔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公중위생에 대한 책임, 즉 密度, 日照, 採光, 通風, 眺望, 소음 방지, 프라이버시, 交通事故防止 등과 같은 문제는 計劃家나 設計者가 고려해야 할 當面 課題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주 무시되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美國의 住居團地 住民의 行態調査 資料를 통해 나타난 住居團地 設計時 反映시킬 몇가지 사항을 예를 들면,

첫째, 住居密度(Density) 自体는 住居者의 만족에 큰 重要性을 갖지 않고 있으며 全体的인 規模, Open Space와의 관계, 多樣性, 프라이버시의 保護등과 같은 要素와 結付된 住居密度가 더 重要性을 갖고 있다. 즉 綠地空間을 내다볼 수 있을 때 居住者들은 過密하다는 느낌을 덜 갖게 되고 建物의 配置나 建物의 前面, 오픈 스페이스의 多樣性이 있을 때, 훨씬 過密感이 적어지고 만족감을 더 갖게 한다.

둘째, 全体로서의 住宅配置와 造景이 個個 住宅의 外模보다 더 住民들에게 관심과 重要性을 갖게 한다. 이는 즉 予算이나 設計의 노력이 造景과 團地設計에 많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셋째, 大部分의 居住者들은 조용함과 매력성이 가장 바람직한 住居環境의 特性으로 느끼고 있다. 住居環境에서 소음을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要素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매력성을 住居環境에 만족을 주는 要素로 보고 있다. 매력성을 주는 要素로는 樹木이나 花草가 풍부한 것과 展望이 좋든가 配置가 잘 되어 있거나 管理가 잘 되어 있는



(사진. 1.) 공간에 성격을 부여한다.

것을 들고 있다.

네째, 어린이들은 指定된 어린이 놀이터만이 아니고 住居團地內의 어느 곳에서나 놀이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다양성 있는 환경에서 놀려고 하며 自然世界와 접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團地設計와 어린이 놀이터 설계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상의 行態調査 資料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소망이다. 따라서 合理的인 土地이용 계획이나 地域計劃을 수립하기 위해 土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特性들을 土台로 開發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 4) 變化있는 外部空間

지나치게 單調로운 住居團地가 非人間的이라고 하는 批判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一列로 나란히 平行配置된 團地는 확실히 實用的이고 工學的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인간적인 住居라고는 볼 수 없다. 담장과 같이 위나 옆으로 겹쳐진 집들이 십지어는 외부공간마저 똑같은 것이 반복되므로 지나친 劃一性과 單調性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루함과 鬱증마저 불러일으키게 된다. 건물마다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自己집에 愛着感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變化있는 多樣한 外部空間」을 만들기 위해 크게 나누어 두가지 方法이 있다. 하나는 空間의 性格, 機能을 가능한 한 理解가 가는 形態로 表現하는 일, 다른 하나는 테크닉的인 要素가 強한 하나 하나의 屋外空間의 detail (住棟의 디자인을 포함해서)을 變化시키는 方法이 있다.

##### ① 空間의 性格을 形態로 表現한다.

가) 各 구름의 性格을 바꾼다.

예를들면 그 구름에 特性이 될만한 어떤 物體를 심볼(Symbol)로 하여 그 空間의 性格을 浮上시키는 方法, 그것은 <사진 1>과 같이 “天下大將軍”이라도 좋고, 敎會의 鐘塔이라도 좋다. 혹은 그 구름內에 심는 樹種을 바꾼다든가 하는 등, 表現의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다.

나) 自然地形을 살린다.

그 土地가 가지고 있는 可能性(Potential)을 살려서 變化를 주는 方法으로 경사진 形態의 부지에서는 부지의 억양에 맞추어 各各의 次元에 알맞는 空間을 부여 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空間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隣接地의 性格, 스케일, 프로포션에 따라 새로운 住宅地의 形態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다) 空間의 機能, 質을 表現한다.



(사진. 2.) 공간에 기능을 부여한다.

공간에 機能分化를 준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걷는 공간, 길에 서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공간,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때로는 祝祭를 위한 공간등 그 공간에 機能을 부여하므로써 공간에 變化를 줄 수 있다. <사진 2>

이와같은 여러가지 機能에 対応하는 공간을 어떤 시스템에 올려놓고 設計를 進行해 나가는 方法이다. 이와 같은 空間表現을 네가티브 空間, 포지티브 空間, 혹은 空間의 表裏(앞과 뒤), 陰과 陽이라 부르기도 한다. 단순한 平行配置에서는 이것을 表現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空間은 enclosed(포위型)등의 配置가 提唱된다.

② 屋外空間의 디테일의 變化

가) 전망(Vista)을 變化시킨다.

단순한 平行配置라도 道路나 步行者路를 사선으로 變化시킴으로써, 또는 建物들 自体를 사선으로 配置하므로써 전망을 變化시킬 수 있다. 사람이 걷는 動作에서 視線의 位置가 變하고 建物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 <사진 3>

나) 스카이·라인(Sky line)에 變化를 만든다.

이는 단지 全体가 高層과 中層과 低層으로 混合되었을 경우, 높이의 高低差를 줌으로써 空間에 스카이라인의 變化를 주는 方法으로 많이 利用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聯立住宅 구릉일 경우에도 住宅 하나 하나를 그 부지 尺양에 따라(사진과 같이) Folding Screen(병풍)을 만든다든지, 各층의 住棟을 Set back시킨다든지 하는 方法으로 變化를 줄 수 있다. <사진 4> <사진 5> <사진 6>

다) 住棟의 모양에 變化를 준다.

多様하고 變化가 풍부한 空間을 構成하는 가장 基本的인 方法의 하나가 住棟의 디자인에 變化를 加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기존 聯立住宅의 大部分의 住棟 design은 어디서 연유한 形態인지 도무지 理解가 가지 않는 집장사式 外觀(이것은 聯立住宅 뿐 아니라 우리나라 住宅 外觀의 大部分을 저질로 만드는 원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용적율이나 건폐율, 인동간격 등, 많은 空間規制 가운데서 最大의 床面積을 확보하기 위한 經常條件과 Cost의 節約에 그 原因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안에서도 시정되고 變化를 줄 수 있는 方法이 있는데도 利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7>

라) 住棟 주위에 變化를 준다.

住棟 주위에 變化를 준다는 것도 住棟에 變化를 준다는 意味로는 同一하나 住棟 그 自体에는 특별히 變化된 디자인을 行하지 않더라도 住棟 주위에 地面의 高低差 등



<사진 3> 보행자路를 變化시킴으로써 視線의 變化를 얻을 수 있다.

의 變化가 있으면 空間感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地形에 대한 엄밀한 檢討가 따라야 한다. 또한 住棟주위의 空間 自体에 變化를 줌으로써 空間에 對比를 얻을 수 있다. 즉 길게 連續된 住棟과 짧게 連續된 住棟이 만드는 空間, 커다란 Open Space와 좁은 通路가 이루는 空間, 큰 길과 駐車空間, 步行者 空間과 놀이 空間등 여러가지 모양이나 空間의 對比로 變化가 풍부한 空間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사진 8>.

5) 地面層과 지붕속 空間 活用

集合住宅의 性質이란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의 생활에 알맞게 내 집을 지어주고, 단지 利用만 할 뿐이다. 여기에 商業性과 經濟性은 커다란 位置를 차지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都市환경을 오염시켜가고 있다. 住宅事業에서 흔히 보면서도 낭각되곤 했던 점은, 住宅의 建設은 個人的 立場에서나 都市的 立場에서나 人間을 위한 것이지 住宅建設 그 自体에 目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요즘층의 連립주택들은 人間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法規에 人間을 맞추도록 애를 쓰는 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입주자의 經濟的 사정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불량인줄 알면서도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 目標은 여기에 어떤 代案을 住宅建設業者에게 提示해 주어야 할 使命이 있는 것이다. 建築法規는 人間환경을 保護하기 위해 修正되어야 하고 建設行政의 재빠른 速斷이 不良 環境을 造成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代案에 보탬이 될 方法을 모색해 본다.

① 地面층 이란 지하층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1층이라고 하기도 어설픈 그런 층으로 건축법상으로는 地面으로 1/2밖에는 묻혀있지 않는 관계로 1층이라고 명칭되는 그런 층이다(그림 7).



<그림 7> 지면층 活用 例

이런 경우는 경사면 부지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사면일 경우, 가상 地表面을 設定하여 地表面上 2/3가 地下에 묻혀던 지하층으로, 그 이상이 노출될 경우 1



<사진 4> 반대로 건물을 變化시킴으로써 視線의 變化를 얻을 수 있다.

층으로 간주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지하층일 경우 지하층의 規制를 받게 되기 때문에 採光이나 通風上 아무런 지장이 없어도 居室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 居室사용의 위법사례가 提示되고 경제적으로나 土地 利用面에서나 낭비되어 왔다. 연립주택의 경우 Privacy의 확보라는 점에서 地面보다 1층 level을 1m정도는 들어서 계획을 한다. 이 경우 동결선 90cm로 기초를 내릴 경우 1m90cm라는 기초가 되게 되며 경제적으로 모순된 기초가 되고 만다. 이런 경우 건축업자들은 지하층을 불법으로 設置하여 行政當局과 눈가리식 싸움을 벌이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改善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土地 利用面에서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地面層에 대한 활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외국의 住居形式에서 많은 实例들이 이와같은 地面層을 활용한 계획들이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집없는 서민의 무주택 수요가 하나라도 더 저렴한 價格에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② 지붕속 空間의 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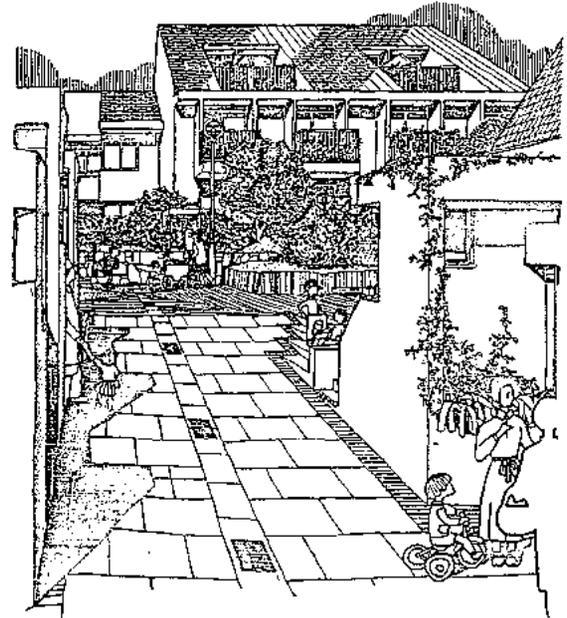
옛날부터 지붕은 집의 상징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주택에서 대청마루나 다락방에서 지붕속 공간을 最大限 活用하였다. 現代에 와서도 設備계통과 構造的인 安全性에 지장이 없는 限, 조적조인 聯立住宅에서 반자들을 설치하지 않고 스타프 자체를 천정면으로 利用하는 方法 등으로, 기존 層高를 낮추어, 1층과 2층에서 얻어진 層高를 利用하여 南測과 北測의 처마높이를 달리하면서 적당한 傾斜를 이룬다면 충분한 다락방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경사진 천정은 우리에게 공간을 보다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지붕재료를 특징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건물의 外觀도 아름답게 보인다.

최근 불란서식이라 불리우는 일부 서민주택 또한 東西軸으로 긴 平面 形態를 利用한 다락방을 活用하기위한 지혜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되어 저지단 지붕의 경사형태가 東西軸으로 대칭적으로 경사지운 方法은 住宅의 外觀을 조잡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주택인 경우, 南北軸으로 平面形態가 길거나 南北軸과 東西軸의 平面 比率이 거의 같은 경우이므로 (1호평면인 경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붕경사면을 南北軸으로 기울일 수 있다.

南北軸으로 지붕을 경사지우는 것의 이점으로는 처마를 길게 이용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콘크리트 처마머플 비반

이로 하지 않아도 되며, 여름철의 차양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우리 先祖들의 지혜를 活用하여 지붕속 空間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므로서 材料의 절약은 물론 住居密度를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그림 8> 지붕속 공간을 활용한 예

6) 質感과 色彩計劃

外部空間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距離(distance)와 質感(Texture) 사이에 相互關係는 중요한 설계요소가 되며, 또한 建築材料가 一定한 거리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지식은 그 거리로부터 제일 잘 어울리는 材料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며, 外部空間의 特質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效果를 가져온다.

空間認識의 한 要素인 단단함의 정도는 건물의 表面이 갖는 質感과 정도(Grain)에 따라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 建物の Style과 규모가 同一한 경우 表面이 매끈하면 운동감을 느낀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가 다르고 表面이 거칠은 경우 空間의 정도(精度)는 낮고 不安感과 긴장감을 느낀다.

色(color)은 매우 多樣하게 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感情作用을 分析하기란 곤란하다. 그러나 현대인은 色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反應을 나타낸다. 또한 어떤 色은 다른 色과 調和됨으로서 單獨으로 있을 때 주는



<사진 5> Folding Screen(병풍)처럼 만든다.



<사진 6> 住棟을 Set back 시킨다.

느낌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주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大部分의 色은 原色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行動感과 두려운 느낌을 주게 되고 여러색이 混合될수록 色의 強度가 낮아질수록 휴식과 安定感을 준다. 청색의 벽은 분위기의 원근을 強하게 하고 멀리 있는것 처럼 보인다. 덥고 強한 色의 面은 더 가깝게 있는것 처럼 보인다. 극적 또는 強한 對比效果로 힘의 強弱을 나타 내기도 하고 중횡의 色線交叉로 Symmetry한 힘의 均衡을 유지한다. 極度の 反復과 連續의인 色彩로 힘의 集中을 弱화시킬 수 있다. 色은 空間의 一體感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有效한 수단이다. 構成된 団地에 있어서 住区와 住区의 차이를 色彩에 의해서 表現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団地와 같이 複數의 住棟으로 構成되는 · 群造形의 色彩計劃에서 一體感을 나타내는 方法으로,

① 色相 : 밤색系統으로 할 것인가, 청색 系統으로 할 것인가.

② 明度 : 全体的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할 것인가, 빛나는 것으로 할 것인가.

③ 建物部分의 페인팅 方法 : 건물과 발코니 全体를 전부 하나로 塗布할 것인가, 혹은 건물 全体는 안쪽을 포함해서 한 색깔로 페인팅하나 발코니나 채양의 안쪽은 다른 색깔로 페인팅한다는 등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色彩에 의한 一體感和 變化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變化를 만들기 위한 統一의 單位가 문제가 된다. 通常的으로 그 單位는 空間構成의 單位에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基調色이 너무 많아지면 一體感이 상실되므로 보통 3~4色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色彩計劃에 있어서도 空間構成에 있어서 landmark 와 똑같은 의미로 액센트(accent)를 시행하는 일은 多樣한 變化를 얻기 위한 手段이다. 예를들면 각 구룡핑마다 變化를 加하지 않으면 單調로와지기 쉬운 경우에는 側壁이나 그밖의 建物の 全部를 인상깊게 하는 基調色으로 統一해 놓고 발코니의 난간이나 앞 部分에 다른 色을 사용하므로서 效果를 얻을 수 있으며, 어느 部分을 強調하고 싶을때, 그 部分에 포인트色을 사용하므로서 強烈한 인상을 얻을 수 있다. 彩도가 높은 色으로 포인트色을 사용하고 色線이 비교적 가까이 닿는 곳, 예를들면 발코니의 간막이 벽등에서는 너무 色相의 明도가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밖에 材料와 色調와의 특질을 잘 理解해서 그 材料의 특질과 色彩計劃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



〈사진 7〉 住戶 하나 하나의 모양에 變化를 준다.

### 7) 歩道·車道の 分離와 公衆空間의 活用

요즈음 계획되어 建設되고 있는 聯立住宅의 大部分이 歩道와 車道の 区分이 없이 混合되어 住居地內는 車道를 위한 concrete인지 歩道를 위한 concrete인지 분간키 어려운 混合狀態로 뒤범벅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原因은 団地가 소규모이고 거기에서 우리 生活 意識構造에는 이사를 대비한 통행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다. 이사를 갈 때는 장농을 들고 다녀야 하며 장농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삼륜차가 자기 집 앞까지는 들어와야 직성이 풀린다. 最小限의 隣棟거리에 맞추어 施工된 建物과 建物 사이에 삼륜차의 通行路마저 생기게 되면 정원은 갈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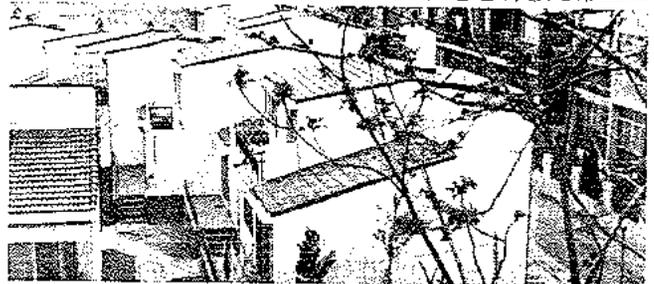
최근 자동차의 保有率이 높아짐에 따라 限定된 面積에 많은 주차가 必要하게 되고 정원으로 사용해야 할 space를 주차 space로 빼앗기고 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주부들이 談笑하고, 家族이 한 포기 나무를 가꾸어야 할 公衆空間의 확보를 위해 歩道와 車道는 分離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最小限 Sevice만을 위한 車道 以外에는 모든 空間을 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전채율이 높은 狀況下에서 建物の 向까지 南向을 찾다보면 公衆空間을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 없는 實情이므로 내집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산다는 協同生活로 意識의 轉換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建設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覺醒이 가장 必要한 時點에 있다.

### 8) 準接地性과 발코니의 活用

최근에 建築法이 改正되어 聯立住宅의 層數가 3층까지 허용되어 都市에 새로운 아파트 縮小版이 登場하기 시작하였다. 모자라는 宅地와 住宅의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都市空間을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 보자는 의도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必要는 發明의 어머니」라는 말에 대해 새삼 의미를 숙고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單獨住宅 形態를 갈구하는 人間의 欲求를 충족시켜 보겠다고 都市化가 提示할 수 있었던 住居形態는 單獨住宅과 아파트의 형태를 組合한 聯立住宅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人間이 自然에 처한 끝없는 갈구와 향수가 原因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시간을 휴과 接하고 싶어하는 것이 人間의 本性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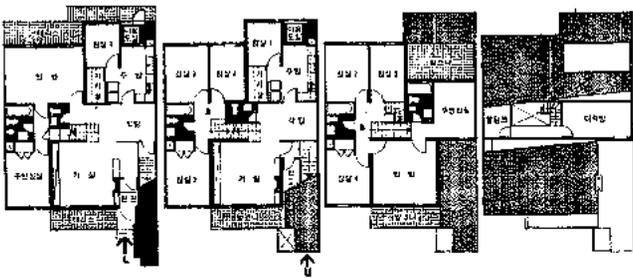
聯立住宅의 特性은 接地性에 있다. 이 接地性의 特性이 cost와 集合壓力에 못이겨 아파트와 같은 非接地形으로



〈사진 8〉 하나의 住戶에 높이의 變化를 준다.

된다면 聯立住宅의 生命은 그만이다.

所見으로는 앞에서 代案으로 내어놓은 半地下층과 지붕속 空間을 포함하여 보면 建築法規上 3층이 되는 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도 이러한 事情을 감안하여 3층을 허용하게끔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되도록이면 聯立住宅의 特性을 살릴 수 있는 接地形이 좋고, 다음으로 는 各住戶의 入口는 共有의 홀을 通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럴 경우 balkon space의 最大限 사용으로 人工정원을 만들어 自然과 가까워질 수 있는 形態의 聯立住宅으로 開發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림 9)



B-TYPE (65.63 평형)

(그림 9) 準接地形과 balconi를 活用한 例

大部分의 기존 聯立住宅의 balconi space는 그 幅이 1.0m 정도의 幅으로 建築法上으로는 面積에서 制限되었다가 分讓面積에는 共有面적으로 삽입되고, 준공 후에는 입주자들이 유리창을 끼워서 창고用途로 사용하는, 遮音效果도 있고 保温效果도 있는 一石三鳥의 效果를 누릴 수 있는 空間이다. 이럴 경우 balconi 空間은 없어지고 各個人이 제멋대로 끼워넣은 창호는 各樣各色으로 外部美觀에 좋지 못한 影響을 주고 있다.

이러한 形態를 調整하는데는 現行法規上에 맹점이 있다. 現行法規上 隣接간격은 처마끝이나 balconi끝에서 계산되며 balconi의 幅이 1.0m 이상일 경우, 그 이상의 部分은 建築面積에 삽입되는 特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住宅의 balconi 모양은 똑같고 그 幅도 1.0m 이상을 넘지않는 어중간한 space가 되고있다. 기왕에 그런 用途로 사용될 바에는 처음부터 계획에 그러한 空間을 염두에 두고 balconi design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balconi는 그 住宅의

얼굴이며 外氣와 직접 面할 수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감시할 수도 있고 이웃집과의 對話도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空間이다.

따라서 balconi는 居室의 前面만이라도 최소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난간은 벽으로 가리우지 말고 철책의 모양을 살려 장식무늬로 하거나 화분대와 칼라가 걸들인 變化있는 모양으로 한다면 특색있는 디자인이 가능하다. 보편적으로 침실밖의 balconi는 길지않게 하고 금속제 스크린을 설치하여 팔레를 널거나 지저분한 물건을 넣어 두는 場所로 活用하고, 居室 앞쪽은 그 space를 넓혀서 人工庭園을 活用하면 더욱 多樣한 外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第4章 結論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聯立住宅에서의 課題는 劃一化된 配置와 무미건조한 生活環境에 對한 改善에 있다. 경제적 條件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망각되었던 아름다운 향수를 찾게 되고, 建築一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住居環境에 對한 잃었던 自我를 찾는 歷史的 回歸의 方向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기능을 초월하여 外部空間形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都市 聯立住宅의 外部空間을 질서있고 變化있는 多樣한 空間으로 만들기 위해서 必要한 要素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多數를 위한 多數의 利益이란 그 性質上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理念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空間질서 創造를 위한 外部空間의 体系的인 構成方法에 對한 研究가 多角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 參 考 文 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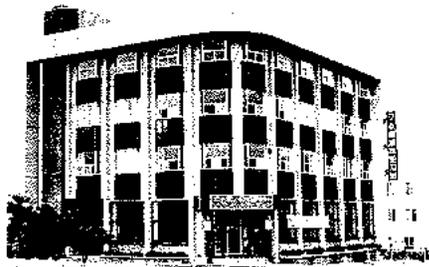
- 1) A. G. L. C Study ; Housing Layout,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Civic Design of the Greater London Council, 1976.
- 2) Hubert Hoffman ; One Family Housing, thames and Hudson, London, 1963.
- 3) Kevin Lynch ; Site Planning, 1979.
- 4) 本城和彦編著 ; 都市住宅地の設計, 理工圖書, 1978.
- 5) 주택공사, 주택단지 설계요강, 1980.

#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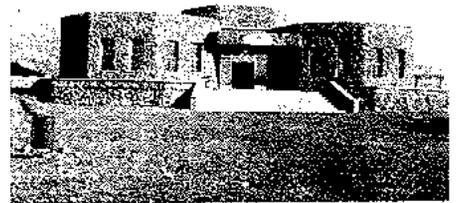
記念館

張錫雄



庁舎

金守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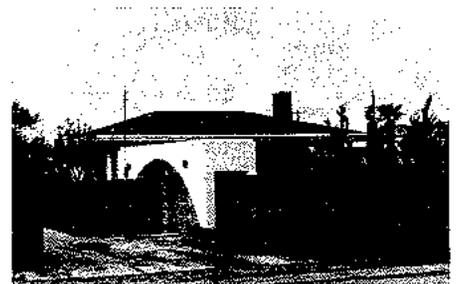
休憩所

朴鎮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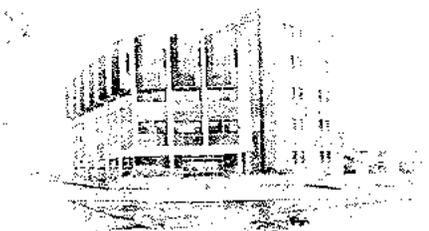
教会

李国男



別墅

金石崙



庁舎

片基奉



病院

金白教

# 총무공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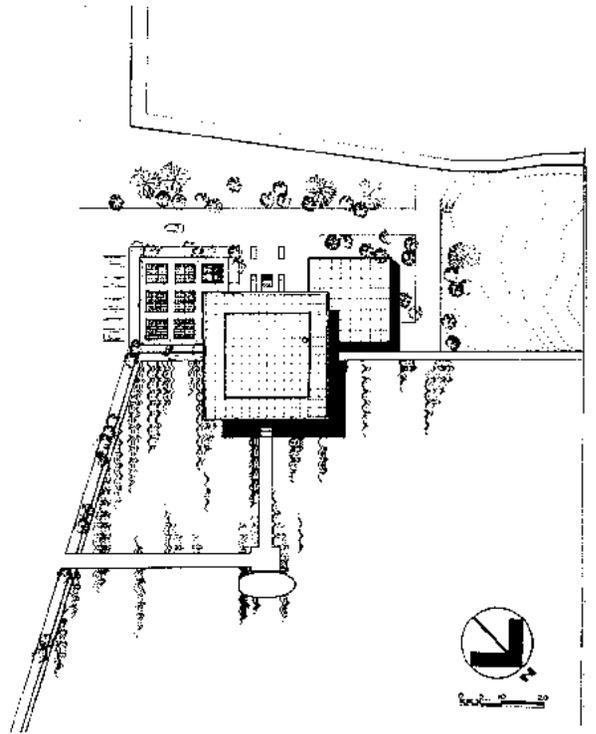
張錫雄  
(아도무 건축연구소)

소재지 / 경남 진해시 / 규모 / 부속건물 118평, 1층 전시실 155평, 2층 전시실 119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시공 / 공우 종합건설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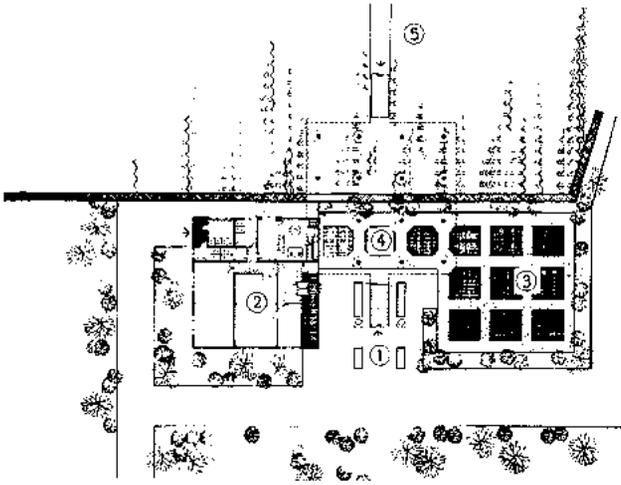
이 총무공의 일을 기리기 위하여 해상 박물관으로 시도하였다.

옥내에는 벽면 전시물과 바닥면 전시물로 구분하여 전시토록 되었고 옥외 전시장과 해상의 거북선과 유기적인 기능을 고려하였으며 기념비적인 건물로 연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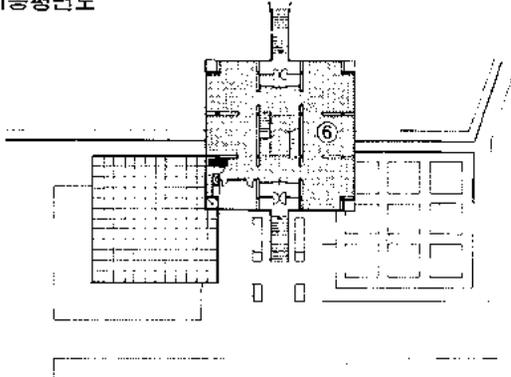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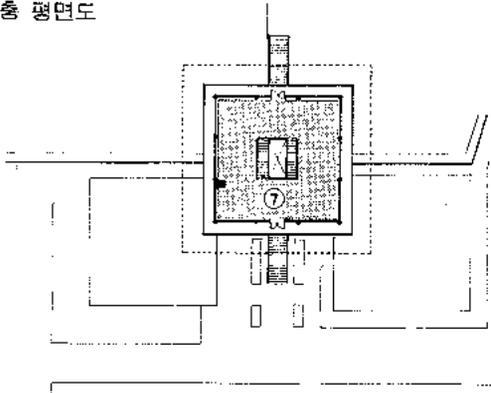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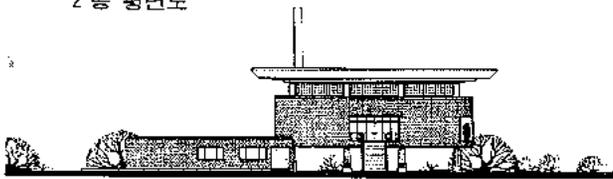
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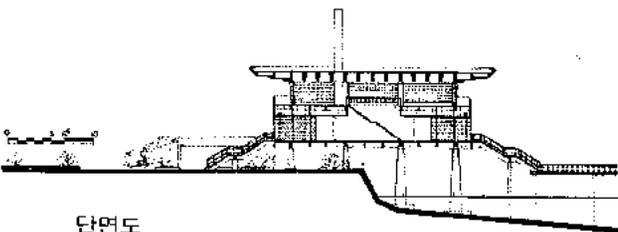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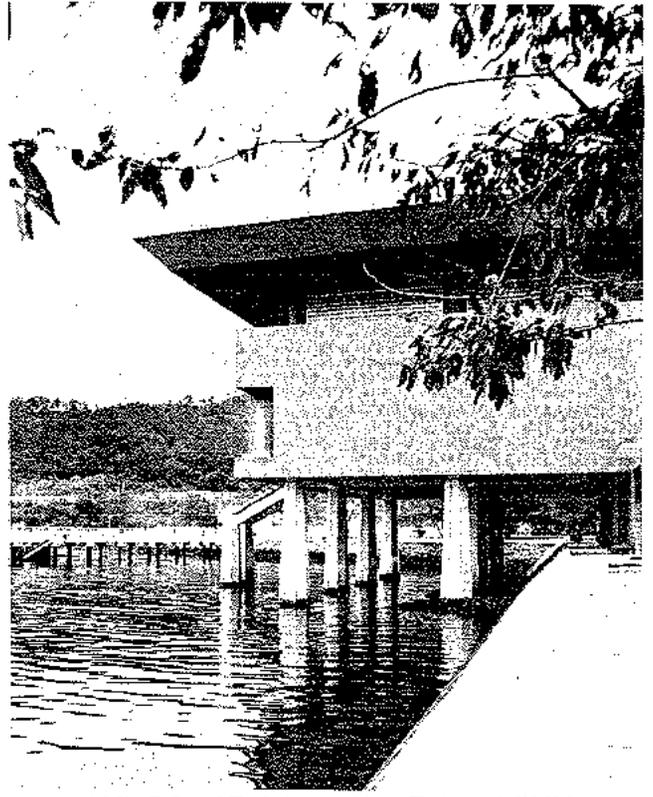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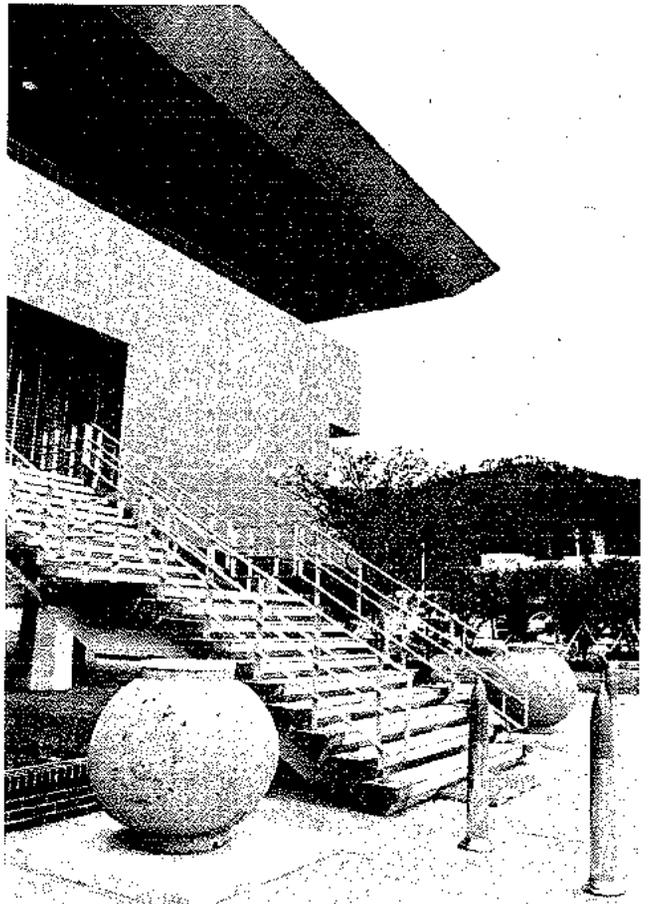
단면도



수면에 잠긴 피로티와 거북선 계류하는 계단부분

- ① 주출입구 ② 부속건물 (사무실, 자료실등) ③ 옥외전시장
- ④ 피로티 ⑤ 거북선 ⑥ 벽면전시실 ⑦ 바닥면전시실

주출입 계단





# ○○전화국 청사

片 基 奉  
(신동아 합동건축)

소재지 / 경남 ○○시 / 대지면적 / 4,333.96m<sup>2</sup> / 건물  
면적 / 1,654.12m<sup>2</sup> / 연면적 / 7,700.17m<sup>2</sup> / 층수/지상  
5층 지하1층 / 층높이 / 평균 4.5~5.0m / 구조/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 지붕 / 콘크리트슬라브 / 설비 / 냉난방  
공조설비 / 설계담당 / 박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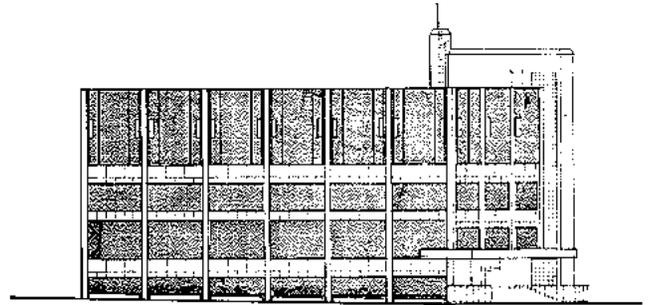
## ■ 설계개요

다행히도 기회가 주어져 좋은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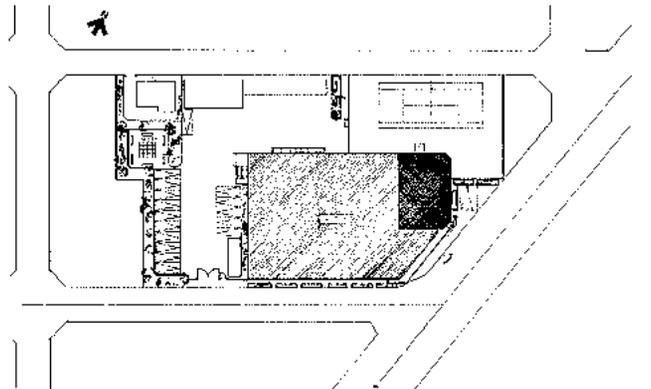
전화국은 특수성이 수반되는 건물이므로 이 글이 회원  
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배치도에서와 같이 도로면에 접하는 건물의 코너부분이  
계획 처리상 난점이 많아 이를 원활히 연결되도록 건물  
전체를 입면(투시도)에서와 같이 mass처리가 되도록, 기  
계실, 사무실을 1mass, 계단실, 화장실, 공조실 부분을  
1mass가 되도록 구분하여 매치 되도록 하고 기타 부속건  
물 및 운동시설은 뒷부분에 처리 하도록 계획하였다.

본 건물은 기계실 위주의 건물이므로 창조에 대한 제한  
(?)이 다소 있어 입면계획상 4층 부분만을 요절있는 외벽  
처리로 3개의 mass집합이 되는 계획에 임하였다.



입면도



배치도







# 춘천성결교회

李國男

(국일 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86의 7. 87의 6. 87의 7번지 / 대지면적 / 1,418.00m<sup>2</sup> / 건축면적 / 697.94m<sup>2</sup> / 연면적 / 2,950.595m<sup>2</sup> / 건폐율 / 49.22% / 용적률 / 2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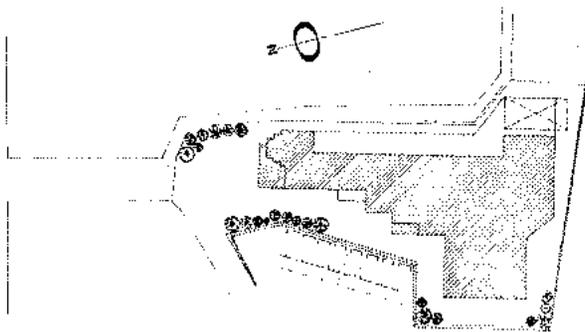
## ■ 설계개요

일반 건물이 아닌 신성함을 지닌 교회라서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하였으나 부지형태가 좋족지 못한 관계로 PLAN을 유도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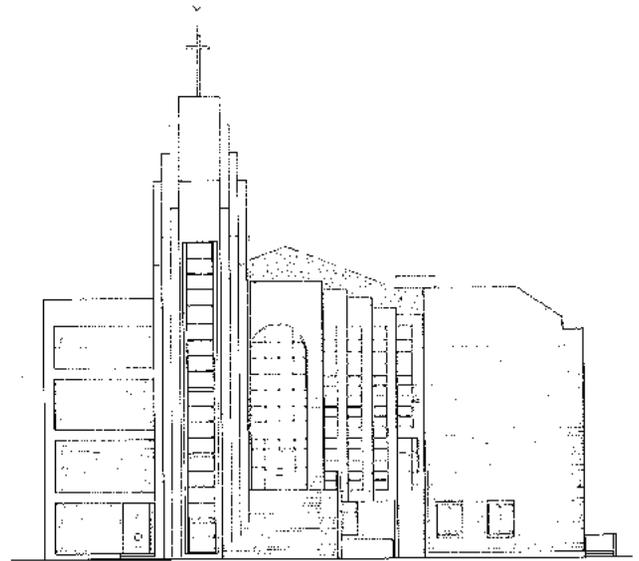
교회측 의견에 거의 밀착된 결과는 다행스러우나 외부 조경처리가 고심된다.

주후에 대지 확보 계획이 있다나 다소의 위안은 되겠지만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몹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탑에 신경을 써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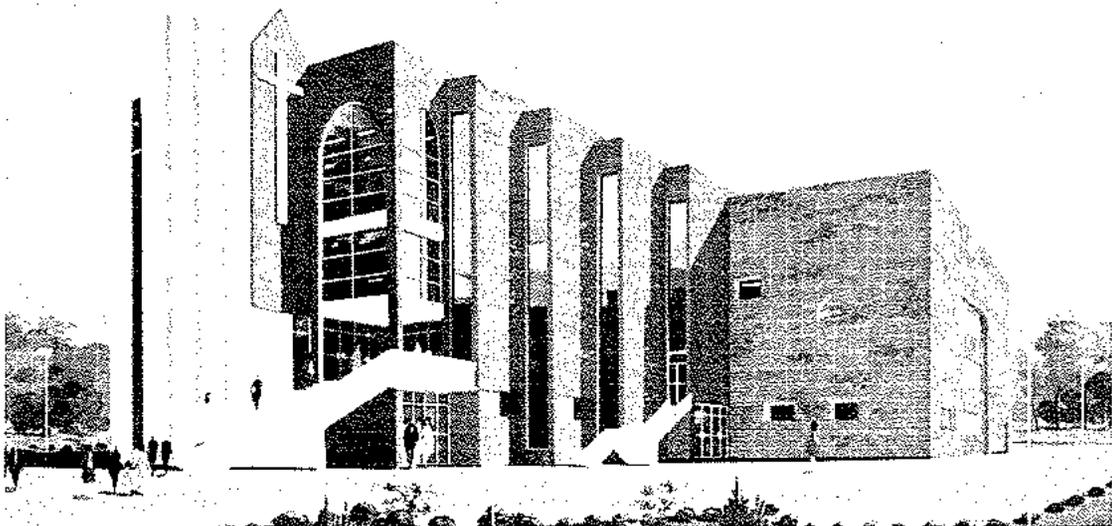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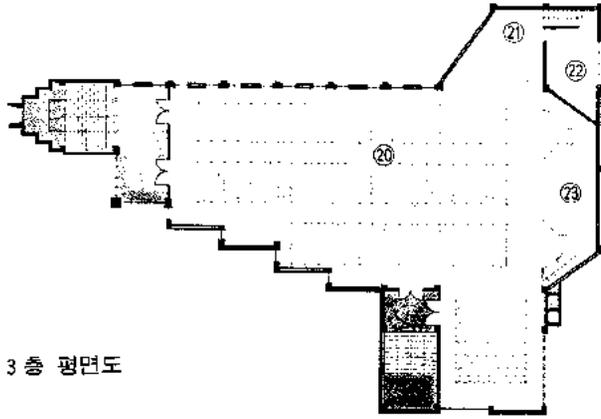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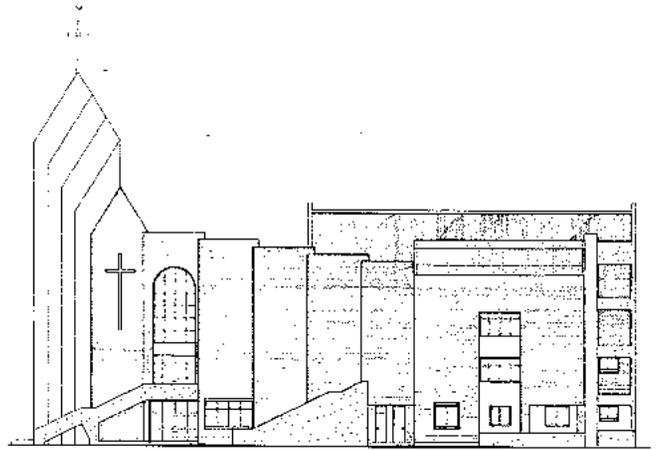
좌측면도

- ① 식당 ② 주방 ③ 다용도실 ④ 새벽기도실 ⑤ 예비실 ⑥ 기계실 ⑦ 화장실 ⑧ 중고등반회의실 ⑨ 어린이교실 ⑩ 기획위원실 ⑪ 교육자실 ⑫ 관리실 ⑬ 당회장사택 ⑭ 사무실 ⑮ 어린이예배실 ⑯ 물 ⑰ 회의실 ⑱ 당회장실 ⑲ 서재 ⑳ 회중석 ㉑ 성가대 ㉒ 준비실 ㉓ 설교단 ㉔ 조명실 및 방송실 ㉕ 성가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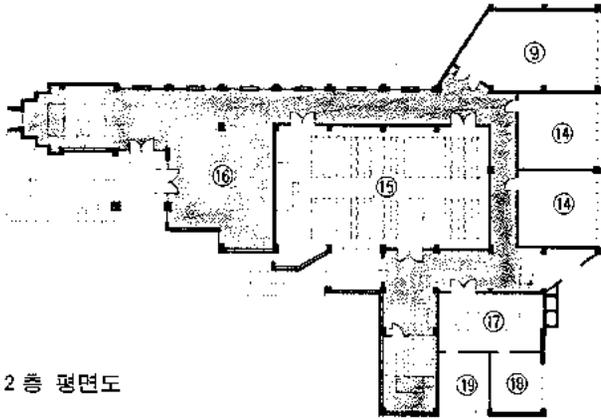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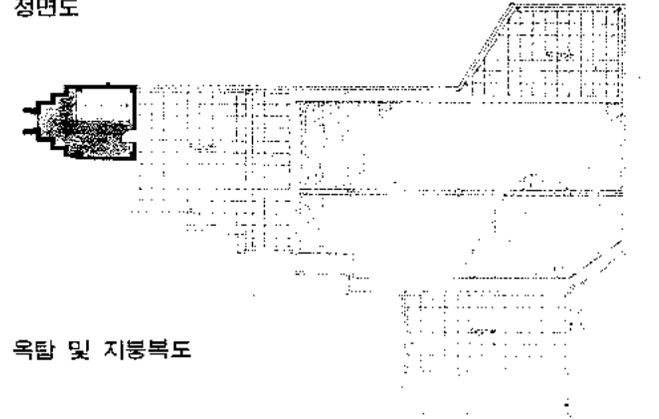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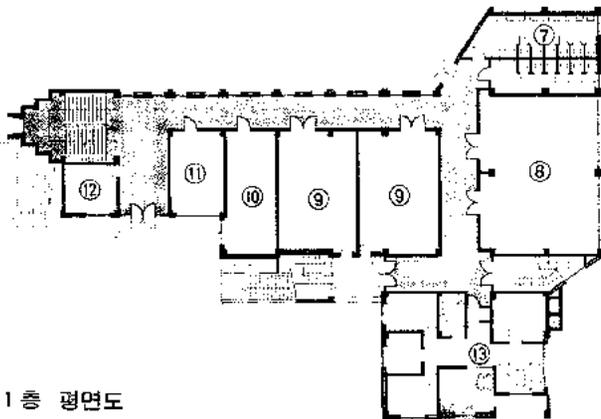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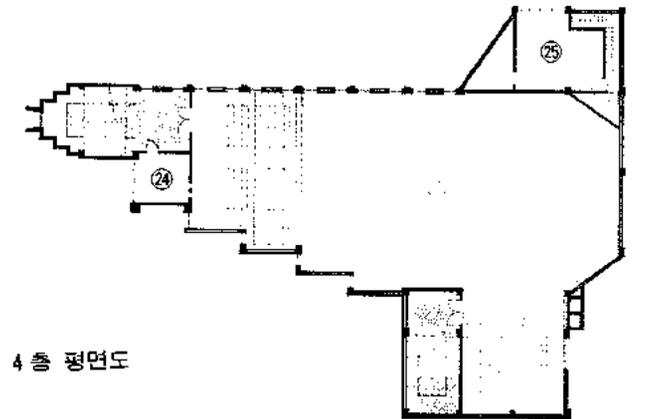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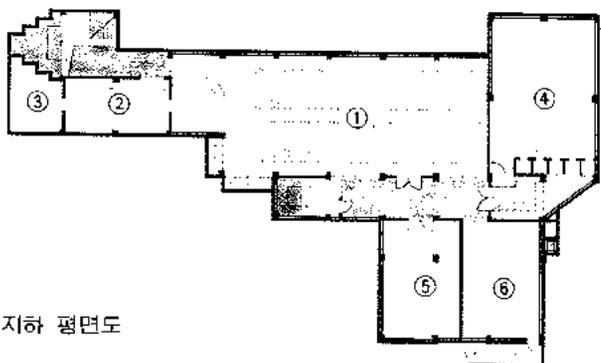
무늬 및 지붕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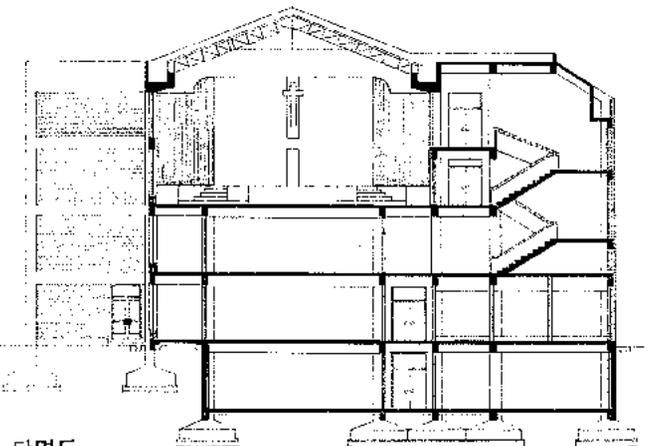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 평면도



단면도

# 현대병원



金白敎  
(진일건축 연구소)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16-1번지 / 대지면적 / 398.2m<sup>2</sup> / 건축면적 / 340.9m<sup>2</sup> / 연면적 / 1326.87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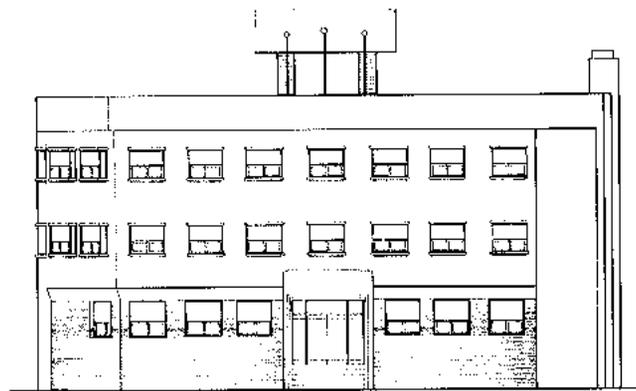
## 설계개요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적한 곳에 아담한 병원을 설계하여 본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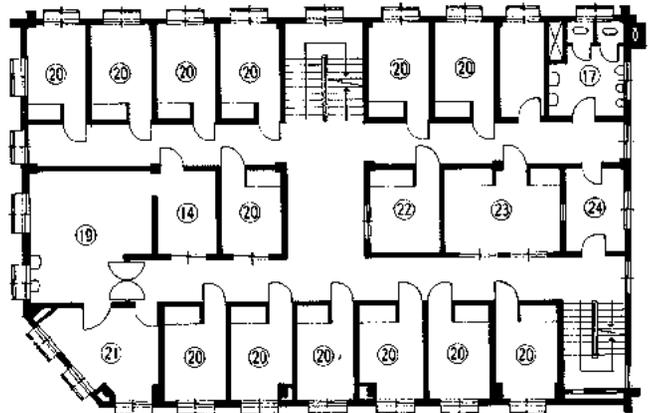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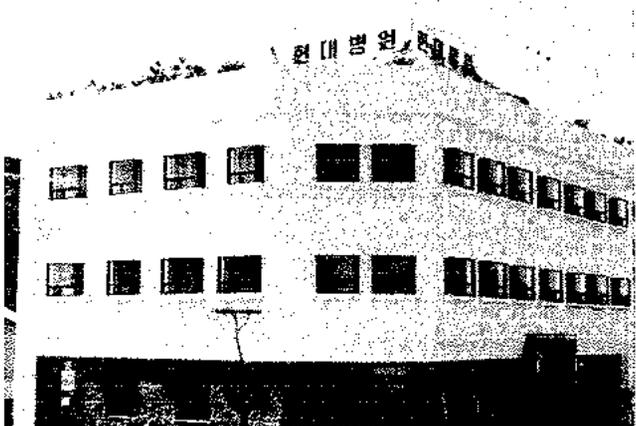
건물 길이에 비해 비교적 폭이 넓은 편이어서 중앙부를 천정에서부터 OPEN SYSTEM으로 처리 가급적 동선을 짧게 하는 중앙 집중식으로 계획을 고려하여 각층마다 환자들이 운동이나 정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을 구성 하였으나 의사와 건축사와의 견해차이로 중복도가 두 개로 되어야 하는 동선 처리가 다소복잡한 평면이 되었다.

정면으로는 웅장한 한라산 정상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위치이며 동쪽으로는 힘차게 굽어져 흐르는 전지연 폭포가 더 없이 좋은 장관을 이루어 주고 있으며 후면으로는 한없이 평화로운 제주 특유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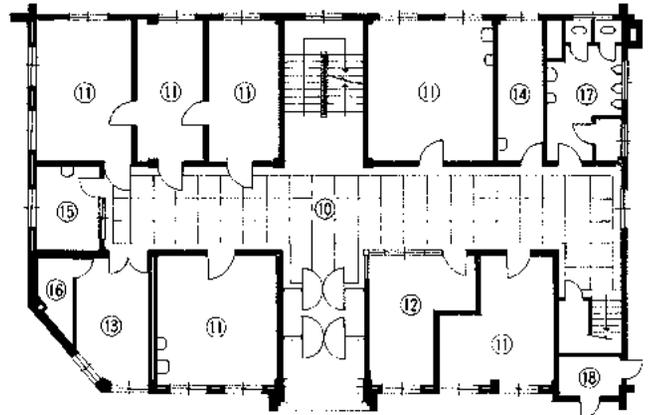
언뜻 REFORT HOTEL을 건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의 정서생활에 더없이 좋은 위치라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이다.



입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평면도

- ① 대피실 ② 기계실 ③ 존기실 ④ 창고 ⑤ 경유탱크실 ⑥ 세탁실 ⑦ 영안실 ⑧ 물탱크 ⑨ 정화조 ⑩ 로비 ⑪ 진찰실 ⑫ 약제실 ⑬ X-선실 ⑭ 소독실 ⑮ 검사실 ⑯ 암실 ⑰ 번소 ⑱ 오물처리실 ⑲ 수술실 ⑳ 병실 ㉑ 회복실 ㉒ 간호원실 ㉓ 사후계실 ㉔ 주방



# 半山別墅

金石崙  
(김석운 건축설계사무소)

소재지 / 제주시 이도동 / 대지면적 178.7<sup>2</sup>m<sup>2</sup> / 연면적 168.9<sup>2</sup>m<sup>2</sup> / 구조 / 세멘트벽돌조적조 / 층수 / 단층 / 세멘트물탈위본타일벽기 지붕 : 화산재(송이)덮기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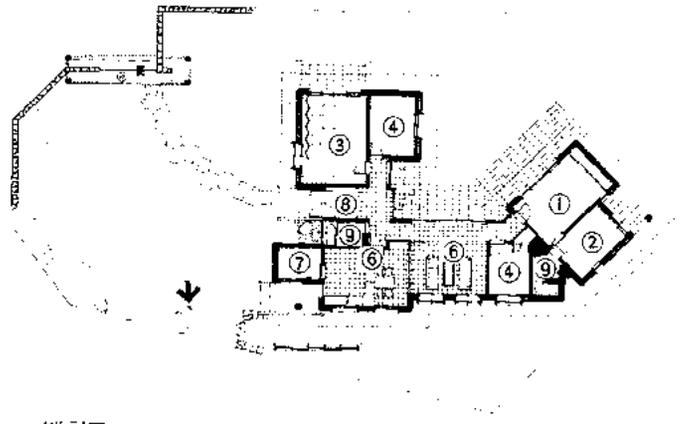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민가가 갖는 조형을 담고자 했던 집이다.

옛 사랑방 기능의 서재, 앞뒤로 확트인 대청마루와 아늑한 안방의 평면구성과 알은 물매의 지붕과 돌담으로 이루어진 제주풍의 아담한 집이다.

재료로는 제주돌과 송이(화산재)와 본타일이 전부로 극히 소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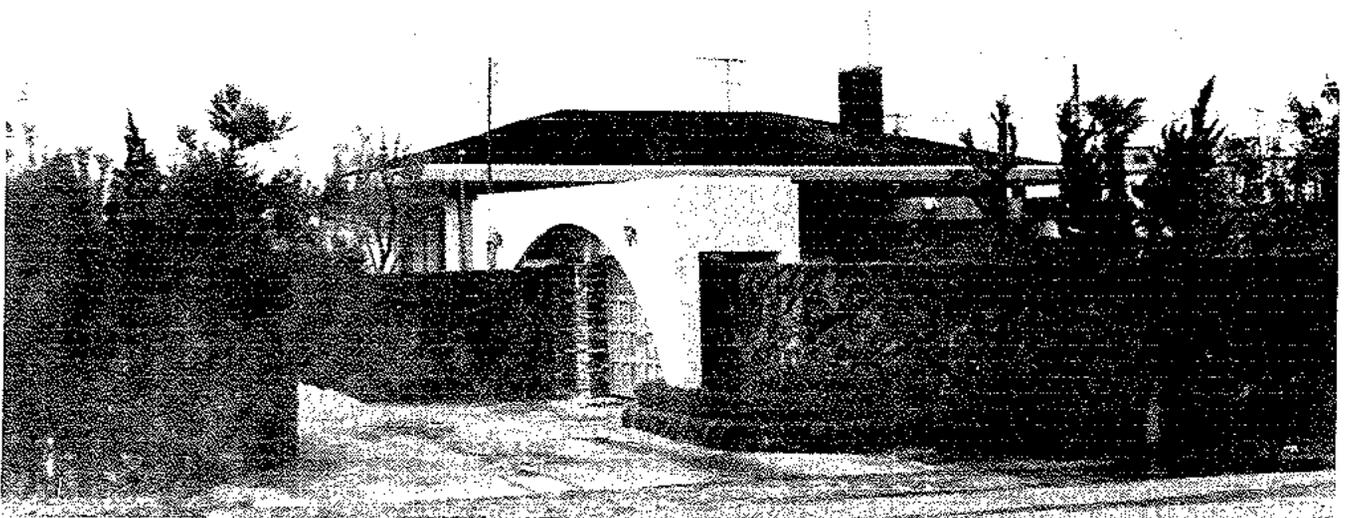
半山別墅는 淸斯 安芝碩先生任께서 붙여주신 淸호이다.

완숙하지 못한 솜씨로 빚은 공간 안에서 살아 주시는 건물주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배치도

- ① 안방 ② 침실 ③ 한식서재 ④ 아동방 ⑤ 가족실 ⑥ 식당 및 부엌 ⑦ 부엌방 ⑧ 현관 ⑨ 욕실



# 수협제주청사



金守賢  
(금강종합건축)

소재지 / 제주시 신제주 연동 / 대지면적 / 1347.4m<sup>2</sup> /  
건축면적 / 383.58m<sup>2</sup> / 연면적 / 1500.87m<sup>2</sup> / 구조 / 절  
근콘크리트 라멘조 /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 시공 /  
서해토건(주)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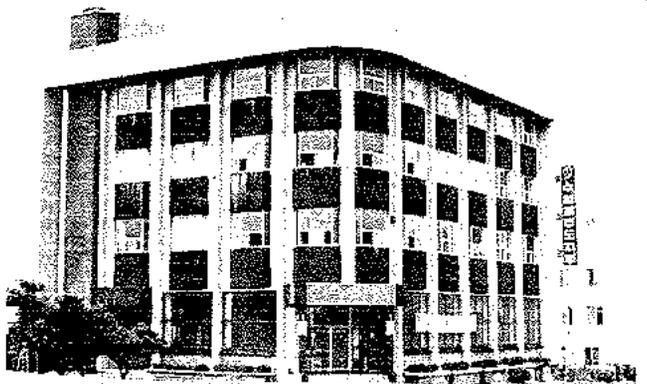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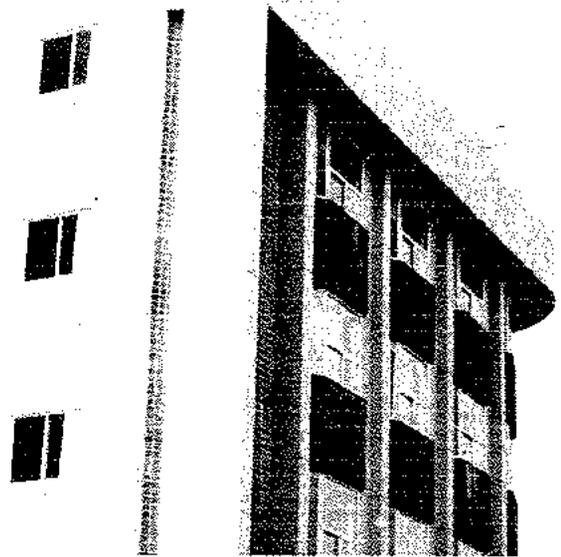
제주시 서남측에 위치한 신제주도시는 앞으로 200만평 규모의 신개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정된 관광도시로서, 대지가 그 심장부인 중앙 로타리에 접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영봉이, 북쪽으로는 무한한大海의 수평선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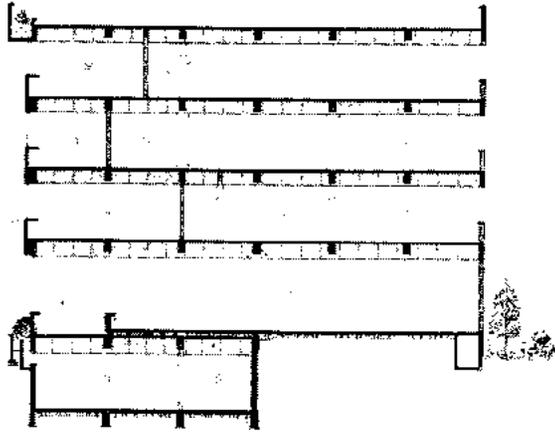
건물 2면이 도로에 접한 관계로 전면에서 2면의 입면을 한눈에 투영되도록 입면 처리를 동일하게 하였다.

계단실 외벽 부분을 이용하여 입면에 변화를 추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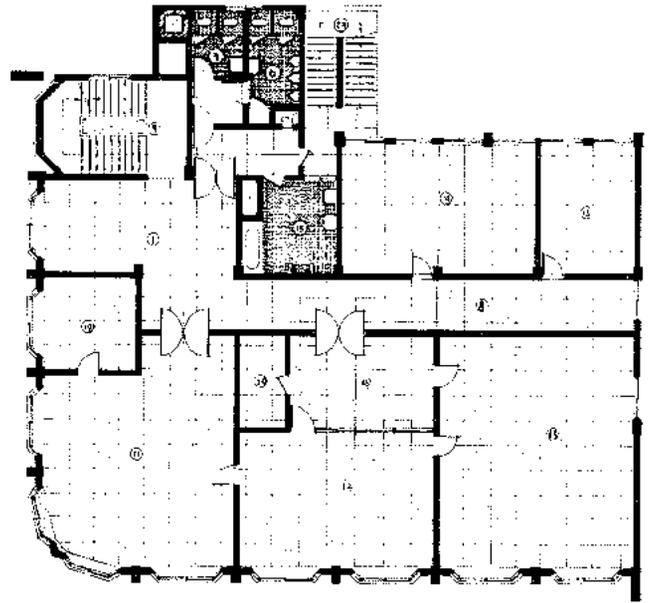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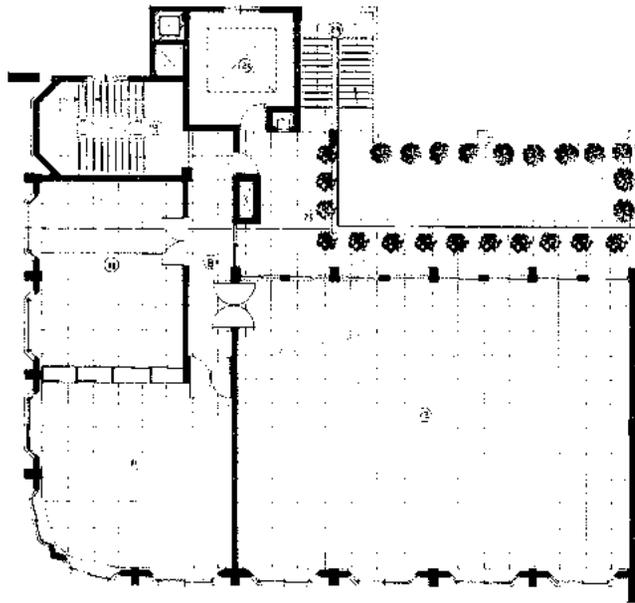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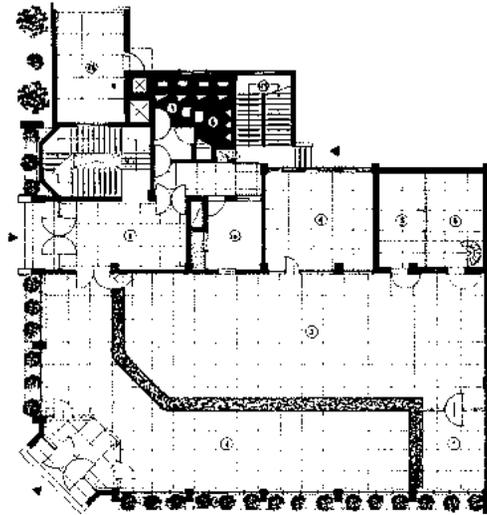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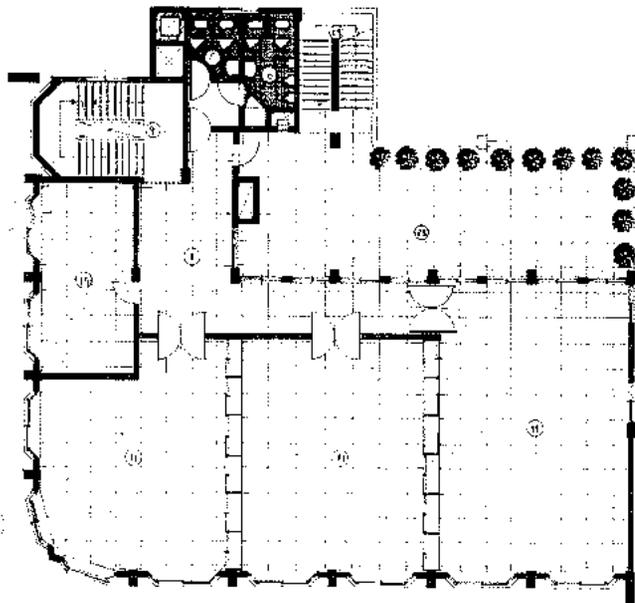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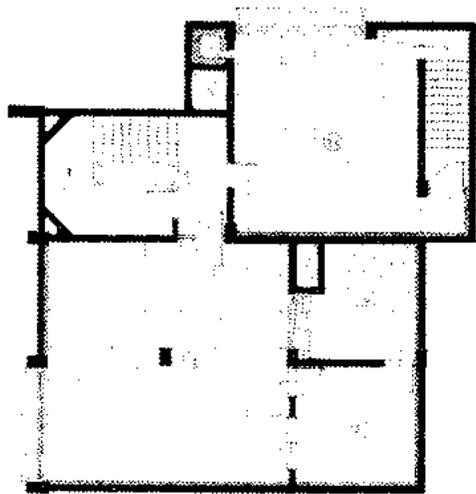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평면도



# 삼굼부리공원휴게소

朴 鎭 厚  
(동원건축 연구소)

소재지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교래리 산38 번지  
대지면적 / 533.16m<sup>2</sup> / 건축면적 / 361 m<sup>2</sup> / 연면적 / 361 m<sup>2</sup> / 층수 / 지상 1층 구조 / RC조 설비 / 난방설비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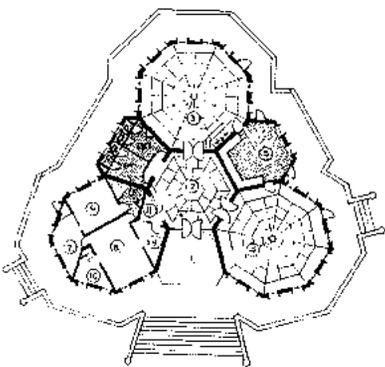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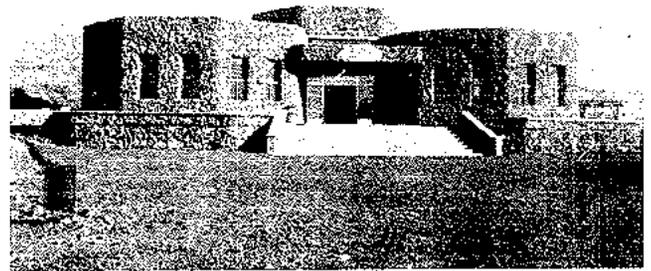
본 휴게소는 제주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평지의 문화구로 제2의 백록담이라 불리워진다.

관광 명소로도 크게 손꼽히고 있으며 평면상의 3개의 팔각형 구조는 광활한 대지위의 모든 사물을 한 눈에 관광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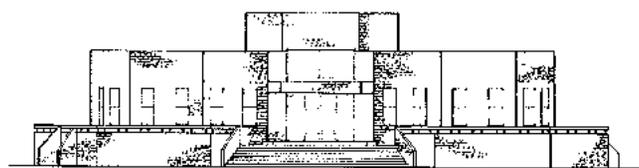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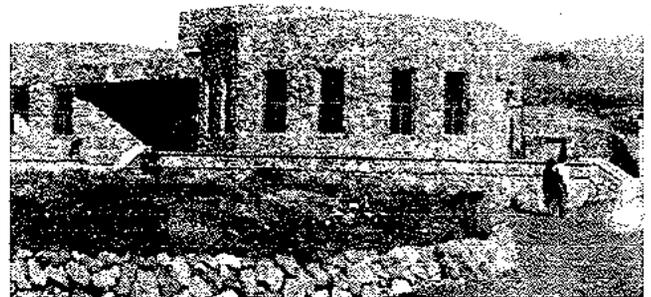
중앙 육각형이 홀로 집합체를 구성하여 문화구를 표현하였고 특히 제주도의 특수한 재료와 고유의 건축미를 살리기 위하여 參多의 하나인 자연석 돌로 외관을 마무리하여 자연미와 화려함을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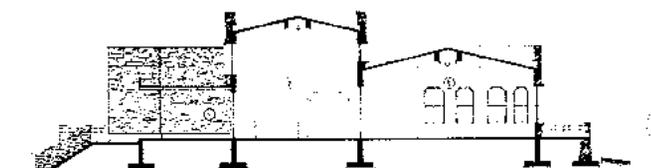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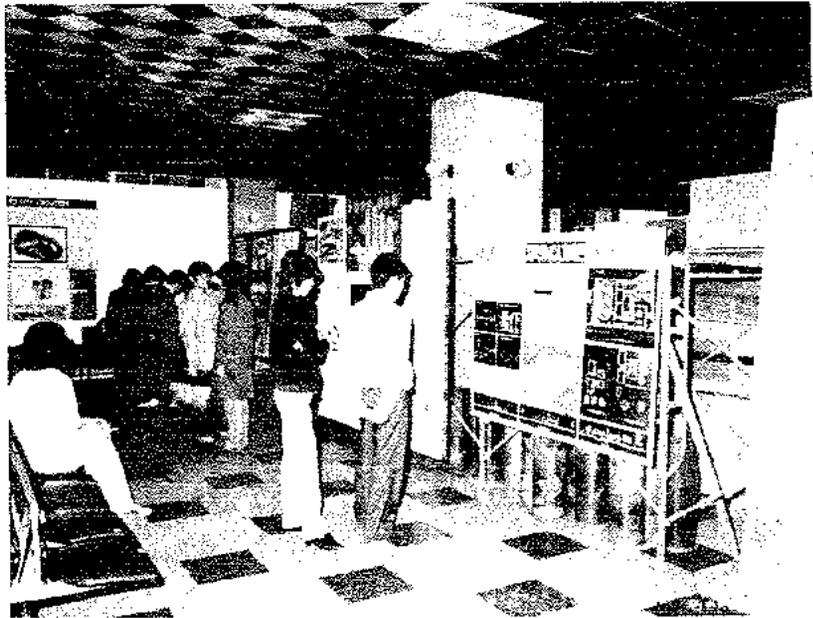


정면도



단면도

## 젊은 건축학도들의 잔치



뚝뚝, 뚝뚝, 방치질 소리가 흐린 조명속 여기저기서 들린다. 햇빛이 채 안드는 폐광(廢鑛)속 같기도 하고, 전철(電鐵)이 막 지나간 어두운 터널 속 같기도 한—

하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향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눈치 보듯 마면해 본 작품전이 여느 기성작가의 그것처럼 매끄럽고 빛이 반짝반짝 난다면 그것도 결맞지 않는 품행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81학년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이 시작되는 날 전시장 사정은 테이프를 끊기로 한 시각을 조금 넘어서 까지도 정리정돈이 안된 채 마지막 손질에 바쁜 젊은 건축학도들의 숨결에 장내는 늦가을의 냉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공대 건축공학과(학과장 오창희 교수)와 이부대학 건축공학과(학과장 이리형 교수) 졸업반학생 1백50여명이 들 혹은 셋 넷이 짝을 지어 작품 한점씩을 만들어 모두 45여점을 이날 선보인것.

박학제, 박용환 두 교수의 지도

로 그간 준비를 끝낸 작품전은 학생들 말마따나 “숨을 쉬기에는 너무 무더웠던 여름,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안고 왔습니다. …이제 가쁜 숨 몰아쉬며 4년간의 노력을 높이 걸어 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니 말 그대로 덥기도 무척 더웠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각고끝에 “맨발의 거친웃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연계 이번 전시회다. 한마디로 솔직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전시회라고나 할까—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지난 시간을 잠으로 귀중한 교육의 한 장(場)이었다고 기억하는 지도교수의 인사말대로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이런것일 수도 있다는 청순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젊은 건축인들의 숨결이 넘치는 무대였다.

내용은 작품들도 젊은이다운 착상이 눈에 띈다. 「드라마를 통한 커뮤니터 형성」 「RESORT HOTEL」 「음악당」 「청년문화센터」 「Y

MCA」 「ART COLLEGE」 「자유의 울타리」 「요트장」 「YOUTH CENTER」 「SPORTS CENTER」 등등 하나같이 거창하고 지극히 미래 지향적인 밝은 착상들이 번쩍거리고 있다.

학생대표 朴基完(건축공학과 4년)군 말대로 좀더 폭넓은 지원과 전시를 위한 시설등만 잘 갖추어 졌다면 내놓은 손때묻은 작품들이 더 빛을 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공감이 간다.

한편 관계자는 졸업생들의 작품전이 이번 처음으로 시도된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이번을 계기로 매년 거르지 않고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작품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회, 세미나등도 병행해서 열어 명실공히 건축공학의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작품전은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동대학 학생회관에서 열렸으며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상등을 가려 시상도 했다. (\* )

## 濟州道支部編

다음은 濟州道 地方의 一般的인 現況과 그밖에 地域社會 開發方向 그리고 本會 會員業務와 관련된 諸般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문: 제주도의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답: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최대의 火山島로서 목포와의 거리가 약 146km이며 부산과의 거리는 약 269km, 경위상으로는 동경 126도, 북위 33도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20km<sup>2</sup>로써 중앙에 솟아있는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가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동서의 길이 80km, 남북의 길이 40km, 주위의 길이가 약 253km되며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360여개나 되는 大小火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天惠絶勝의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 없고 지지 없고 大門이 없다해서 「三無의 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비롯하여 2시, 2군, 6읍, 6면으로 되어있으며 가구수 105,530호에 인구 46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이러한 자연, 문화자원을 淸滅, 破壞됨이 없이 제주도를 더욱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문: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십시오.

답: 관광자원에 관한한 제주도는 신의 축복을 받은곳이라고 할만큼 자연적 자원을 대표하는 한라산에는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화로 天衣를 갈아입으면서 자연원상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공해없이 질푸른 바다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海女の 작업, 독특한 초가, 별미의 향토음식등 사회적 자원은 물론 고적등 오랜 전승을 거친 문화적 자원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찌보면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가 인상적인 관광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까지만 해도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물혀있는 玉」이나 다를 바 없었으나 1960년대에 제 1 횡단도로가 개설 되고 해상교통이 발달, 정기 항공로선의 신설등으로 관광객이 불기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행정당국도 관광개발에 행정력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도 개발의 최우선 방향을 관광에 두고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면관계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목표년도인 1986년에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80	'86
인 구	462천명	562천명
도민총생산	3,492억원	15,311억원
1인당소득	1,223弗	4,075弗
관 광 객	670천명	1,500천명
(외 국 인)	(20 ")	(300 ")
관 광 수입	260억원	1,630억원

문: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답: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세계의 유수한 자연경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소박하고,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이 우리 선조들에서부터 후손 대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즉흥적이고 단시일에 효과만을 위한 계획 시행으로 많은 시설물이 몇년 못가 공해가 되고 그로인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실례는 허다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가급적 근접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좋은 경관이거나 전망할 수 있는 위치에 관광객이 쉬고 휴식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시설물을 갖다 놓고 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순식간이나 한번 파손된 자연을 원상대로 복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본도의 관광개발에 최선의 방법은 자연자원의 보존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



不具者들 모두가 障礙者로 分類될 수는 없는 問題이다. 반대로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두가 나 不具者는 아니다. 예를 들어 귀머거리나 지라병자, 장님들까지도 醫學上 不具의 條件을 가진 것으로 規定지를 수가 있다. 그러나 眞實은 소빙용 손수레를 밀고 商店에서 집으로 향하는 妊娠한 主婦의 경우는 醫學上 不具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確實히 障礙가 있는 것이다.

이 때는 無障礙(Barrier-free)의 空間的인 施設環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써, 物的 空間의 正常的인 使用을, 방해받게 되는 사람들의 身體的 特徵이나 條件의 面에서 障礙者의 概念을 規定지를 필요가 있다. 障礙者를 物的 空間에서 移動하는 形態別로 分類하면 (그림-1)과 같다.

### 3. 再活(Rehabilitation) 에의 接近

#### 3.1 諸外國의 建築基準

歐美諸國에서 현재 公共施設 또는 住宅의 建築基準이 訂定여진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東獨, 西獨, 핀란드, 프랑스, 英國,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美國 등 18 個國에 이른다.

(표-1)은 1974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ICTA에 採択된 障礙者를 위한 接近으로서 諸國의 基準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法規가 障礙者를 위한 設計로서 最小限의 量 내지는 比率로서도 확보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事項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駐車場 : 5%

公衆電話 : 電話의 列(bank) 마다 1個所

化粧室 : 層마다 性別마다 1個所

大學의 寄宿舍 寢室 : 2%

모텔·호텔의 寢室 : 5% (미서휴세트州)

實驗室의 作業場 : 1作業場 또는 1%

講堂의 空間 : 1%

이러한 施設基準에 의하면 대부분의 施設은 각기 尺寸面에서 조금씩 差異를 보일 뿐인데, 이는 동시에 健康한 사람들과의 共同도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高齡者들에게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 3.2 建築物의 利用과 要求形態

建築物은 特定한 사람들, 즉 性·年令·收入 등에 따라서 利用이 制限되는 경우의 建築物과 완전히 不特定인 사람들의 利用이 前提되는 建築物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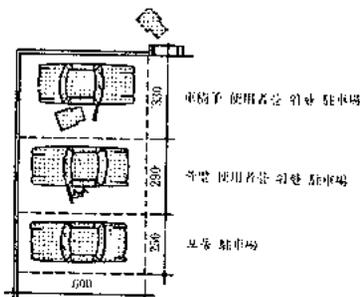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母子院·女子中學校 등이 性別로 본 경우에 해당되고, 맨션·庶民아파트·公營住宅등은 收入別로, 保育院·幼稚園·學校·養老院 등은 年令別로 본 分類에 해당되고, 不特定의 사람들인 경우의 建築物로는 映画館·公衆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利用者가 特定·不特定의 경우를 막론하고 항상 小數의 사람들에게 위해서만 利用되는 建築物과, 多數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利用되는 建築物의 경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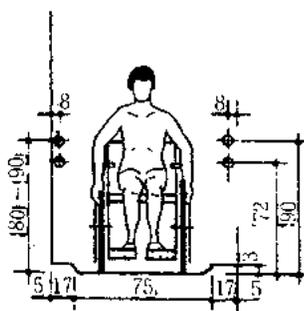
그런데 特定한 사람들의 利用을 고려한 建築物의 경우라 하더라도 限定된 小數의 사람들만이 利用하는 障礙者 施設, 多數의 사람들이 함께 利用하게 되는 障礙者 施設 등과 같이 自然히 해당 建築物에 대한 接近의 方法은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 不特定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幼兒·老人·肢體不自由兒(者) 등이 동시에 利用하는 建築物일 경우에는, 해당 建築物에서 모든 障礙物을 완전히 除去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를 简单地 解決하려고는 경우, 오히려 이들 障礙者에게 새로운 障礙物을 안겨 주는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은 日本에서 步車道의 段差가 車椅子 使用者에게 커다란 障礙物로 되어 이를 解決키 위해 실시한 段差解消가 이후 視覺障礙者에게 있어서 是 새로운 障礙物로 등장한 結果로 判明되었다는 사실이나 步車道의 交叉點등에 点字블록(block)을 설치하는 등의 警告裝置를 실시한 結果, 이 点字블록은 역시 車椅子 使用者들에게 있어서 是 새로운 障礙物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충분히 理解가 가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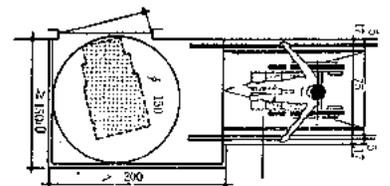
따라서 무릇 諸般環境條件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要求條件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 必要가 있는



(그림-5) 駐車場



(그림-6) 경사로의 단면



(그림-7) 경사로 참

것이긴 하지만, 이들 모든 사람들의 要求条件 가운데는 서로 相反되는 要求形態도 적잖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런 점에 특히 留意할 필요가 있다.

#### 4. 建築과 都市環境에 있어서의 各部設計計劃

##### 4.1 住宅建築의 경우

###### 4.1.1 玄關

(1) 段差를 解消한다.

車椅子 使用者가 타고 넘을 수 있는 段差는 보통 2cm 정도가 限度이다. 그러나 팔의 힘이 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1cm라도 障礙가 될 수 있으므로 室內에는 段差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出入門과의 關係를 고려한다.

여닫이 門의 形式으로 하되 간단한 開閉動作이 좋다. 車椅子를 操作하며 入口를 통과하는 데는 最低 80~85cm가 필요하다. 玄關홀에는 門의 開閉를 위하여 車椅子가 回轉할 수 있는 넓이의 확보(150×150 또는 135×160)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外出用과 室內用의 車椅子를 바꿔타게 되므로 이들을 收納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 4.1.2 衛生的 部分(sanitary space)

(1) 便所(그림 2~3)

① 넓이와 便器의 配置形狀(layout)

便所의 넓이를 결정하는 基本要因은 便器 쪽으로 향해서 車椅子를 멈추는 位置問題이다. 이 관계는 對象者의 障礙程度와 車椅子의 形式에 따라 각기 다르게 된다. 車椅子를 멈추는 位置는 (그림-2)에서 ㉠, ㉡, ㉢의 3種類로 大別된다.

㉠ 前方 어프로우치

㉡ 斜爭의 後方 어프로우치

㉢ 斜角의 前方 어프로우치

그림과 같은 便所는 車椅子에 따른 여러가지 方式의 어프로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목발이나 지팡이 使用者도 利用할 수 있다.

그림에서 ㉡와 ㉢의 車椅子를 멈추는 位置는 양쪽 팔이 健康한 者 또는 오른쪽 麻痺者의 경우이고, 왼쪽 麻痺

者用의 便器는 反對側의 位置에 온다.

② 便器의 形狀

車椅子에서 옮겨 앉는다거나, 步行困難者가 일어서는 것을 고려하여 높이 42~45cm 정도로 한다.

③ 손잡이의 形狀

바닥 固定式 손잡이로 하는 경우에는 車椅子의 바퀴를 굴리는 動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따라서 손잡이의 上부분을 잡아 당기는 形狀으로 한다.

水平의 손잡이는 주로 車椅子 使用者가 옮겨 앉는데 적절한 높이로 하며, 車椅子의 앉은 部分과 동일한 65cm 정도의 높이가 좋다. 또 垂直의 손잡이는 步行困難者가 일어서 時에 使用하는 것으로 65~150cm의 높이가 필요하다. 파이프의 지름이 3.2~3.8cm인 스텐레스製가 좋고, 壁과 파이프 사이에는 4.5cm의 間격을 두도록 한다.

(2) 洗面所(그림-4)

車椅子로 洗面器 속에 충분히 가깝게 接近할 수 있는 形狀으로 할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① 洗面器의 부착 높이를 충분히 취하여 車椅子의 높이가 洗面器의 앞부분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② 洗面器의 앞부분은 壁面에서의 돌출 치수를 충분히 취하여 車椅子의 발판이 壁에 닿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步行困難者의 경우를 생각해서는 기대어 使用할 수 있도록 72cm 정도 높이가 좋다. 以上과 같은 點에서 다음의 (표-2)와 같은 치수가 推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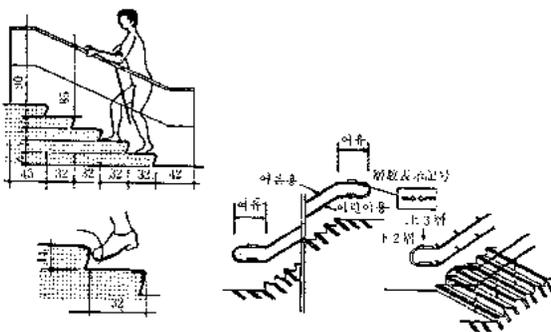
(표-2) 洗面器의 설치에 따른 障礙對象者

	돌출치수	높이	對象者
A	55~60	80	步行困難者, 大型車椅子 使用者
B	55~60	72	小型車椅子 使用者, 스포츠 타입 車椅子 使用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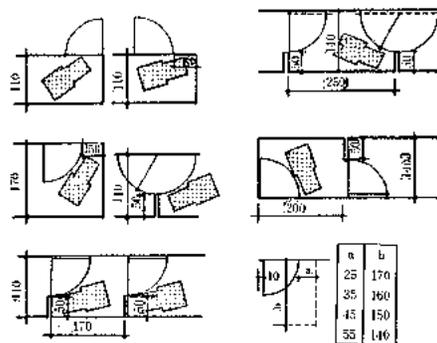
(3) 浴室

① 浴室의 空間

車椅子 使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浴室은 車椅子가 몸을 씻는 場所나 浴槽에 직접 어프로우치할 수 있게 하고, 車椅子가 方向轉換할 수 있는 場所로서 평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方向轉換 場所를 洗面이나 用便의 경우에도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면 面積의 절약에 효과적이다.



(그림-8) 계단



(그림-9) 通路와 入口에 따른 門의 位置

각 국 의 基 準

(丑-4)

모든 치수는 cm

화장실과 승강기의 치수는 폭×깊이

国 家	① 통로폭	② 복도폭	③ 문 폭	④ 화 장 실	⑤ 승강기 승강기문폭	⑥ 주차장 폭	⑦ 경 사 로 기 울 기	⑧ 스위치와조 중장치높이
Belgium	-	200	86, 90	180×210	120×150 86, 90	330,360	1 : 20	-
Canada	약 165	-	81	약180×280	-	약 400	1 : 12	-
Denmark	130	130 (140)	83	220×180	110×120 83	350	1 : 12	90-120
Federal Rep. Of Germany	120	140	85	180×200 220×200	110×140 80, 85	350	1 : 10 1 : 16	105
Finland	130 (150)	130	80, 90	-	-	340	1 : 12 (1 : 14)	90-120
France	150	120 150 160	80	210×217	80×130 120×150 80	330	1 : 20	100- 140
German Democratic Republic	-	180	83	162×180	-	-	1 : 12.5	-
Great Britain	-	122	78.5	137×175 152×167.5	134.5×112.5 107×145.5 175×109 83.5, 91	-	1 : 12	91, 107, 137,
Ireland	122	122	78.5	152×175	107×145.5 83.5	-	1 : 12	107
Israel	-	150	80	140×175 240×130	107×146 84	300	1 : 10 1 : 12	130
Italy	150	150	85, 90	180×180	170×150 90	300	1 : 12	90
Netherlands	130	110	85, 90	155×225 190×190 225×225	110×140 80	350,360	1 : 12 1 : 20	100
New Zealand	122	122	78.5	152×175 137×183	137×183	305	1 : 12	114
Poland	150	-	85, 90	155×225 190×190 225×225	110×150 90	360	1 : 8.4	90
Sweden	130	130	75, 80	210×140 170×170 220×170	110×140 80	360	1 : 12	90-120
Switzerland	-	-	80	150×150	110×140 80	350	1 : 17	90
United States of America	122	105	80	165×200	165×165	380	1 : 12	120

○통로 폭, 복도 폭은 차의자가 들 수 있도록 120cm이상, 2개의 ○폴란드의 ③, ④의 경우는 네델란드 기준에 따른 것임.

차의자가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150cm이상으로 함.

○美國의 ②의 경우는 北캐롤라니아주 건축규약, ③의 경우는 南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①, ②, ⑦, ⑧의 경우는 스칸디 네브르의 규약.

나미아의 건축기준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임.

② 浴槽의 形状

浴槽의 길이는 下肢가 正常的인 사람이 발을 뺄때 충분히하도록 하고, 幅은 兩側의 端部를 손으로 잡아 出入時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浴槽 주위에는 손잡이(지름 3.8cm인 스테인 파이프)를 설치한다.

4·1·3 부엌

車椅子 使用者를 위한 싱크대의 높이는 75cm가 좋고, 收納部分의 높이는 30~130cm 정도로 하여 車椅子 使用者의 到達範圍內에 오도록 한다. 또 넓이와 配置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만족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① 調理 스페이스에 車椅子가 回轉가능토록 한다.
- ② 食卓에는 車椅子가 2方向 以上에서 어프로우치가 가능토록 한다.
- ③ 通路는 車椅子 1台가 쉽게 通行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家具·收納設備는 車椅子가 接近가능토록 한다.

4人 家族 정도의 小家族에는 以上の 條件을 만족하는데 최소한 10m<sup>2</sup>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다.

4·1·4 寢室

寢室의 넓이는 配置形状(layout)을 左右하게 되는 條件으로 되어 다음과 같은 項目別 고려가 필요하다.

- ① 寢台 주변에 車椅子가 回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寢台의 2方向에서 車椅子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한다.
- ③ 寢台 주변에 補助 스페이스를 확보토록 한다.

이러한 條件들을 만족하는 所要面積이 되자면 1人用은 약 8m<sup>2</sup>, 夫婦用은 약 13m<sup>2</sup> 이상 필요하다.

4·2 公共建築의 경우

4·2·1 外部施設

(1) 어프로우치

- ① 最小 幅은 150cm로 한다.
- ② 最大 勾配는 1/20로 하되 미끄럽지 않은 表面이어야 한다.
- ③ 道路橫斷이 要求되는 경우라면 보도턱을 절단하도록 한다.
- ④ 특히 視覺障礙者가 比較的 많이 利用하게 되는 建物일

경우에는 그 位置가 歩道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比較的 잘 보이게하는 方法으로서는 点字를 路에 의한 誘導의 方法을 들 수 있으며 소리를 利用할 수도 있다.

(2) 駐車場 (그림-5)

① 駐車場에 필요한 空間은 보통 幅 250cm로 하고 있으나, 목발 使用者가 門을 전부 열고 出入하거나 車의 옆을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자면, 幅은 290cm 以上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車椅子 使用者를 고려한다면 車椅子에 갈아타게 될 때 그 場所에서 180°를 回轉해야 하므로 車의 옆에는 150cm의 道路幅을 둘 필요가 있다.

以上을 綜合한다면 障礙者用 駐車場의 車 1台당 스페스 幅은 적어도 330cm는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② 障礙者들은 健康한 사람들에 比하여 아주 느린 속도로 移動하게 되기 때문에 障礙者를 위한 駐車場의 配置는 建物の 出入口와 가장 짧은 거리에 두어 動線을 가능한 한 짧도록 한다.

(3) 傾斜路(slope, ramp) (그림 6~7)

① 勾配는 1/12以下로 하나 가능한 한 1/4 以下로 함이 바람직하다. 짧은 거리일 경우나 補助的으로 내려가는 避難路일 경우에는 1/10 以下도 무관하다. 그러나 유일한 避難路라면 1/20 以下로 한다.

② 兩側에 높이 70cm와 90cm로 2段의 손잡이를 설치한다. 側壁에도 설치한다.

③ 幅은 140cm 以上으로 한다.

④ 914cm마다 140cm 以上の 回轉할 場所(경사로 참)를 설치한다.

⑤ 寒冷地의 屋外 傾斜路에는 눈이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히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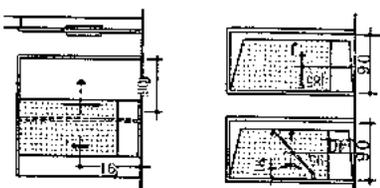
⑥ 傾斜角가 긴 경우에는 補助階段을 그 옆에 설치하도록 한다.

(4) 階段(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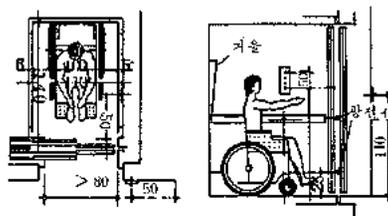
① 段높이는 15cm 以下, 段너비는 30cm 以上으로 한다.

② 90cm 높이의 손잡이를 兩側에 설치하고 시작과 끝 부분은 50~30cm 以上 延長하며 끝 부분을 둥그렇게 한다. 弱視者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色彩照明을 선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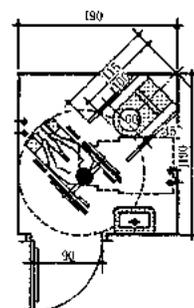
③ 손잡이는 지름 3.5~3.0cm의 円形 断面이나 모서리를



(그림-10) 門



(그림-11) 昇降機



(그림-12) 화장실

친 形状으로 한다.

④ 손잡이는 높이와 方向이 변화함에 따라 도중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4·2·2 内部施設

##### (1) 出入門 (그림 9~10)

① 車椅子가 손잡이에 接近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손잡이 쪽의 門 兩側은 50cm 以上の 空間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有効幅은 90cm 以上으로 한다.

③ 車椅子 使用者는 門을 미는 것보다 잡아 당기는 편이 開閉가 용이하다. 문지방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문지방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높이를 2cm 以下로 한다.

④ 自動開閉門은 여닫이 門 쪽이 使用하기에 좋다. 여닫이 門의 경우 여는 方向을 明示하므로써 門에 가능한 한 接近하지 않고도 열 수 있도록 한다.

⑤ 4 짝 回轉門은 車椅子 使用者에게는 使用이 매우 불편하다. 셔터를 설치한 경우 操作하게 될 핸들의 높이는 60~110cm의 位置로 한다.

##### (2) 昇降機 (elevator) (그림-11)

① 内部 空間은 車椅子가 180° 回轉이 가능하도록 最小 有効幅 150cm, 길이 170cm 以上으로 한다. 回轉 寸수가 확보 안된 경우는 안쪽에 거울을 설치하여 門入口 쪽이 보이도록 한다.

② 바닥에 오를 때를 위해서 昇降機와 複道の 段差는 없도록 하고 自動調整裝置를 설치한다.

③ 各層 바닥과 昇降機 바닥과의 간격을 車椅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2cm 以下로 한다.

④ 누름 버튼 같은 操作裝置의 位置는 바닥 위 60~120cm의 範圍에 설치하고 視力障礙者를 위해서 点字 標示를 한다.

⑤ 昇降機의 가운뎃에는 外部를 투시할 수 있는 유리창 (Viewing panel)을 설치한다.

⑥ 内外 門의 사이에는 바닥 높이 30~60~110cm의 사이에 光電管을 2個所씩 모두 4個를 설치하고, 車椅子가 통과할 때 門이 닫아지지 않도록 한다.

##### (3)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① 발걸이 (step)의 100cm 以上 前面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車椅子의 바퀴 方向을 스텝에 대하여 垂直으로 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어프로우치는 길게 잡는다.

② 昇降部分의 스텝은 될 수 있는 한 上昇度를 적게 하여, 바닥과 에스컬레이터의 사이를 車椅子가 移動할 때 安定感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勾配 角度는 30°를 限度로 한다.

④ 速度는 40m/sec까지로 한다.

⑤ 警報裝置나 緩速停止裝置를 설치하고 係員을 항시 配置한다. 係員은 車椅子 使用者들을 補助하여 타는 方法을 지도하거나 탈 때의 注意등에 임하게 한다.

##### (4) 化粧室 (그림 12~15)

① 便座 (seat)는 높이 40~45cm로 하고 바닥에 고정시킨다. 小便器는 스톨 (stall) 型으로 하여 바닥에서 약간 위의 位置에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여 車椅子 使用者와 視力障礙者에게 알맞도록 한다. 水洗裝置는 손목을 쓸 수 없는 사람도 操作할 수 있도록 누름 버튼 등으로 한다.

② 手洗器는 便座에 앉은 位置에서 쓸 수 있게 그 들레에 수도꼭지가 오게 하고 비누, 수건, 화장지 등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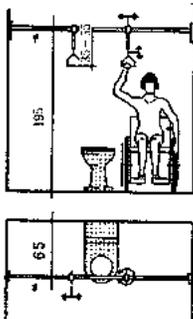
③ 손잡이는 便座 들레에 水平, 垂直 양쪽으로 설치한다. 水平 손잡이는 바닥 위 70cm나 80cm의 位置에 各各 오도록 2個를 설치한다. 또한 便座 들레에는 목발을 걸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位置 등은 車椅子가 左右 양쪽에서 어프로우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定한다. 水平 손잡이는 可動式이 좋다. 可動하는 方法은 水平으로 열도록 위에서 밀어서 하는 것과 天障 레일 (rail)에 매어다는 形式이 있다.

④ 小便器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높이 120cm 幅 60cm로 가슴에 기댈 수 있도록 하여 목발 使用者에게 알맞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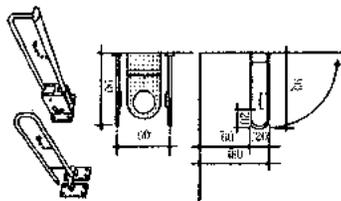
⑤ 化粧用 手洗器는 바닥 높이 82cm와 72cm의 2種類를 설치한다. 車椅子가 스포츠 타입 (sports type)이나 양쪽 麻痺用일 경우에는 낮은 쪽이 使用하기에 좋고 목발 使用者나 大型 車椅子에게는 높은 쪽이 使用하기에 좋다. 또한 거울 아래 끝의 바닥 높이는 90cm로 한다.

⑥ 化粧室의 치수는 190cm 角 以上으로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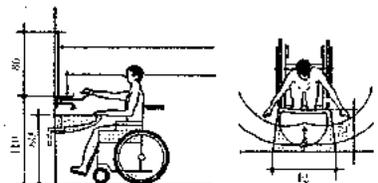
⑦ 化粧室을 설치하는 場所는 가능한 한 簡便으로 하되 使用要求가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분산하여 설치한다.



(그림-13) 천정에 매단 손잡이



(그림-14) 회전식 양팔걸이



(그림-15) 세면기

男女 각 1개씩을 基準으로 한다.

(5) 카운터 (그림-16)

車椅子 使用者들을 위한 카운터의 높이는 筆記할 경우를 생각해서 72cm 정도가 적절하나, 用途에 따라서는 카운터의 위에 비치한 것을 겨우 볼 수 있는 높이 105cm 정도로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 ① 圖書貸出을 할 때나 稅關의 申請, 公衆電話 설치한 곳 등 정밀한 筆記를 하는 카운터나 즐겁게 茶나 술을 마시는 카운터 등에는 80cm 정도의 높이로 한다.
- ② 販賣場·郵遞局·銀行·空港·호텔의 接近 카운터 등은 書類의 사인이나 判別이 가능한 정도의 90cm로 한다.
- ③ 바닥높이가 100cm를 넘으면 車椅子 使用者는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높이는 동시에 서 있는 채로의 사인이나 목발 使用者에게는 몸을 기대면서 記載하기에 편리하게 된다.
- ④ 카운터의 돌출은 車椅子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50cm 이상 확보한다.

(6) 스위치·콘센트·표시미터·警報부저·인터폰 등 (그림-17)

- ① 바닥에서 60~120cm의 높이에 설치한다.
- ② 모양은 손목으로도 누를 수 있는 大型의 텀블러(tumbler)형이 좋다.
- ③ 盲人用은 点字로 하여 그 位置나 意味의 설명을 붙인다.
- ④ 警報부저는 聽覺障礙者를 위해 필요하며 点滅램프도 가능하다.

4·3 都市環境의 경우

最近 世界 여러 나라들이 “障礙者들에 대한 生活圈의 拡大 運動”에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障礙者의 福祉를 고려한 모델 都市의 指定”으로까지 發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로 都市環境의 整備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既存都市의 경우라면 障礙者를 위한 住環境의 整備를 어디에서부터 着手할 것인가의 問題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

다.

都市 전체에 대하여 우선 “實驗의 모델 地区”를 設定하고 이 限定된 地区上의 住環境整備의 方法을 檢討 한다면 이후의 全國的인 實情에 맞는 方策을 講究·提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作業은 프로그램과 予算에 반드시 反映하여 整備하므로써 具體化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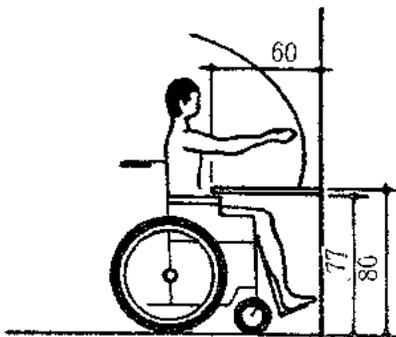
이 때의 주된 事業內容으로서 日本에서 實施되고 있는 것을 例로 들면,

- ① 道路 交通安全 施設을 하기 위한 整備로서,
  - ㉠ 歩道와 車道の 段差를 解消하고,
  - ㉡ 盲人用의 点字블록을 설치하며,
  - ㉢ 盲人用 信號機를 설치한다.
- ② 公共施設構造의 設備改造로서,
  - ㉠ 公共建築物에 있어서의 階段障礙를 解消하고,
  - ㉡ 出入口를 改善하며,
  - ㉢ 昇降機(elevator)를 改良하고,
  - ㉣ 欄干을 설치한다.
- ③ 公共建築, 公園 等に 車椅子를 配置한다.
- ④ 移動用 浴槽車, 리프트(lift)가 달린 버스, 電話相談網 等を 整備하되,
  - ㉠ 특히 移動이 곤란한 障礙者 또는, 누워만 있게 되는 老人을 위해서는 可動式 浴槽를 具備한 自動車를 購入 하고,
  - ㉡ 車椅子를 리프트로 들어 올려 집어 넣을 수 있는 大型 또는 中型 버스를 購入하며,
  - ㉢ 누워만 있게 되는 老人이나 重度의 障礙者用 電話를 無料로 설치하고 電話料를 支払한다.
- ⑤ 障礙者用 公衆便所를 整備함에 있어서는, 특히 車椅子 使用者를 위한 便所를 설치한다.
- ⑥ 障礙者福祉施設의 普及이나 啓蒙을 한다. 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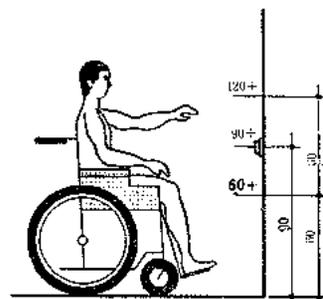
4·3·1 交通手段

交通手段은 직접 行動面에 影響을 미쳐 障礙者가 利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視覺障礙者들의 버스·택시 利用率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의 그 타고 내리는 位置가 不確實하다면 불편과 위험은 항시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타고 내리는 位置란 이를 확실히 確認할 수 있도



(그림-16) 카운터



(그림-17) 스위치의 높이

록 방법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 4·3·2 歩道 (그림-18)

- ① 幅은 最小限 120cm 以上으로 한다. 車椅子와 車椅子가 서로 스쳐갈 경우를 생각한다면 180cm 以上은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水勾配는 1/100 以下, 上昇勾配는 1/12 以下 (國際規準은 1/20) 로 한다.
- ③ 보도턱은 8cm 以下, 車를 타는 곳은 높이 2cm 까지로 하고 모서리 부분은 더 낮춘다.
- ④ 視覚障者에게 있어서는 특히 歩道上的의 위험한 場所로는 바닥의 높이 差, 歩車道の 區別이 분명하지 않는 場所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 身體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看板, 交通標識, 案内板, 빠질 우려가 있는 맨홀, 下水溝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3·3 横断歩道 (그림-19)

- ① 安全하게 横断할 수 있도록 信号의 間隔을 步行速道 5 sec/m에 합치되도록 한다.
- ② 安全地帶의 最小 通路幅은 150cm 以上으로 하되 道路와 같은 平面에 둔다.
- ③ 歩道에 있어서의 傾斜部分의 幅은 最小限 90cm로 한다. 또한 表面은 視覚障者를 위하여 우물두툼한 材質로 처리하여 다른 곳과는 쉽게 區別되도록 한다.
- ④ 視覚障者는 信号機의 색깔을 區別할 수 없으므로 音響式 내지는 觸知式 信号機 등을 利用토록 한다.

그러나 聽覺障者의 경우는 信号機가 소리를 내더라도 알아차리질 못할 뿐만 아니라 색깔의 변화를 잘못 보는 수가 있다. 따라서 信号機의 信号는 단순한 亦靑의 色度化만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形(모양)에 따른 標識까지를 並用함이 좋다. 또 歩車道の 区分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 結論

앞으로 研究는 주로 다음 事項들에 留意하여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1) 都市計劃에 따른 接近과 適応의 原理를 실제로 實踐할 수 있는 可能性에 입각하여 새로운 타입의 住宅을 提案하거나 技術的인 開發 내지는 適切한 建築標準을 設定하여야 한다.

2) 어떤 中間的 解決方法의 摸索, 즉 既存建物과 施設이 障者들의 要求(needs)에 適切히 副應해야 한다.

3) 障者들이 利用할 公共交通手段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差別的인 條項을 除去한다. 즉 障者들이 車椅子를 타고 接近할 수 있는 型을 設計하고 附品을 開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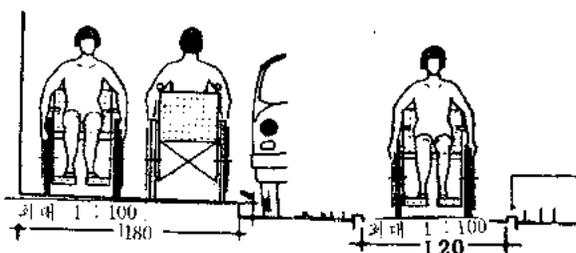
4) 社会的·心理的인 障者에 대하여 어떻게 対処해 나갈 것인가의 方法이 講究되어야 한다.

5) 生活條件이 多様한 範疇의 사람들, 즉 教育·勞動·文化·社会的 및 娛樂活動 등에서, 生活空間面 에서나 다른 肉體的인 障者에 의하여 不利하게 影響을 주는 要因을 밝혀내어 除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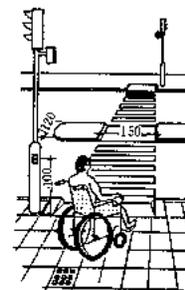
6) 基本的人權概念을 強調하는 會合을 자주 열어 障者들도 모든 市民과 더불어 똑같이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附与되어 있음을 強調한다. <\*

#### 參考文獻

- (1) 佐藤 平, 視·聽覺障者と建築, 近代建築, 32卷, 1978.
- (2) 上田 敏外 5人, 身體障者と住環境, 建築雜誌, 89卷 1084号, 1974. 9.
- (3) 佐藤 平·松井寿則, 視聽覺障者に対する配慮, 建築知識, 1974. 10
- (4) 陳慧玉, 肢體不自由者に対する配慮—住宅の場合—, 建築知識, 1974. 10
- (5) 吉田あゝ, 肢體不自由者に対する配慮—公共建築の場合—, 建築知識, 1974. 10
- (6) 佐藤 平, 身體障者と都市環境, 建築知識, 1974. 10
- (7) 佐藤 平, 視·聽覺障者の利用あ考慮し=建築計劃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 232号, 1975. 6
- (8) 石田道孝·児玉桂子, 身障者と住宅計劃, 建築界, 24卷 3号 1975.
- (9) Stephen A. Kliment, Into the Mainstream, 1976.
- (10) 金光文, 배리어 프리 디자인, 建築士, 1975. 4
- (11) 金光文, 身體障者를 위한 建築設計, 大韓建築学会誌, 22卷 81号, 1978. 3-4
- (12) 李鍾金, 身體障者를 위한 施設, 大韓建築士協會誌 110号, 1978. 4
- (13) 鄭宰泳, 老人과 身體障者를 위한 計計基準, 大韓建築士協會誌 112号, 1978. 6
- (14) 片岡正善, 身體障者の住生活空間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 219号, 1974. 5
- (15) 保健社会部 社会局編, 日本の 心身障者 福祉制度, 研究資料, 1979. 6



(그림-18) 歩道



(그림-19) 横断歩道

# 芸術의 本質에 對한 美學的 小考

姜 一 東

(國立建設研究所 建築部)

## 1. 序 言

藝術이란 感覺을 통한 對象의 美的 認識作用 即 鑑價作用과 認識된 美를 具體的인 美的 形式을 통하여 表現하는 外部的 活動을 總括的으로 意味한다. 本質的인 面에서 感性和 理性和 調和狀態는 人間性的 極致를 이루며 여기에 서 참다운 美가 자아내어 진다. 이제 藝術의 本質을 究明하기 위한 美的分析을 展開해 보고자 한다.

## 2. 藝術의 本質에 對한 美的 分析

### 가. 칸트의 美的 分析論에 對하여

칸트는 「判斷力批判」 第一部 美的判斷力의 分析에서 趣味判斷에 四條目的 規定을 提示함으로써 美的 分析을 展開하고 있다. 即 그는 趣味判斷을 質·量·關係 樣相의 범주에 따라 考察하면서 美的 質은 우리에게 調和에서 오는 快感을 주고 美的 量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美的 關係는 利害의 概念을 떠나서 그리고 美的 樣相은 必然的으로 즐겁게 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美的 分析論의 主意圖는 美를 단순히 感官的인 것에 對한 滿足 및 道德的인 것에 對한 滿足과 구별하고, 아울러 理論의 領域과 道德의 領域과는 전연 相異한 藝術의 領域을 樹立하면서 美를 定礎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점에 對해서는 칸트가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美的인 滿足은 어떤 概念의 媒介 또는 欲望의 충족에 依해서는 결코 喚起되지 않는다고 한다. 結局 美는 對象의 現實性與 否와 관계없이 全的으로 調和에서 生成되는 無關心의 快感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美는 主觀的 普遍性和 目的없는 合目的性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必然的 滿足의 對象으로서 傳達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靜觀的 無關心性이라는 第一의 계기는 아주 重要한 概念으로서 오늘날에도 論議가 紛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하르트만 같은 철학자는 「判斷力批判」을 가리켜 그 속에서 現代美學의 諸潮流가 다시 合流하였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提起된 無關心性의 概念을 美에 對한 本質的 解明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칸트는 역시 그의 「判斷力批判」중에서 美的 滿足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1) 美的 滿足은 主觀的·普遍的이며 必然的이다. 그러나 그것은 對象이 주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必然的으로 느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느끼게 된다는 意味이다. 이와

같은 主觀的 普遍性은 바로 對象의 完全한 個性에서 成立하는 것이다.

2) 美的 滿足은 概念이 없는, 即 普遍 혹은 規則에 包括되지 않는 滿足이다. 이러한 美的 滿足의 普遍性은 결코 概念의 普遍性이 아니다. 이 말은 主知主義美學의 根本的인 排除를 意味하고 있다. 그러므로 滿足이라는 것은 概念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滿足은 知覺이나 순수한 觀照에서 直接的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美的 滿足은 普遍에 관한 하등의 知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概念이나 法則도 없고 따라서 認識이 아니며 그밖에 어떠한 基準도 가지지 않는다.

3) 美的 滿足은 無關心의 滿足이다. 이 유명한 말은 鑑價하는 者가 美的 對象 그 自体에 對하여 아무런 關心도 가지지 않는다는 意味는 아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對象에 對하여 美的 關心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藝術家가 製作中에 있는 作品이나 完成된 作品에 對하여 또는 그의 作品의 運命에 對하여 至大한 關心을 갖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關心은 對象에 對한 美的 快感에 制約된 것이며 그 結果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關心과는 다르다. 즉, 無關心의 滿足의 關心이라는 美的 對象이 그 어떤 무엇에 對한 手段으로 利用될 수 있는가 하는 實踐的 關心을 意味한다. 이러한 關心은 美的 價值이외의 價值에 對한 關心에 不過하며, 美的 鑑價는 그러한 關心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으므로 美的 快感에서 除外되어야 마땅하다.

以上の 세가지 칸트의 持論中 첫째 持論 即 主觀的 普遍性은 分明히 美的 滿足이 對象에 立脚하고 있음을 周知시키고 있다. 對象을 올바르게 美的으로 觀照할 能力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同一한 快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美的 快感의 確信과 實踐的·理論的인 아 프리오리(apriori)의 確信은 同一한 것이다. 왜냐하면 實踐的·理論的인 確信도 같은 條件에 左右되기 때문이다. 數學的 命題로 그것을 理解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만 理解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論述의 快感에서 由來하는 趣味判斷과 先天的 判斷과의 差異를 明白히 밝히고 있다. 先天的 判斷이란 客觀的 普遍 即 法則 또는 概念과 結付되는 것이다. 그러나 美的 滿足의 現象中에는 法則이나 概念같은 것이 없으므로 快感의 對象은 언제든지 個別的인 對

다. 때문에 「趣味判斷은 모든 사람의 贊同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다」고 칸트는 말한다.

끝으로 세번째 持論의 內容은 전혀 性質이 다르다. 「無關心의 滿足」은 趣味判斷의 獨立性, 다시 말하면 美的 性質이외의 規定要素에 對한 自立性·自律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 自律性은 快感에서 告示되는 만큼 그것은 對象에 對한 美的 快感의 自律性을 意味한다. 여기서 價值 感情의 特性을 말할 수 있으며 間接的으로는 美的 價值 그 自体의 特殊性을 볼 수가 있다. 그의 觀念論의 體系의 前題를 떠나서 以上과 같은 意味로 解析한다면 前述한 칸트의 持論에는 意味深長한 見解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價值意識은 結局 價值感情에서 判定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實質의 價值倫理學을 通하여 一般化되고 있다. 그러나 價值意識을 누구보다도 먼저 最後의 判定로서의 滿足에 對한 美的 關係속에 捲어든인 사람이 칸트이다. 여기에 價值概念이 現象學的으로 整備되기 前에 展開된 모든 價值理論의 真正한 出發點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로소 快感과 滿足이 美的 價值를 告示하는 感情的 契機라는 것이 明白히 認識되었고, 나아가서 主觀的으로 扮裝한 그 獨特한 客觀性과 普遍妥當性이 認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칸트가 美的 關心以外的 모든 關心을 排斥한 것은 美意識을 生活關聯에서 分離해야 한다는 意味로 解析된다. 칸트는 「關心」을 現實이나 狀況의 拘束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無關心한 態度는 現實 또는 狀況과의 絶縁을 意味한다. 여기서 鑑賞의 概念을 考慮한다면 納得이 쉬워지는데 왜냐하면 鑑賞에 있어서는 對象에 對한 獻身의 熱中의 契機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鑑賞行態가 眞摯하여지면 鑑賞者의 心相이 現實的인 環境이나 日常性에서 恍惚境으로 옮겨가게 되는 바 일종의 自己忘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實在的 關聯 또는 現在의 忘却이 重要하다는 意味는 아니다. 생각하건데 解放되어 浮動하는 狀態가 快感을 주기도 하지만, 結局 狀態는 對象에 歸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觀照者의 心理作用이 美的인 限에 있어서 그는 對象을 鑑賞하는 것이지 自己의 狀態를 鑑賞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即 美는 우리를 恍惚하게 하는 對象에 있으며, 恍惚한 狀態 自体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實在的 關聯에서 解放되어야 그밖의 다른 關聯 關 對象이 開示하는 美的 世界로 進入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의 規定은 그대로 展開되어도 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對象에 對한 純粹한 快感은 아무리 客觀性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自我의 參與에서 成立하는 것이며 언제나 自我의 充實을 意味하므로, 이 점에서 分明히 無關心性의 限界가 있다. 對象은 여전히 主觀과 對立한다. 그러나 그 對立의 樣相은 認識關係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美的 鑑賞은 觀照의 態度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對象과의 合一 또는 神秘的 統一 또한 아니다. 即 美的 鑑賞行爲는 對象과의 距離를 打破하는 것이 아닌 바, 美的 快感은 이 距離와 內面的 感動과의 對立의 綜合이다. 辨證法的으로 表現하자면 美的 快感에서는 距離가 止揚된다고 하거니와 이 止揚이라는 말 안에는 打破와 保存과 提高라는 세가지 意味가 同時에 包含되어 있다.

나. 헤겔의 藝術論에 대하여

칸트의 影響力을 받은 헤겔은 그의 「美學講義」에서 「藝術의 美는 精神에 依해 낳아진 美요, 곧 精神의 새로운 誕生이므로 自然美보다 훨씬 高次的이라고 主張할 수 있다. 그것은 精神이 自然보다 高次的이면 高次的인 일 수록 그 精神의 產物도 그만큼 더 高次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만큼 그의 主 關心은 藝術美에 있다. 까닭 인즉 그에게 있어서 藝術이란 巴魯 感覺의 形式으로서 이긴 하지만 精神을 表現하는 한 方式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意味에서 藝術이 精神의 表現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헤겔의 形而上學的인 一面을 칸트의 그것과 比較해 보기로 하자.

칸트는 自己의 哲學을 批判的이라 했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가 理論的 理性의 効能和 限界를 同時에 밝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現象의 經驗의 世界를 悟性의 先天的 手段으로 解決했고, 實踐理性의 先天的으로 明白한 原理를 通하여 本體系를 再確認했으며, 끝으로 判斷力에 依해 自然의 領域과 超感覺世界의 領域間的 사이에 橋梁을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헤겔의 汎論理的 觀念論은 實在을 그와같이 現象과 本體로 兩分하는 칸트의 哲學과는 다르다. 헤겔은 自然과 人間을 包含한 實在全體를 絕對者로서의 理 (Logos) 또는 理念 (Idea)의 發展으로 보았다. 또한 그 自体 絕對的인 理性은 精神의 그러한 不斷한 生成進行으로서의 實在, 곧 統一된 實在全體에 對한 認識을 가질 수 있다고 評價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實在은 分明히 精神의 發展이요 展開이므로 그 本質上 理性的인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結局 이 實在은 人間의 理性—單純한 認識의 道具가 아닌 그 自体 絕對者인 理性의 一部가 되고 있는 理性—에 依하여 把握될 수 있기 때문이다. 因로 現象과 本體間的 모든 區分도 그러한 精神의 發展으로서의 實在 가운데 根原이 있음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그 가운데서 結合을 보아야만 한다. 이에 理性의 舞臺는 宇宙요 그 季節은 곧 永遠이다. 이 永遠의 思想이 哲學으로 꽃필 때 精神은 滿發하여 完全한 自己意識을 成就하며, 完全한 自己發展을 이루게 된다. 헤겔에 依하면 精神이 浸透된 이러한 그의 理性的 宇宙 안에서 美는 理念의 感覺的 發現으로 表現된다. 그에게 있어 理念이란 全體적으로 統一된 具體的 宇宙의 進行이다. 그리고 世界의 이와같은 統一性 即 區別된 規定의 統一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곧 精神이다. 그러므로 精神은 抽象的·

超越的이며 空虛하고 普遍的인 것이 아니라 칸트의 이른바 現象과 本体, 自由와 必然의 統一 即 兩者의 單一한 總和로서 解析되는 精神이다. 해결은 理念의 具體성을 主張하여 理念은 無限한 것이나 同時에 個別的·規定的이라 한다. 따라서 그 理念은 經驗論者가 말하는 觀念과는 다르다. 觀念이란 事物에 對하여 만들어진 表象으로서 人間의 主觀的 意識의 産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클라톤의 이데아(Idea)처럼 超越的인 普遍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具體的 普遍으로서의 理念이라는 것이 해결의 見解이다.

이러한 理念의 感覺的 表現으로서 藝術은 宗教와 哲學과 함께 絶對的 精神의 領域內에 屬하고 있다. 藝術은 精神의 自由가 具現된 形式中의 한 方式이며, 그 가운데 가장 첫 단계의 形式이 된다. 絶對的 精神의 세 領域은 이와 같이 內容의 類似性 때문에 그들의 對象인 絶對者를 意識에 가져다 주는 形式에 依해서만 區別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形式의 區別은 이미 絶對的 精神 스스로의 概念속에서 內在되어 있다. 이러한 精神의 첫 단계는 直觀이다. 그것은 絶對精神의 直接的인 把握이며, 感覺的인 意識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絶對精神의 表象意識이며, 세번째 단계는 絶對精神의 思惟이다. 따라서 藝術이란 絶對精神의 直觀에 依해 認識된 真理意識을 모든 直接的·感覺的인 方式 即 感覺的 形成方式을 통하여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것. 다시 말하여 藝術은 絶對的 理念의 感覺的 表現이다. 그 內容은 理念이요, 形式은 感覺的 精成이다. 그러므로 藝術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이들 內容과 形式의 結合은 必然的이다.

### 3. 表現形式別 藝術의 特質에 대한 小考

#### 가. 時間藝術의 音樂에 對하여

音樂的 藝術作品의 根本的인 特徵은 時間的 進行過程에서 作品의 諸部分의 內面的 滑奏를 통하여 聽者로 하여금 感覺的으로 들을 수 없는 作曲의 統一은 귀로 듣는 소리의 어느 部分에도 있는 것이 아니면서 바로 作曲의 特徵이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事實에 있어 感覺的으로 들을 수 있는 以上의 것, 即 聽覺으로써 들을 수 없는 大次元의 形像을 듣는 바 이 形像이 다름 아닌 音樂作品이며, 樂章이며 소나타이다. 音樂的으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바를 超越한다. 한 樂章에서 나타나는 全体 그 自体는 感覺的으로는 주어질 수 없고, 聽覺的으로도 非實在的이며 또한 演奏를 통해서도 表現되지 않는다. 理由인즉 音樂的으로 들리는 것은 感覺的으로 들리는 바와 別個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感覺的으로 듣는 소리를 통해서 音樂을 듣는 것이다. 感覺的인 音聲은 이것을 듣는 者에게 이 感覺的인 音聲과는 別個의 構造가 나타나게하는 獨特한 透明性을 가지고 있다.

#### 나. 空間藝術의 繪畫에 對하여

彫刻과 繪畫에는 共存하는 바가 두가지 있다. 첫째는 極히 感覺的인 質料이며, 둘째는 人間에게 열려있는 最高의 素材로 向하는 通路이다. 繪畫은 感覺的 視覺의 典型的인 藝術이라는 것, 그리고 繪畫을 그리는 藝術이 되게하는 原因은 그 質料에 있으며 또한 다른 어떠한 藝術分野보다도 感覺的인 點에 集着하며, 或은 멀리 떠나지 않는 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 때문에 畫家는 모든 理念的 觀照에서 언제든지 다시 感覺的인 視覺과 色採로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繪畫가 可視的인 面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것은 일종의 犯罪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繪畫은 이 可視的인 質料로서 人間的이며 精神的인 內容을 表現한다. 繪畫은 亦是 建築과 彫刻에 密接해 있는 性質이기도 한 可視性을 色과 形의 手段으로써 理想化시키는 藝術이라 할 수 있다. 繪畫의 可視性은 建築의 그것과 같이 單純한 量塊가 아니고 彫刻에서와 같이 三次元的 物質的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繪畫은 二次元임에도 우리로 하여금 平面에서 三次元을 理想的으로 입을 수 있도록 誘導해주고 있다. 그러한 繪畫의 手段을 통하여 繪畫은 人間의 모든 感情에 想應하여 그것을 表現할 수 있는 藝術이다. 그러나 낭만적 藝術의 立場에서 볼 때 繪畫은 아직도 完全한 것이 못되어 靜的인 資料的 手段으로 고작해야 精神의 固定된 断面밖에 表現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空間的 形態下에 表現되는 繪畫에 비해 音樂은 主觀的이요 力動的인 時間的 理想性으로 나타난다. 即 그것은 精神속에서의 連續된 契機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제까지의 다른 모든 藝術에 있어서 精神을 表現하는데 負擔과 장애가 되었던 質料과 延長의 手段으로부터 탈피하여 解放될 수 있다.

#### 다. 空間藝術의 建築에 對하여

非表現的인 諸 藝術의 共通點은 純粹한, 그리고 언제든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特定한 質料에 있어서의 形式의 自由로운 遊戲라고 할 수 있다. 이 遊戲는 純粹하게 遊戲 그 自体를 위한 遊戲이지만, 한편 遊戲의 質料에 依하여 制限을 받는다. 이 種類의 藝術은 다만 題材에 대해서만 自由이다. 前述한 音樂은 두가지 方面에서 自由인 것이 分明하지만 그러나 建築은 音樂과 正反對이다. 建築은 美以外的 目的에 服從한다. 그러므로 그런 目的이 없으면 建築은 그 自体가 止揚된다. 生活에 所用되는 그 무엇—그 무엇이 日常的인든 國家的인든 또는 宗教的인든—을 建築하지 않는 建築藝術이라는 것은 장난이요, 空虛이며 無價値한 것이다. 美學의 主要問題는 建築에 있어서도 階層關係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可視的인 實在的인 所與의 背後에 現象하는 2次的인 影象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또한 建築에는 主題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問題를 決定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彫

象이 空間에 둘러싸여 있듯이 建物은 現象하는 時化와 現象하는 生活안에 그 時代의 精神의 背景과 더불어 함께 存在하는 것이다. 建物에는 그 모든것 중의 그 무엇이 나타나서 그 建物의 形式을 채우며 또 生活케 한다. 그러므로 慎重한 觀察者에게는 그 모든 것이 具體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옷은 人間自身이 어떻게 나타나고자 하는가를 表現하는 것이며 또한 自己理解의 表現이다. 그러나 建物은 人間の 가장 親密한 社會生活의 옷이다. 그러므로 建物은 보다 넓은 生活圈에 있어서의 自己理解의 表現이며, 自己意識의 表現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建物은 옷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永久한 未來의 後代를 爲하여 建立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自己意識의 強力한 表現物的 性格을 띄게 된다. 따라서 歷史的인 民族精神과 時代性은 記念物이 아닌 建築에서도 뚜렷하게 表現될 수 있는 바, 특히 그 時代의 目標·所願·理念이 여기에 나타난다. 한편 어느 時代의 理念은 그 時代의 記念建物에서 특히 印象적으로 表現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建築에는 建築樣式이라는 것이 있으며, 建築에서 처럼 樣式이라는 契機가 支配的인 役割을 하는 藝術은 거의 없다. 그 理由는 建築이 가진바 利用契機와 目的 契機에 있다. 人間이면 누구나 모두 詩를 짓고 그림을 그릴 必要는 없지만, 누구나를 막론하고 雨露를 피하기 爲하여 집을 지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렇다면 그는 藝術家가 아니라도 집을 지어야 하므로 平均的인 建築家는 藝術家가 아니다. 이러한 建築家는 다른 사람이 집을 짓듯이 집을 지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平均的인 建築家는 建築樣式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이 活潑한 時代에는 사람들이 그 時代의 建築樣式에 사로잡힌다. 이로 보아도 建築樣式은 언제나 時代現象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建築이 樣式化하는 것, 即 藝術의 樣式化는 創造的인 藝術活動을 저해하는 結果가 된다.

#### 4. 結 論

藝術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對한 考察은 百人千態로 多樣하다. 藝術의 發生은 實用性과 經濟性의 巧利心에서 이룩되었으면서도 이것을 製作하는 사람의 社會的 環境性의 如何로 그 作品이 달라진다고 한다. 即 精神的인 遺傳性과 素質性에 社會的인 環境性과 經驗性을 結合시킴으로써 進化된 自己完成을 表出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自己完成의 表出로서의 藝術은 作家의 技能的인 能力뿐만 아니라 精神的인 活動이 결합하여지므로써 비로소 外化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精神的 活動이란 事物에 對한 한 人間의 直觀的인 美的 理念을 誘發하는 狀態를 말하고, 이 直觀的인 美的 理念이란 곧 獨創性을 뜻한다. 여기에서의 獨創性이란 새로운 美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음을 말하며, 이 새로운 美란 物體의 個體的인 性質이 아니라 自己의 主觀에 따라서 意識되는 事物의 性質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自然美와 區別된다. 뿐만아니라, 自然美란 自己의 마음에 어리는 以外의 美의 價值性을 뜻하는 것이므로, 藝術이란 結局 그것과 一致되도록 客觀的인 形象으로 表現하는 結果이다. 따라서 그러한 美의 價值性을 客觀的인 形象으로 表現했다 하더라도 美以外의 價值性—宗教, 道德 倫理性—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例로서 어떤 特殊한 對象의 宗教性이 그대로 藝術性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또한 藝術性의 價值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므로 美의 價值性을 美以外의 다른 價值性과 混同하지 않고 그 純粹性을 維持하면서 藝術化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점에서 藝術이 美的 價值만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美的인 것이 반드시 藝術도 된다는 것 또한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藝術과 美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結論적으로 藝術이란 美를 理想으로 삼고 自然을 完成하는 것이다. 또한 톨스토이의 말과같이 藝術의 使命이란 議論으로써는 도저히 同化할 수 없는 그 무엇을 同化시킬 수 있는 行爲이며 人間을 즐겁게 하는 形式을 만드는 試圖이다. (\* )

製 品 案 內

알미늄 샷터      파이프 샷터

大韓非鉄販売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76-2      전화 : 445-2932

# “建築士界의 意識構造”

慶北支部核心淨化委員 金重培

建築士界의 淨化問題는 昨今을 通하여 實際的인 現況을 감안하여 볼 때 地국히 難題中의 宿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近者 淨化運動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汎國民運動으로 國家 百年大計를 위한 國民意識構造의 革命으로 그 事業目的을 昇華시키고 있는 現시점에서 社會의 一角이라고는 하나 우리 建築士界가 예외일 수 없고 同參하는 자체에 合理性을 강구하여 是正의 結果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우선 建築士界에서 추방시켜야 할 尙先은 似而非建築士의 羣포다. 事實상 建築士界의 病的인 存在로 알려지고 있는 免許貸與, 名義貸與, 二重職開設者, 드래기 建築士들의 志操없는 行弊, 地域的으로 建築士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시찰인물들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면허대여 및 명의대여등의 行爲는 建築士로서 自己能力이 限界線에 도달했다는 소치가 아닐 수 없고 二重職으로 事務所를 開設하고 있는 일부 회원의 行爲는 知能計數에서 알약한 눈치 노름으로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드래기 建築士란 지방적인 경기를 따라 法을 濫用하면서 까지 既設者들의 理解나 謙解도 없이 事務所를 開設하는 가 하면 第三者에게 雇用되어 就業形式을 取하고 月給契約으로 免許貸與를 자행하는者, 事實上 이러한 기형상이 발생함으로써 무모한 텅핑행위가 고개를 들게 되고 設計作品이 業界의 秩序를 破壞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良識있는 建築士라면 이러한 底質的인 처신은 취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建築士라는 名分을 갖고 公사간에 無분별한 생활태도는 자체에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建築士가 밀집되어있는 대도시에

서는 잘 浮刻되지 않으나 중소도시 및 군단위에서는 建築士의 數字로보아 公私間의 生活態度가 齷齪하다 고 평가됐을 경우에는 자신보다 同僚建築士의 名譽까지를 損傷 시키는 行爲, 이러한 파면치한 行爲로 말미암아 業界의 秩序를 어지럽히고 있는 似而非建築士들은 應分의 指彈과 아울러 強硬한 膺懲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建築士는 建築人이기 前에 公人으로서 待遇를 받을 수 있는 特殊法人의 한사람이기에 더욱 더 처신을 조심해야하고 知性人으로서 의 生活風土가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事實상의 問題는 비단 그 責任이 該當人士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慎重히 돌이켜보면 오늘날까지 建築士界의 意識構造가 虛實面에서 제대로 調整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다. 建築士法이 公布된지 어인 16여년이나 된다. 1963年 12月 16日 字法律 第1536號로 公布施行한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建築士界가 걸어온 발자취를 回顧하여보면 寔로 과반만장한 기복성쇠가 허다했거니와 오늘날 國家版圖에서 보여주고있는 國民들의 住居生活環境과 公共建物の 復旧 및 發展的인 環境建築相은 刮目하리만치 長足の 發展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이러한 作品版圖가운데는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創造的인 位置에서 建築本質을 追究하려는 建築士의 作品과 似而非들의 海賊作品등이 그 例로서 다시말해서 代作作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多角的인 面으로 볼때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筆者의 小見을 板展해 본다면 建築士界의 意識構造面의 改善은 科學的인 側面에서 診斷이 要請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漸進的인 改善이란 用語들을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 우리 建築士界는 果斷性있는 強力實踐만이 時間的으로 短縮되는 淨化의 改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듯 않고서는 淨化란 山頭禪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百年河清格으로 龍頭蛇尾가 되기쉽고 淨化를 先唱하는 實踐者는 拙善의 愚를 犯하기 쉽기 때문에 慎重한 資料分析에서 細審한 計劃과 対応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恒次 建築士界를 말해서 걸보기보다 미약한 業界라고 한다. 그러나 士法 團體中에서 大體的으로 重原性을 認定하기로서는 建築士試驗의 多壯的인 試驗科目의 어려움을 認定하기에 그 資格的인 次元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러한데도 不拘하고 一部 물지각한 似而非建築士들의 妄動으로 하여금 全體 建築士들의 體面에 격될 을 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建築士 本然의 品位와 資質을 食言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対応策이란 淨化라는 名分있는 名의 次元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大義의 呼訴를 끝끝내 點敎하고 似而非行脚을 固執한다면 이는 面駁을 무릅쓰고 서라도 斯平한 措置가 示範的인 判例로 膺懲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当代의 問題가 아니고 國家的인 次元에서 볼때 그 나라의 文化의 尺度를 評價할 때는 古代는 古代대로 現代는 現代대로 空間藝術의 複合的인 造形創作의 求心的인 建築藝術을 讚美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建築士들은 一沫의 良識이 있다면 차게에 淨化事業目的에 快히 同參하여 建築士界의 風土를 總和團結하는 前進의 風土를 다같이 힘을 모아 建設하자는데 그 뜻을 解明해 보고자 한다. (\* )

※ 似而非建築士는 良識에 呼訴하여 本然의 姿勢로 /

# 建築探究의 姿勢

李 甲 造

(京畿大學 建築工學科 教授)

## 1. 序論

『What is Architecture?』하는 질문은 통상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강의실에서提起되는 문제이긴 하나 오랜기간 건축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때의 기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상상된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자유스러운 건축교육을 이수하였으나 現實的인 업무속에서 이런 교육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분업화된 사회구조속에서 맡겨진 적산이든지, 또는 구조든지, 음향이든지, 설비든지하는 특정부분의 문제해결에도 끊임없이 시달리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哲學的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성은 어떠한 일상생활에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창작이라는 대의 명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rchitectural activity는 크기는 건축행정조직 설계회사로부터 적게는 가능공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아파트업자, 집장사에 이르기 까지 방대하고 다방면한 조직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他 사회현상과도 마찬가지로 건축현상도 여러가지의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건축활동이나 건축가像도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오늘날은 우선 일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고도의 두뇌를 요구하며 규모가 방대하고 선진기술이 월등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은 많은데 이에 더불어 변화속도가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감히 오늘날의 문제 성격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건축방향과 건축인으로써의 탐구자세등을 가다듬어 보고져 한다.

너무 멀리 잡은 目標은 實現이 불가능해 질 수 있지만 너무나 短見도 역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켜 일을 악순환속에 머물도록 한다.

어떤 정도의 目標이던지 간에 本人이 어떠한 전문분야에 관계되든지 좀더 높은次元에서 일치되는 建築의 方向과 探究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展開하려고 하는 글의 內容이 理論에만 강한 것이 될지라

도 오히려 현시점에서라면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2. 建築의 機能

有史 이래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터득된 경험들은 建築을 美的, 構造的, 機能的인 3 요소속에서 찾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건축은 個別的으로 위 3 요소보다는 美的, 構造的인 主안점에서 각 시대의 style 위주로 전개되었고 근대 산업혁명 이후 人本主義에 입각한 기능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며 19C의 master builder에 의해서 이러한 3 Category에 입각한 현대건축의 方向도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형 및 의장상 또는 構造工法상 건축의 획기적인 변화도 이룩되었다.

機能에 관련해서 한 동안 Greenough의 말을 인용한 Louis Sullivan의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말은 각국의 건축학도에게 appeal한 말이 되었고 초기의 선각자들을 模倣하는 건축물이 세계 각국에 앞을 다투어 들어섰다.

Client로부터 주문받은 업무를 고쳐어린 궁리끝에 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과 사람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러한 중대한 임무가 강조된 나머지 Client로부터 project가 시작되나 그의 잔소리는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 둘 사이에는 아이러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어왔다.

그러나 점차로 社會 自体가 그러하듯이 分業化 專門化의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건축가와 Client의 관계는 건축조직과 社會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그 상호작용도 과거와는 달리 넓은 면에서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建築人은 작으나마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양도 받아 건축창작인으로써의 역할도 이러한 전반적인 건축對 社會의 작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하나의 條件에 대한 각 Art architect의 창작적 解決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個別的인 解決에는 全體的인 統制와 均衡의 觀點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理由에서 건축창작은 여러가지 형태로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준비가 充分히 갖추어져 있지못한 건축인

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선 건축물이 대형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분야가 방대해 졌으며 Computer의 등장으로 여러가지 routine한 작업을 정확하게 짧은 기간동안에 代行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次元높은 탐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작업의 방대성은 1大家의 머리로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각 분야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또 이 결과도 여러단계의 總括的인 觀點에 입각한 통제와 수정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한 project가 주는 Social impact가 Art architect 혼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는 狀況에 이르렀다.

따라서 最近 外國에서는 Architectural activity를 『사회학상의 한 現象』으로 다루는 方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社会学分野에서는 건축이란 the shaping of mans habit이며 habit란 人間이 사는 environment로써 空間이 바뀌면 人間の 性格이나 行動도 변하고 이러한 변화된 way of living은 form of the house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간에 mirror and mould one another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즉 fabric of house (Architecture)와 character of family organization (institution)은 Society를 이루고 人間과 사회조직 및 환경은 상호 integrating system 을 이룬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건축인이 藝術性이나 style에만 치중하여 노력해 온 나머지 그 결과가 증명해 주듯이 現代社會의 非人間化현상도 말로는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Form and space is not Architecture. Architecture occurs only when there is person to Experience it』라고는 이러한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다.

건축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과학쪽의 할일이 많긴 하지만 과학적 활동은 아니다. 또 건축가는 technologist도 아니다.

건축작품의 실현은 社會의 공동적인 승인의 배경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他 예술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layman은 Architectural work에는 관심이 있지만 Architectural idea나 thought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건축가는 어떻게 가용한 능력과 社會의 이해로써 human need를 充足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 관련하여 한 個人의 mannerism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회를 담는 용기』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공동노력에 의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디자인과 建築環境

현실적으로 어떤 분야의 位置를 알려면 좀 멀찌기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

건축가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줄이거나 늘려서도 안되며 결점을 수긍하고 전체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축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장사의 집은 건축의 영역에서 除外될 수는 없는 것이다. Art Architect가 조그만 양화점의 decorative fashion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집장수들은 이미 전체 시가지를 조잡한 건물들로 꽂 채워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社會적인 役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몇몇 건축사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大衆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方向으로 이끄는 노력을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대중사회에서 아만 올바른 것도 호응 내지 동조하는 세력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히 건축의 social impact는 직접적이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또한 건축에 관련된 技術人이나 Designer는 활동의 제약이나 社會적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자체의 이론적인 배경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理論은 經驗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긴 하나 이것이 記錄과 分類의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며 건축수업이 技術로서 Apprenticeship에 의해 체원적으로 터득되어 왔고 항상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理論的인 確立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점차로 他 分野보다도 더욱 방대한 영역이 統合되는 곳으로서 이들의 control이나 Coordination에 관한 methodology나 thought가 필요하다.

불론 기본적으로 toudig technique나 Rendering 技法, Drawing속씨등 숙달을 요하는 면도 중요하나 이러한 기술의 mannerism이 아닌 각종 가용한 科學, 工學기술의 이해, 등 이러한 것들을 구사하여 건축의 方向을 찾아가는 次元높은 건축철학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40년대 인류의 지식을 1cm에 비유할 때 1960년대의 지식은 5cm에 해당한다는 말은 건축적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技術과 能力을 구사하기 위한 哲學的 배경은 또한 따라서 원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건축이 한 건축물의 美術的인 解決을 벗어나서 社會의 한 현상으로서 파악되고 건축가들은 社會科學, 自然科學, 藝術哲學으로부터 유도되는 思想의 patten을 형상화하고 이것을 具體的으로 엮는 form giver로서 결손한 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人間事에서 실수없는 발전이란 물론

있을 수 없으나 자신이 가지는 見解를 진리라고 생각할때 자만이 시작되며 발전이 정지되는 것 같다.

여러 도시의 경우 이러한 연유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個人건축가에 의한 建築作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수정하고 方向을 잡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建築士들에게는 建築人의 個性과 創作活動을 막는 靑靑의 靑靑이라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本人은 이것은 현상에서 건축의 전반적인 통제와 조정을 기하는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個性을 표방하는 크고 작은 설계작품들이 齟齬난방式으로 얼룩덜룩 도시를 뒤덮을 때 각 건축작가의 창작의욕과 도취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들은 중요한 피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design환경은 개인보다는 teamwork으로 단일건물보다는 전체 도시적 Community적인 관점에서 함께 調和될 수 있는 方向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축에 연관된 모든 사회조직은 높은 次元의 協助와 방향추구가 共感되는 方向으로의 努力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4. 韓國建築의 課題

오늘날 우리나라의 建築的 現實은 오랜 東洋的 建築思想에 의한 建築活動이 이미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고적과 유물이 되어 버리고 짧은 기간동안의 西歐건축의 탐욕스러운 도입은 西洋精神을 充分히 理解하고 우리의 기존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보태어 지는 方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建築活動이 당대의 困力이나 郡力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日人에 의해 도입된 서양식 건축이 순조로운 정착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잃은 채로 8.15와 6.25 동란등의 격변으로 엄청난 수요를 단 시일내에 채워야 했기 때문에 역시 정상적인 발전이 어려웠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만 했을때는 근본적으로 건축사 자격고시 자체에서부터 많은 시비와 모순을 안고 창작업무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던 중 5.16이후 우리 주변에 대형화된 건축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비로써 “건축”이라는 title을 붙일만한 건물이 점차로 늘어가게 되면서 한국건축의 傳統에 관한 논란도 한때 심심찮게 논의되었고 강남일대의 개발로 부동산투기, 아파트프리미엄사건,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사업, 해외건설경기로 인한 국내 건설노임폭등, 일반 건설회사의 기술축척등 업치락 뒤치락 혼란과 非理의 틈바구니속을 비집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건축을 논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작품도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 몇년전 부터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뒤늦었지만 “건축의 人間化”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발달리며 터득되어 온 기성 건축인의 경험도 중요하나 이미 체계적인 탐구의 과정을 충분히 밟아 온 것이 아니고 또한 탐구의 노력이 한 세대에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를 가능케 하는 social institution의 정비와 일반대중에 대한 건축의 인식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건축인의 손에 의해 모든 건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직공무원이 일시에 대량으로 처벌을 받거나 건축사가 수시로 회생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대우가 건축인들에게 가혹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나 동기가 건축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올수도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창작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사협회와 건축위원회의 대학교수에 대한 반감, 대학교수의 창작가담의 반대등 대학인에 대한 경원도 올바른 건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올바른 건축풍토의 사상적인 형성은 대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84개 대학중 건축과가 있는 학교가 36개교이며(이중 17개교는 서울 경기 일원에 소재함) 1년에 졸업하는 학생수는 3,070명이나 된다. 방대한 건축의 과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반건축풍토의 개선과 더불어 건축학도의 꾸준하고 바른 건축탐구의 방향을 마련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로 대학건축교육에 주안점을 두고(일반건축 탐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의 체계적인 탐구의 자세나 방법에 관해 장을 바꾸어 기술해 보겠다.

#### 5. 建築의 探究姿勢

건축의 탐구는 이미 시작한지가 오래이지만 다양하고 방대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다양하고 상반된 지식들 속에서 자신이 소화하고 이러한 方向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ploring Architecture에 필요한 two linked process를 duplication과 discovery로 区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대개 duplication은 주로 기본학습에서 강조가 되는 방법이고 discovery는 고급학습에서 강조가 되는 것인데, 전자는 process보다 product of learning을 강조하고 후자는 underlying principle을 강조한다. 많은 learning situation에서 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들이 상호 연관성이 없이 fragmental한 상태에 있을 때 이들

duplicated knowledge는 쓸기없이 잘라낸 가지더미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비록 작더라도 相互연계를 가지고 뿌리와 줄기를 가져 骨格을 형성했을때 이것을 바탕으로 discovery의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건축도 duplicated fact와 knowledge를 근거로 하여 理論이 형성되거나 이것의 의의는 근본적으로 continual voyage of discovery에 있고, 또한 대학기관으로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크고 작은 건축에 관련된 지식들은 또는 他人의 비판등은 자신의 努力에 方向을 잡아주는 지도나 이정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Voyage는 건축학도 자신의 것이고 이러한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낸 方法이 바로 個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frame-work는 건축가로서의 성격과 장래를 결정하는 근간을 이룰 것이다.

독단적인 조언자의 강요나 강제적이고 과중한 과업의 중요로 인한 획일화는 좋은 方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他 分野와는 달리 Career development를 요하기 때문에 장래 건축에 대한 方向이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건축학도가 가지는 個性과 素質을 최대한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方向이 되어야 한다.

Voyage of architectural discovery를 수행하는 좋은 方法의 하나가 우선 현존하는 많은 human institution 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한 institution의 현재기능, 목적 또다른 institution과의 관련성, 더 큰 효과를 위해 필요한 기능, human efficiency를 위해 요구되는 환경특성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축의 시도는 바로 社会 文化 物理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의 性格을 벗기는 수단이기도 하며 이러한 real-life situation의 연구과정에서 architectural investigation과 decision-taking에 관련된 많은 자료와 지식을 얻게 된다. 여기서 얻어지는 Factual information, Technical and intellectual skills, Social contact skills, personal understanding들이

절차로 쌓임에 따라 좀더 높은 차원의 Architectural decision taking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건축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아래의 3가지로 요약되는 임무를 가질 것이다.

즉 첫째로 인간의 개체적, 사회 공간 환경적 need를 이해함으로써 human institution을 이해하고

둘째로 이러한 need에 대한 technological Capacity를 인식,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세째로 Creative response로 이need에 대한 성격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6.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로 건축은 다만 美, 構造, 機能의 3대 category만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일반사회와 한 현상으로써 이해되어야 하고 사회와 더불어 integrating system을 이루어 상호 mirror and mould one another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건물의 해결 못지 않게 Overall한 View point를 갖는 거시적인 취급의 중요성을 느끼며

둘째로 이러한 이유로 total cooperative effort의 중요성과 multi disciplinary한 team work가 강조되며

세째로 이 모든 architectural activity가 human need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게 superimpersonalizing하지 않고 인간의 생리적 육체적으로 적합한 척도체계를 가져야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축의 탐구는 실수없이 얻어질 수는 없으나 duplicated fact and knowledge를 바탕으로 하는 continual voyage of discovery 즉 평생을 통한 common search for apt solution에 의해서 성숙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본인의 각오이기도 한 이 글이 공감되고 건축을 추구하는 동, 후학에게 자세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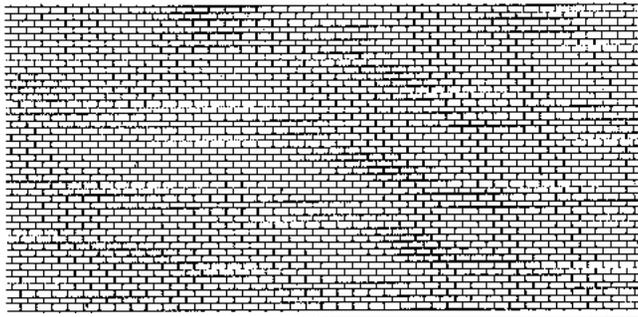
### 新刊書籍紹介

## 太 陽 熱 暖 房 設 計

訳編者 車宗熙 柳濟仁 金恩一

發行人 柳濟東 發行所 教文社

서울 종로구 당주동 15-3 TEL 724-0500, 725-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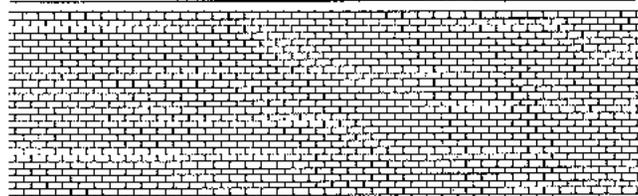
## 国民주택建設用택지 면세

政府는 住宅公社가 国民住宅用으로 確保한 宅地등 不動産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繼續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등의 地方稅를 免除해줄 方針이다.

9일 關係当局에 의하면 이같은 方針은 最近의 經濟長官會議에서 關係部処間에 合意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現在 住宅公社에 国民住宅建設用 不動産에 대한 各種 地方稅의 免除를 規定하고 있는 租稅減免規制法의 改正으로 이같은 規定事項이 明年부터 地方稅法으로 移管되더라도 專用面積 25.7坪 以下の 国民住宅建設用 不動産에 대해서는 現行과 같이 各種 地方稅가 免除될 予定이다. 內務部는 한때 住宅公社의 不動産에 대해서도 地方稅額의 50%程度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했었으나 이같은 方案이 庶民住宅의 價格上昇을 부채질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 關係処間의 最終協議過程에서 免稅措置를 한 것이다.

## 月間 建築情報



## 경기綜合지수 動向 발표

夏閑期에도 不拘하고 産業生産·出荷·製造業 稼働率 등이 緩慢하기는 하지만 增加趨勢를 보여 昨年 9월以後 景氣는 繼續해서 回復勢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經濟企劃院이 發表한 景氣綜合指數動向에 의하면 지난 8월 중 景氣趨勢는 個別指標인 서울 都売指數가 전달에 비해 1.4%, 産業生産指數 0.9%, 生産出荷指數 8.8%, 製造業稼働率指數 0.1%, 등이 增加한데 힘입어 先行綜合指數가 전달에 비해 0.5%增加, 景氣가 繼續해서 回復되고 있음을 反映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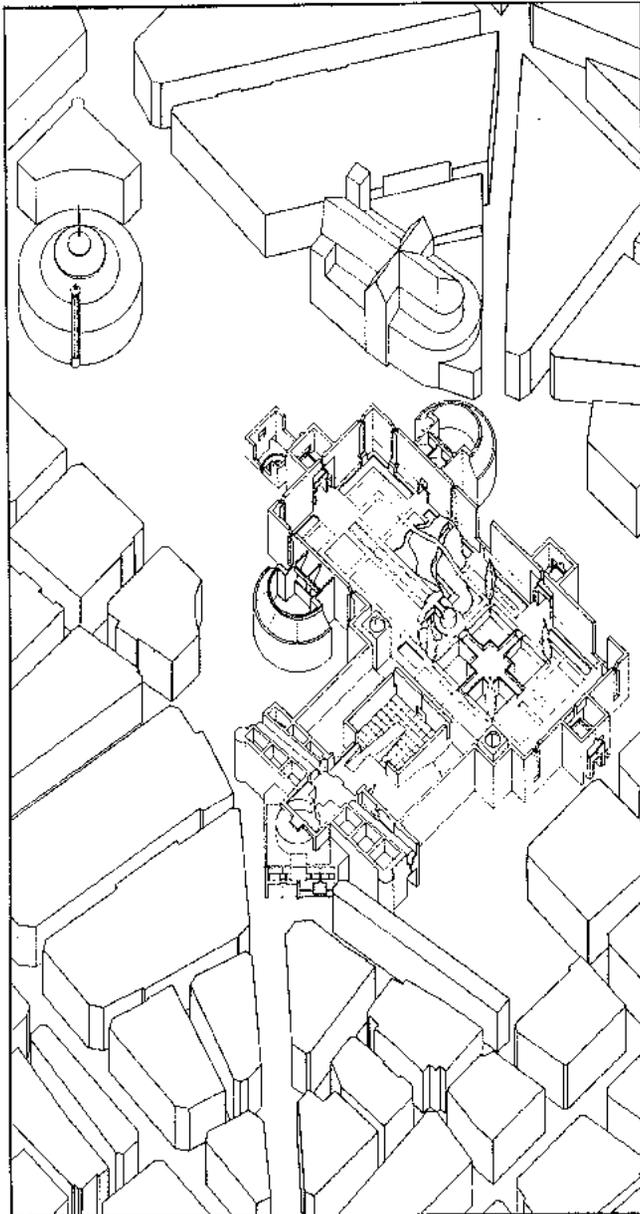
그러나 昨年 6월以後 繼續해서 오름勢가 繼續했던 先行綜合指數는 機械指數 4.9%, 信用狀來到額 1.5%가 增加했으나 綜合株價指數 7.9%, 建築許可面積 5.1% 등이 줄어든 탓으로 前월에 비해 0.7%가 減少했다.

## 開浦·可樂洞에 市營아파트 建立

서울市는 올해 建立키로 한 市營아파트 2차分 3천家口의 立地를 江南區 開浦區劃整理地區와 江東區 可樂區劃整理地區로 確定, 2천300家口分은 올해 안으로 開浦地區에 着工하고 나머지 700家口分은 明年 上半期中 可樂地區에 짓기로 했다.

市는 当初 開浦地區에 6만坪의 敷地를 마련, 3천家口를 모두 지을 予定이었으나 確保可能한 敷地가 4만여坪 밖에 안돼 開浦地區와 可樂地區에 分散 建立키로 한 것이다.

市는 이에 맞춰 現在 基本設計作業이 進行中인 開浦區劃整理事業을 서두르기로 했다. 開浦地區와 可樂地區에 지어질 市營아파트의 坪型은 7, 10, 13, 15坪 등 4가지 坪型別로 混合 建立된다. 한편 市는 지난 7월 可樂地區에 着工한 1차 3천家口分을 10월中에 分讓하기로 했다.



## 可樂지구 226만坪 開發計劃確定

서울시는 올림픽競技場 敷地가 確保돼 있는 江東구 可樂地區 一帶 226만坪에 대한 新市街地造成計劃을 確定 올해 안의 設計를 끝내고 明年부터 本格的인 區劃整理事業에 着手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良才 開浦地區 240여만坪의 開發計劃이 確定된데 이어 두번째로 이번 新市街地開發計劃이 確定됐는데 서울시는 오는 85년까지 可樂地區 區劃整理事業을 끝내 올림픽開催에 앞서 周辺都市環境을 새롭게 다듬기로 했다.

이計劃에 의하면 서울시는 △開發地區中 48~50% 를 人口 12만規模의 宅地로 確保하며 △都心撤去移住民 集團 地域인 巨餘·馬川동 周辺の 落後地域에 대한 開發促進 △周辺地域住民의 僱傭機會賦与를 爲한 都市型 生産基盤 造成 △國立競技場의 서비스 機能賦与 △學校敷地와 公共施設 녹지공간의 充分한 確保등을 基本개발방향으로 정하고 都市計劃에 따른 示範的인 신시가지를 造成키로 했다. 細部的인 開發計劃은 가로수의 경우 松坡大路 천호 및 잠실지구와 연결되는 폭 25~70m의 7개 幹線道路 14.2km를 새로 뚫고 이에 따른 블록으로 주구단위를 형성키로 했다.

## 明年에 國民주택 10만戶建立

政府는 明年 無住宅 庶民을 爲해 總10만戶의 國民住宅을 建立할 計劃이다.

建設部에 의하면 庶民層의 住宅難 解消를 爲해 明年度 國民住宅建設目標을 8만戶보다 2만戶를 더 늘려 策定했다.

建設部의 이같은 計劃은 住宅公事에서 5만戶를 짓고 地方自治團體에서 3만5천戶 國家機關등에서 1만2천戶를 建設한다는것.

明年에 建設된 住宅은 一般住宅 13만戶를 包含 27만戶가 되는 셈인데 이를위해 土地開發會社와 住宅公社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모두 420만坪의 宅地를 開發供給할 方針이다.

한편 建設部는 公共住宅 10만戶 建設을 爲한 金으로 390억원을 出捐하기로 했다.

## 市庁앞등 廣場예정地區선정

井州市는 10군데 地域을 廣場予定地區로 選定하고 82年 都市計劃 再整備에 反映할 것으로 알려졌다. 井州市의 現在 都市計劃圖面에는 大部分 廣場地域의 경우 三角形으로 그려져 있어 事實上 实用性이 전혀 없으며 中心地域外部에 마련돼 造成場을 3천500坪으로 늘려 內藏山 國立公園 觀光客을 收容하고 都市 休息空間을 確保할 方針이다.

또한 市閘門인 인터체인지 進入道路와 內藏山川邊을 造

成할 計劃이며 市內에서 內藏으로 進入하는 道路와 內藏 川邊道路와 만나는 地点(現 內藏삼거리)에도 3천坪規模의 上洞廣場을 마련할 方針이다.

## 新設校신축 候補地 確定

서울시는 初·中·高校의 過密學級 解消를 爲해 그동안 物色해 온 學校新築 候補地를 이달중에 都市計劃 審査委員會에 올려 最終 確定지를 計劃이다.

서울市가 物色해 놓은 學校新築 候補地는 總 451개校分 190余만坪으로 이중 그린벨트 公園 綠地地區로 開發이 制限된 地域敷地가 60余만坪(130개校分)이 包含돼 있다.

따라서 開發制限地域에 대한 特別措置가 없는 限 實際確保 可能한 學校新築 敷地는 320개 校分인 130余만坪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보여 當初計劃보다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市가 學校新設候補地로 物色해 놓은 敷地를 各地域別로 보면 江西區 및 江東區가 40여개校로 가장 많고 中區와 鍾路區는 2~3개校 뿐이다.

## 國民住宅基金융자條件확정

建設部는 15坪이하 共同住宅에 家口당 600만원까지 融資해주기로 했다.

建設部는 國民住宅基金 融資金의 種類別融資條件 및 償還方法을 確定 共同住宅의 融資限度를 專用面積 7坪以下가 家口당 320만원등으로 하고 今年度 事業分부터 適用키로 했다.

單獨住宅은 300만원으로 定했는데 15坪이하일 때 年15% 15坪以上일때는 年18%이며 1年居償 19년償還으로 月單位 遞減式으로 돼있다.

또한 光州關제 2次 IBRD借款事業에 관한 支援資金으로 建立된 住宅의 融資限度는 住宅價格의 約50%로 年18%에 3年居償 12년 元金均等割賦償還으로 돼있다.

## 등두천시에 새 도로개설

京畿道 東豆川市는 지난 10월 1일부터 今年末까지 大統領特別 支援事業金 2억원을 들여 生淵3동 화교국민학교 앞에서부터 生淵4동까지 總延長 510m幅 10m의 道路를 開設키로 했다.

이 地域은 1만여명의 住民들이 살고 있으나 道路가 없어 오랜 宿願事業이 되어왔던 곳으로 이 道路가 完工되면 1km程度 돌아서 다니던 住民들의 不便을 덜게되며 市街地 中心地開發에 寄与하게 된다.

## 下水道정화處理시설 義務化

일정인구이상 住居地域에는 生活下水道 淨化處理施設을

義務化하게 된다.

環境庁이 마련한 汚物清掃法改正案에 의하면 아파트등 大單位 集團住居地域에 生活下水道가 淨化處理 施設을 貯放流되도록 한다는것.

이와 함께 糞尿를 効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해 現在 單一化돼 있는 液体廢棄物淨化槽設置規程을 糞尿淨化槽와 汚水淨化槽施設로 分離, 水質汚染을 原則적으로 줄이게 됐다.

이 改正法案은 또 現在 登錄制로 돼있는 糞尿淨化槽清掃業을 汚物處理業에 一括包含시켜 許可를 받도록 要件을 強化하는 한편 淨化槽製造業과 設計, 施工을 分離하여 製造業단은 登錄制로 했다.

그런데 生活水水道淨化施設은 1次的으로 아파트 団地에 適用하고 漸次 이를 擴大, 一定人口以上地域에도 設置 하도록 했다.

### 地下鉄 2 호선車輛기지 建設인가

서울市는 地下鉄 2号線 제 2車輛基地(車庫) 및 引込線 建設工事に 대한 都市計劃事業(高速鐵道附帶施設) 實施計劃을 10일字로 認可告示했다.

이 事業의 施行位置는 △江西區 新亭洞 132, 215, 249 一帶 △九老區 新道林洞 322, 330, 344 一帶 △九老區 高尺洞 31 一帶 등으로 幅10m~20m, 延長 2천250m의 引込線과 面積 25만 8천577㎡(7 만 8 천220坪)의 車庫를 오는 86년 12월30일까지 完工토록 돼있다.

### 仁川가좌地區 아파트建設

大韓住宅公社는 仁川市 北區 佳佐동 一帶 9 만1 천 397 ㎡ 垓地위에 1 천630世帶分の 아파트를 建設할 計劃이다.

14일 住公에 의하면 今年度 住宅建設事業의 一環으로 施行되는 이 工事は 總事業費 171억 3천525만 4천원을 投入하여 34㎡規模 190戶分을 비롯 41㎡規模 790戶50㎡規模 650戶를 오는 82년 8월31일까지 建設키로 計劃하고 있다.

住公은 建設部로부터 實施計劃承認을 얻음으로써 設計 作成과 함께 施行節次를 밟고 있어 곧 調達庁에 契約代行業을 要請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아파트 建設事業은 地上 5層 規模로 建設되는데 시멘트와 鉄筋등 主要資料는 全量 住公側이 官給키로 하고 있다.

### 奉天洞 가압장 年内착공

서울市는 冠岳區 奉天9동 國會團地와 奉天木동 등 2 개所에 設置된 加圧場을 奉天동 494-一帶에 옮겨 擴張하는 奉天洞統合加圧場設置工事を 올해 안에 着工, 奉天9동 國會團地와 奉天木동 私設加圧場地域 奉天 2, 3, 5동 地域등의 給水離을 解消키로 했다.

總 10余억원의 事業費中 1차로 土地補償費등 1억 2천 만원들어 着工, 明年까지 마무리될 이번 事業은 200坪의 垓地에 400馬力짜리 모터펌프 3台와 吸取井500㎡등을 設置하고 直徑 150~500mm 자리 送·配水管 5.6km를 새로뚫는 것이다.

### 濟州에 첫 地下광장착공

濟州도에도 처음으로 地下広場과 地下道가 建設된다. 濟州市에는 14일 民資 75억원을 誘致 濟州市 東門 中央 光陽등 3개 로터리에 地下広場을 그리고 觀德路 200m區間에 地下道를 設置하기 위한 計劃을 마련 都市計劃法에 의한 施設決定을 道에 依賴했다.

이 計劃에 의하면 3개로터리에 地下広場 1만 1천 318 ㎡를 만들어 이중 52%를 商街敷地로 活用하고 觀德路200 m區間에 地下道 3천476㎡를 建設 이중 26.3%를 商街敷地로 마련한다는것.

濟州시는 이 공사를 오는 82년에 着工 85년에 竣工할計劃인데 이 공사로 光陽로터리등 3개所에는 오래전부터在 日僑胞가 投資를 希望해오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온양에 도시공원개발

溫陽읍의 방축리所在 南山과 神井湖遊園地가 오는 93년 까지 都市公園으로 開發되게 됐다.

牙山군에 의하면 溫陽읍 방축리所在 神井湖遊園地와 南山등 總 121만 7천132坪이 公園地域으로 確定돼 民間資本 82억餘원을 들여 오는 83年度부터 10개年計劃으로 開發하기 始作 오는 93年度까지 道路網開設과 登山路, 上下水道 広場등을 設置하여 都市公園으로 造成케 된다는것.

이 公園에는 靑少年의 自然에 대한 理解와 住民의 心身 鍛鍊을 위해 綜合運動場, 室內體育館, 弓術場, 테니스코트·풀場 小型運動場, 배구 농구施設하고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실내오락실, 도서관, 과학실, 야외음악당을 設置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公園과 老人을 위한 慰樂施設을 갖추게 된다.

또 食堂 및 売店 駐車場施設 休憩所設置 展望台 八角亭 등을 施設하여 溫陽地方을 찾아온 觀光客을 위한 各種 遊樂施設을 갖추므로서 各美共好 都市近郊公園으로 開發한다.

이에 따라 公園地域内에서는 各種施設物이나 建築物에 대해 規制되고 있다.

### 住宅보험貸出기준 大幅완화

財務部는 庶民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住宅保險의 貸出基準을 緩和 保險加入者가 住宅을 買入한 후 1年以内, 새로 집을 지은후 3年 以内에는 住宅資金의 貸出을 許容키로 했다.

財務部に 의하면 現行 住宅保險의 貸出對象은 加入者가 집을 산후 6개월 以上이 되거나 新築한 후 1년이 지나면 모두 貸出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를 各 1년과 3년으로 延長함으로써 加入者들의 便宜을 圖謀키로했다.

6개월 生命保險会社에서 실시하고 있는 住宅保險의 貸出限度는 1천만원이며 加入者가 中途에 死亡하면 保險料 納入이 면제 된다.

## 아현·동교동 도로미관지구로

서울市는 西大門區 阿峴洞 284~麻浦區 東橋洞 173사이 2900m 道路兩側 幅 20m를 제 2種 美觀地區로 告示했다.

서울市는 幅 30m의 이 道路가 幅 40m로 都市計劃線이 그어짐에 따라 美觀地區의 位置를 調整하는 한편 幅도 從前의 12m에서 20m로 넓힌 것이다.

2種 美觀地區에서는 垜地最小面積이 100坪以上, 建物 높이는 3층 以上으로 規制를 받고 精肉店, 洗濯所, 鐵物店, 煉炭工場, 製材所 등의 營業은 할 수 없다.

## 인천文化회관 建立부지確保

인천市는 文化會館 建立數地로 仁川市 中區 番洞 18番地의 株式會社 한진 垜地 539坪을 4억 1천 500만원에 買入했다.

會館數地 買入으로 仁川市 文化會館 建立은 明年初에 着工할 計劃인데 이 數地上에 있는 109坪의 建物은 仁川市에 寄附採納했다.

市는 當初 모두 7억 5천 900만원을 들여 數地買入등 會館 建立을 推進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賃地를 마련못해 腐心해 왔었다.

市는 番洞 로터리가 仁川交通 要衝地임을 勘察, 앞으로 仁川人口 200만을 겨냥한 文化의 殿堂이 되도록 寬 設計에 착수할 계획이다.

## 그린벨트 管理 團束강화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의하면 최근 그린벨트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는 낭설이 떠돌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 전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현재 전국주요도시 14개지역 5천 3백 97km<sup>2</sup>(국토의 3.5%)가 지정돼 있으며 10년전에 지정한 이후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다. 그린벨트안에서는 주택 공장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호텔 종교시설의 신축이 금지돼 있으며 주택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 공업단지 조성사업도 못하게 되어있다.

다만 지역내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수차 고쳐 축사 창고, 새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택의 증축 초지조성 취락구조개선사업등은 허가를 받아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 과천에 대형아파트 건설토록

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천 새도시개발 제 2 단계사업부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기준 25평을 초과하는 중산층용 아파트를 함께 지을계획이다.

주공에 따르면 현재 과천새도시개발 계획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만을 짓도록 되어있으나 이럴경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을 감안할때 몇년후에는 과천 새 도시가 영세도시화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처럼 중산층용아파트도 섞어 짓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미 건설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것으로 섞어짓게될 중산층주택규모는 분양면적기준 40평형(전용면적32평안팎)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3 단계로 추진되고있는 과천 새 도시건설사업은 현재 1 단계가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2 단계 83년부터 3 단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 多家口型 단독주택 보급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대문, 부엌, 화장실, 수도등이 완전히 분리된 기준설계도면이 보급된다.

건설부는 주택난해소 방안으로 개인단독주택에 대한 2가구이상의 거주를 권장하기위해 『단독주택의 多居住시설 기준설계』를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독주택에 출입문, 부엌등을 2개이상 만드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규제조항은 없으나 지역에 따라 건축허가절차 과정에서 행정조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철회하면 건축허가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단독주택을 완전히 2가구이상 거주시설로 분리할 경우 단독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 되어 소유주는 1家口 2住宅이되며 이로인해 집을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단독주택에 2가구 거주시설을 했더라도 연립주택과 다른 단독주택으로 정의를 명문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주택난에 따라 집값은 물론 임대보증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이같은 형태의 개인단독주택 임대를 적극 권장. 기준설계대로 다거주시설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자금등의 지원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기로 했다.

## 建築行政相談

### □ 건축법에 관한 사항

- 문 : 동일 대지내 3동인 공장으로 3동의 합계가 1,200 m<sup>2</sup>인데 건축물 유지 관리대상이 됩니까?
- 답 : 법 제 7 조의 3에 연면적이 1,000m<sup>2</sup>이상의 특수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동의 면적이 1,000m<sup>2</sup>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 : 대지가 기초성된 3m 도로의 옆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때 저의 대지는 얼마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합니까?
- 답 : 도로의 반대측에 하천, 철도의 부지등이 있을 경우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에서 소요도로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문 : 경사지 땅에 지하층의 1면이 노출되었는데 지하층으로 간주되는지요?
- 답 : 한면의 지하층이 노출되면 지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문 : 주거지역내 지하층이 인접건물과 30c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위험한데 위법시공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답 : 건축법 제53조의 2에 소정거리는 피우지 않아도 되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문 : 설계변경한 건축물의 착공기한을 설계변경일로부터 산정 가능합니까?
- 답 : 착공기한은 당초 허가기일로부터 1년내이고 그후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새로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에 관한 사항

- 문 : 주거지역내 공중목욕탕과 바닥면적 200m<sup>2</sup>인 당구장을 동일건축물로 건축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답 : 영 부표 제 4 항 1항 내지 3항 및 제 9항 용도중 2이상의 용도가 동일건축물내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sup>2</sup>이상은 불가하나 문의 내용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문 : 주거지역내 600m<sup>2</sup>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조경을 해야 하는지요?
- 답 : 영 제 168조 제 3항의 규정에 대지면적이 상암지역이외 지역에서는 200m<sup>2</sup>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의 조경을 해야 합니다.
- 문 : 용적을 산정시 지하층은 어떻게 계산 됩니까?
- 답 : 영 제 3조 규정에 거실이외의 용도는 용적을 산정시 제외 됩니다.
- 문 : 높이 20m 이상 건축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데 건물높이에 산정되는지요?
- 답 : 영 제 3 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 : 제 2종 미관지구에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코자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 : 영 제 6 조 제 3항에 외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문 : 주거지역내의 주택 신축의 경우 진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까지의 피어야 할 거리는?
- 답 : 건물높이의  $\frac{1}{4}$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 문 :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립형식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립주택에 속하는지요?
- 답 : 건물 및 대지를 공유하고 동일대지내 하나의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 : 바닥면적 150평인 기숙사를 신축하였는데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답 : 영 제 135조에 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내 연면적 100m<sup>2</sup>이상은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문 : 카바레는 위락시설에 속하는지, 관광시설에 속하는지요?
- 답 : 영 부표 제 14항 제 5호에 규정된 위락시설의 유기장에 속합니다.
- 문 : 옥상 광장에 지하층과 통하는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답 : 영 제 108조 제 3항에 옥상광장은 본조 적용에 있어 이를 층으로 부다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 2개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문 : 4층조적조 건축물의 한면의 일부 전체를 철거하고 개수코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 : 영 제 2 조 제 13호에 규정한 규모이상이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문 :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의 완화규정으로 2이상의 도로에서 큰 도로의 사선제한만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 넓은 도로측 건물외곽에서 35m 이내로 당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이내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문 :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지반이 도로보다 낮으면 건물높이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답 : 도로중심선 지반면에서 1m 이상 고저차가 있을경우 고저차에서 1m를 공제하고 그 높이의  $\frac{1}{2}$  위치에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면 됩니다.
- 문 : 14층의 공동주택은 지하층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요?
- 답 : 연면적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문 :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답 :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 : 지붕을 수선코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 : 지붕 수평투영면적 30m<sup>2</sup> 이상을 해체 수선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 :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언제까지 준공하면 됩니까?
- 답 : 현 건축법규에 준공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 : 준공업지역내 130m<sup>2</sup> 대지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 답 : 대지 최소한도가 200m<sup>2</sup> 이므로 불가능합니다.
- 문 : 대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사적상에 없는데 건축가능한지요?
- 답 : 불가능합니다.
- 문 : 조적조에서 벽길이의  $\frac{1}{2}$  이상 창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여주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 줄 수 없는지요?

답: 내력벽으로 벽길이 1/2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3층 건축물에 높이 10m인데 2층높이는 6.9m입니다. 2층부분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얼마를 띄워야 합니까?

답: 주거지역내 건물높이가 8m 이상이면 각 부분에서 진북 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의 1/2을 띄워야 합니다.

문: 주거지역내의 전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주거지역내 전폐율 5/10 ~ 6/10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 기준 미달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가능합니까?

답: 부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10년만에 한해서 종전의 규모범위내에서 개축이나 재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부적합한 경우는 현행 대지 최소 면적의 7/10 이상이면 허가할 수 있고 5/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주거지역내 기존공장에 공장종업원의 복리시설을 증축할 수 있습니까?

답: 건축법시행령이 개정(81. 10. 8)되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일지라도 기준시(종전은 기준시에서 10년만에 한하여 가능)에 관계없이 후생복지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 한필지에 2개동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대지의 범위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이므로 건물동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수개동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건물 동수를 포함한 면적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문: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는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81. 10. 8)되어 지하층면적은용적률 산정면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 연면적 2,500m<sup>2</sup>의 사무실을 건축코자 할 때 조경면적은 얼마입니까?

답: 50명(165m<sup>2</sup>)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조경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600명(2,000m<sup>2</sup>)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 령 제 167조 적용에 있어 높이와 이격거리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 앞집에서 신축하며 창을 내어 집내부가 보이는데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건축법상 기존건축물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유효한 가리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 연면적 2,500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00평정도 변경하려는데 신고로 가능한지요?

답: 형태변경 및 총수변경없는 단순한 증평은 가능합니다.

문: 제 4종 비관리지구내 대사관사택을 건립코자 하는데 건축신 3m후퇴한 공지에 부속건축물이나 담장은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답: 부속건물 및 담장과와 유사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 공동주택은 건축선에서 얼마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합니까?

답: 건축선이라함은 도로경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경

계선에서 후퇴할 거리는 도로반대측 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0.625배, 도로경계선에서 3m중 큰측을 후퇴하여야 하며 20m 이상 도로에서는 6m 이상 후퇴하여야 합니다.

문: 대지경계선에서 공장 건축은 얼마를 띄워 건축하여야 합니까?

답: 4m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합니다.

문: 외벽에서 2m 정도 돌출한 기계실을 설치코자 하는데 건축면적에 산정되는지요?

답: 높이 1m 이상이면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문: 시장용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얼마입니까?

답: 2.1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문: 주거지역내 2대지내의 건축물은 양지주 합의하에 붙여 지을 수 있는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 168조의 2 제 2항에 의하여 대지경계선에서 차마플 30cm 외벽에서 50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문: 근린생활시설 400m<sup>2</sup>의 건축물을 허가받아 신축중 기초압반으로 지하실 구축이 불가한데 지하층을 구축해야 하는지요?

답: 지반의 장기허용 지내력이 200t/m<sup>2</sup> 이상이면 지하층 설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 주요 단열재의 두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 건축법 시행규칙상 유리면: 50mm, 폴리우레탄폼: 50mm, 석면: 60mm, 페리이트: 100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한 보온재여야 합니다.

문: 영손실 방지조치에 주택 80m<sup>2</sup>인 경우 온돌로 시공할때 단열재를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 시행규칙 개정(1980. 12. 22)으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 가사용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가사용 승인신청서와 보안, 위생, 미관상 지장이 없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즉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수도확인, 시멘트제품검사필증등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 있습니다.

문: 용도변경 신청서식을 알려주십시오.

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서 정 부분에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문: 허가당시 1층창고 2층주택으로 허가를 득하고 본인사정으로 2층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창고로 사용코자 하는데 건축주가 취해야 할 사항은?

답: 가사용승인을 득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준공을 득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문: 시멘트 판매확인서 대신 준공시멘트 검사필증으로 가능한지요?

답: 시멘트제품 검사필증에 사용위치가 기재되었으면 가능합니다.

## □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

문: 풍치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180명입니다.

문 : 제 2종 미관지구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합니다.

문 : 풍치지구내 일조권제한을 알려주십시오.

답 : 풍치지구내의 일조권 규정이 없고 소정거리를 피우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선으로부터는 2.5m 측면은 1.5m 후면 1.5m (1층인 경우)를 대지경계선에서 피우면 됩니다.

문 : 제 4종 미관지구내는 몇층까지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답 : 2~4층 범위내 가능합니다.

문 : 제 2종 미관지구내 점포 1칸의 간격은?

답 : 3.6m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 :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답 : 4대문내는 45%이하이고 기타지역은 60%입니다.

문 : 미관도보면 건축물의 3m 후퇴한 부분이 대지면적이나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 : 대지면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 : 풍치지구내 학교를 신축코자 하는데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 건폐율은  $\frac{2}{10}$ 이며 용적율 60%이나 학교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전문대학이상은 기존학교에 한함)로 주위 환경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서울특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용적율 100% 높이 5층(20m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문 : 제 2종 미관지구 도로변인데 도로변에서 후퇴하여야 할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 도로변에서 3m 후퇴하면 가능합니다.

문 : 제 4종 미관지구내에서 외장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 서울시 건축조례 규정에는 1~3종 미관지구내에서 외장의 변경만 포함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문 : 풍치지구내 공지규정은 벽 또는 처마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 : 풍치지구내 이적거리는 외벽선에서부터 계산합니다.

문 : 미관지구 3.4종이 겹쳐있을때 제한대지 및 높이는?

답 : 대지면적 330m<sup>2</sup>이상, 높이제한 2~4층

### □ 주차장법에 관한 사항

문 : 주거지역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답 :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의 자동차 관련시설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별개입니다.

문 : 공동주택 주차장은 연면적 몇 m<sup>2</sup>마다 1대씩 설치하여야 합니까?

답 : 상업지역내에서는 200m<sup>2</sup>마다 기타는 250m<sup>2</sup>마다 1대씩 설치하면 됩니다.

문 :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령 제 113조에 의한 지하층 설치면적에 해당되는지요?

답 : 개정령에 의하면 기계설비를 위한 면적 및 광고용도는령 제 113조에 의한 지하층 설치면적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문 : 상업지역내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자 하는데 주차장 면

적은? (주차장 정비지역이 아님, 옥모지역) 의

답 : 바닥면적 1,000m<sup>2</sup>이상일 때 공동주택은 200m<sup>2</sup>당 1대, 판매시설은 150m<sup>2</sup>당 1대씩 전체소요수량은 용도별 주차료를 각각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문 : 옥내주차장에 카라프트를 이용 설치 가능한지요?

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 2항 4호 내지 10호에 적합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 기타규정에 관한 사항

문 :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 허가시 건축주는 개인이라도 가능합니다니까?

답 : 가능합니다.

문 : 대지면적 271평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니까?

답 : 중과세 대상입니다.

문 : m<sup>2</sup>당 병으로 환산은 어떻게 합니까?

답 : 3<sup>3058</sup>로 나눠주면 됩니다.

문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가 많은데 간소화 시킬 수 없는지요?

답 :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부수되는 별도의 허가 및 개별 준공결차를 간소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허가시 검토기준을 허가 처리부서에서 검토케 하여 민원부서를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 : 운하예정지역으로 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답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이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까지 기한부로 가설건축물로는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문 : 개발제한 구역내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답 : 생업에 종사하는 자의 축사 건축은 가능하나 규모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문 : 경기도에서 준주거지역내 연립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 연립주택으로 2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세대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frac{6}{10}$ 까지 가능합니다.

문 : 설계를 의뢰하여 준공시까지 건축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답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시로 감리자와 상의하여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문 :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 : 설계사와 상의하여 빠른시일 내 훌륭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 하십시오.

문 : 건축사의 면허대여를 하였을 때 벌칙규정은?

답 : 건축사법 제 10조에 대하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11조에 면허 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 39조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 인쇄소가 비공해공장에 속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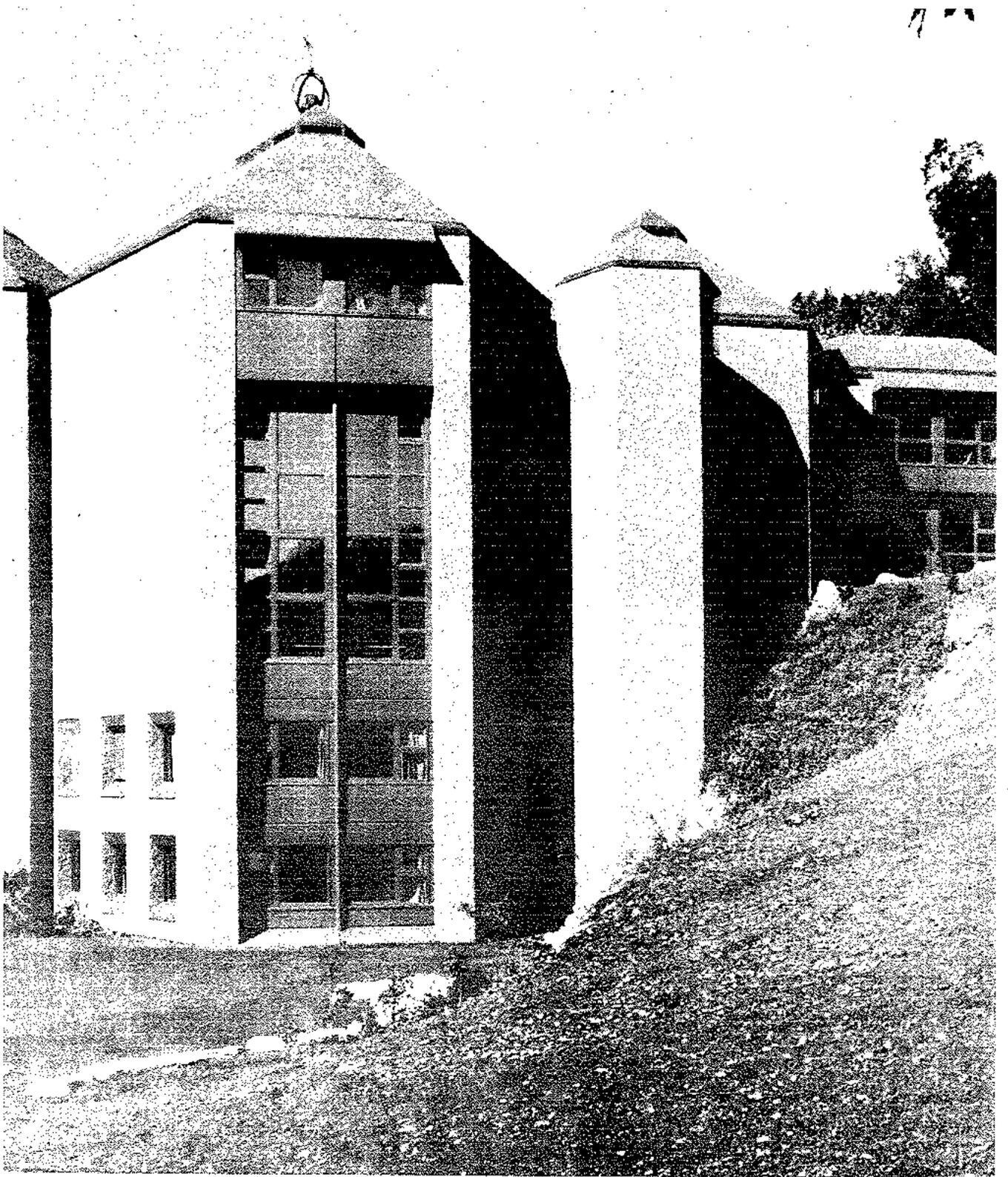
답 : 공업배치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는데 가옥 대장에 등재됩니까?

답 : 가옥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문 : 공공건물(공공광서)의 설계와 시공 감리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한지요?

답 : 건축법 제 6조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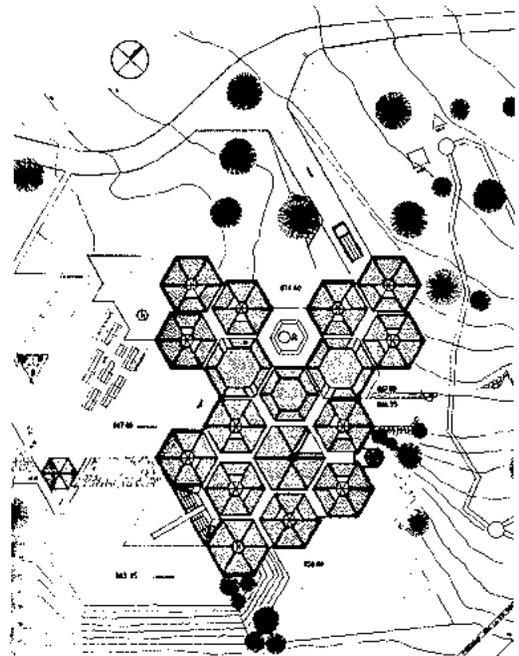
# TWANNBERG CENTER /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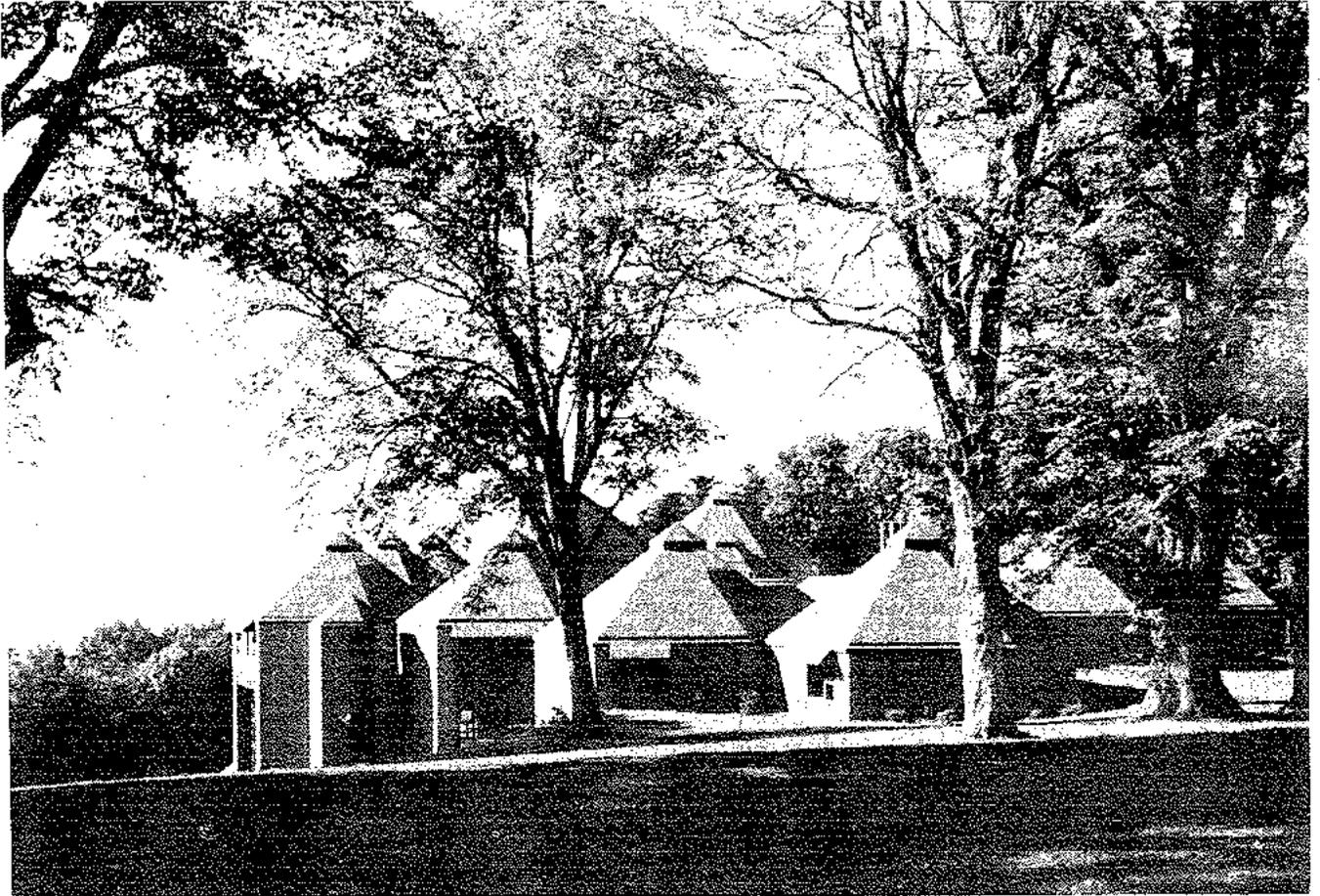
Justus Dahinden

□ 동쪽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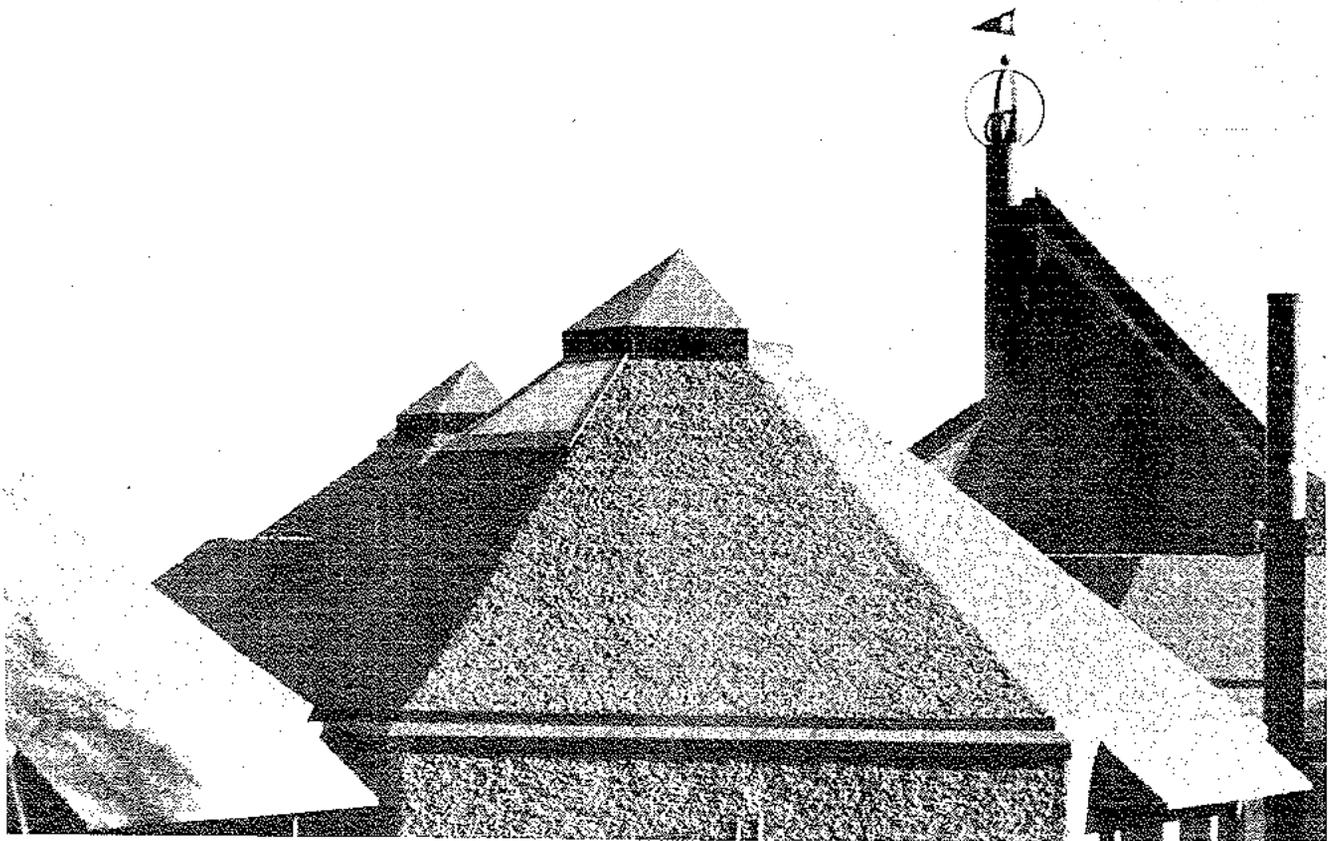
□ 서쪽벽면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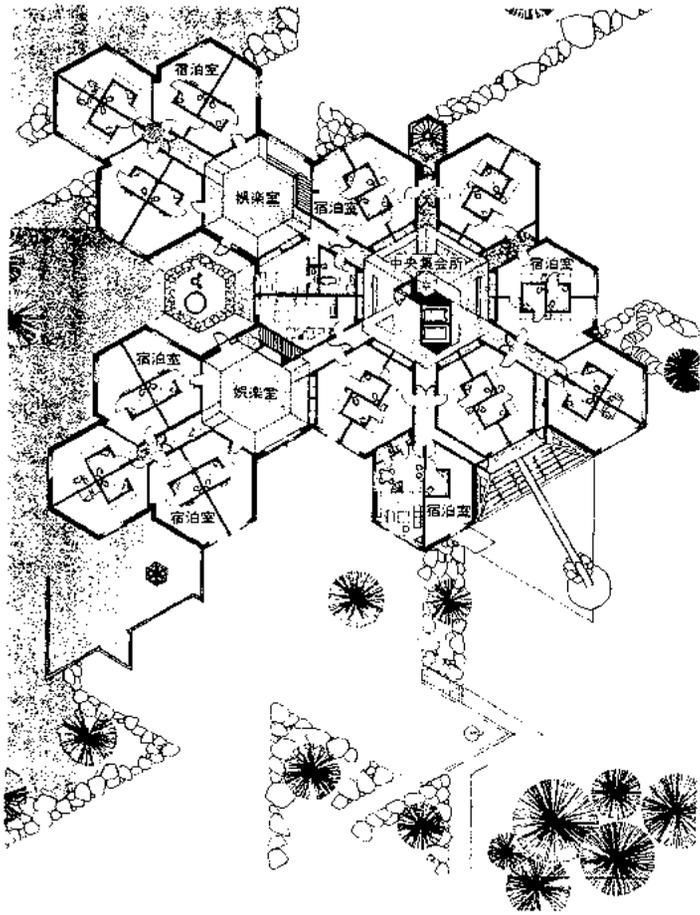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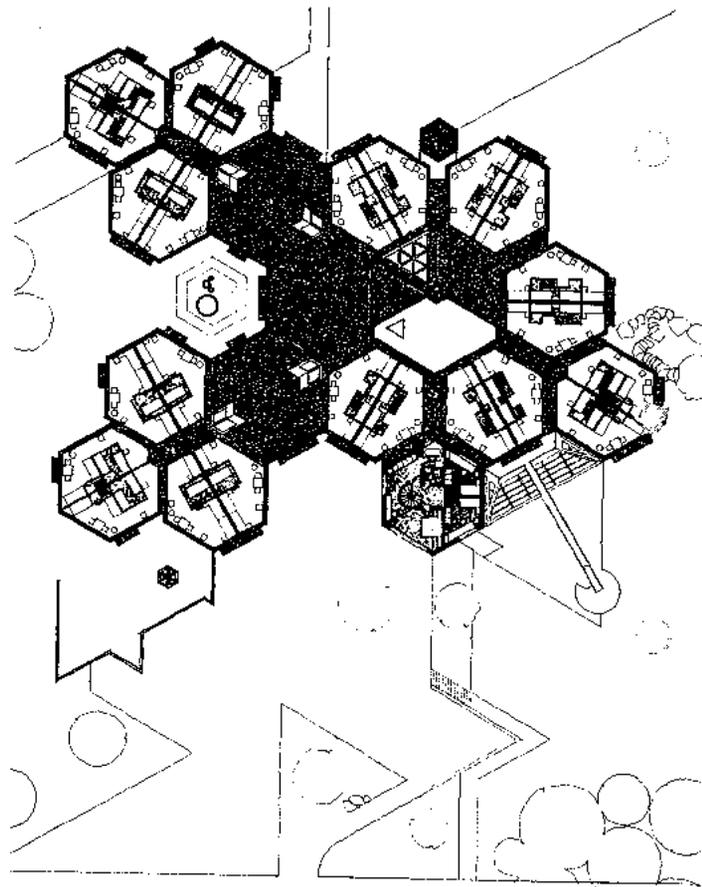
□ 내부전경

□ 외부벽과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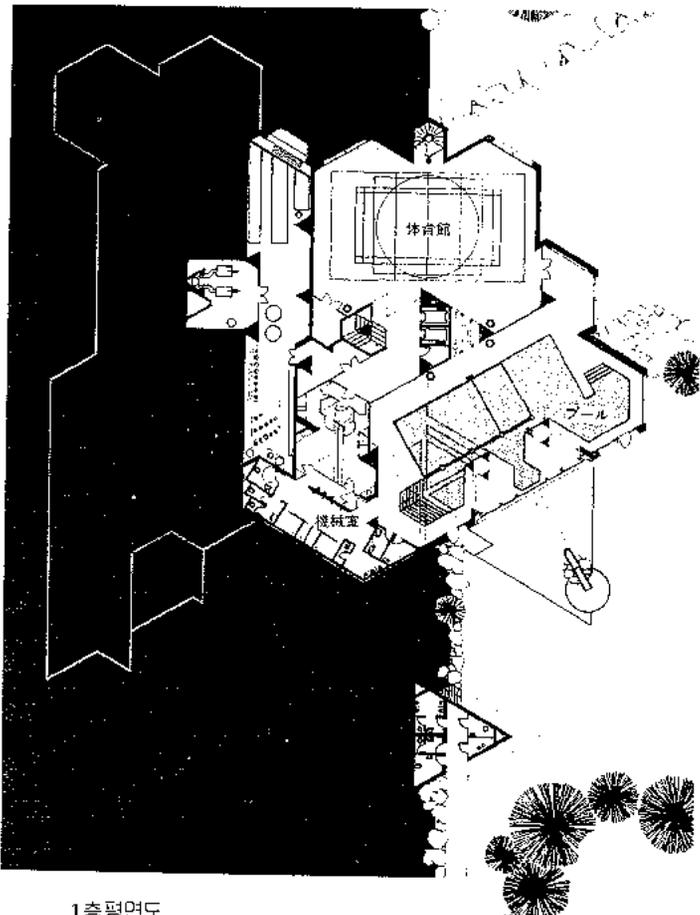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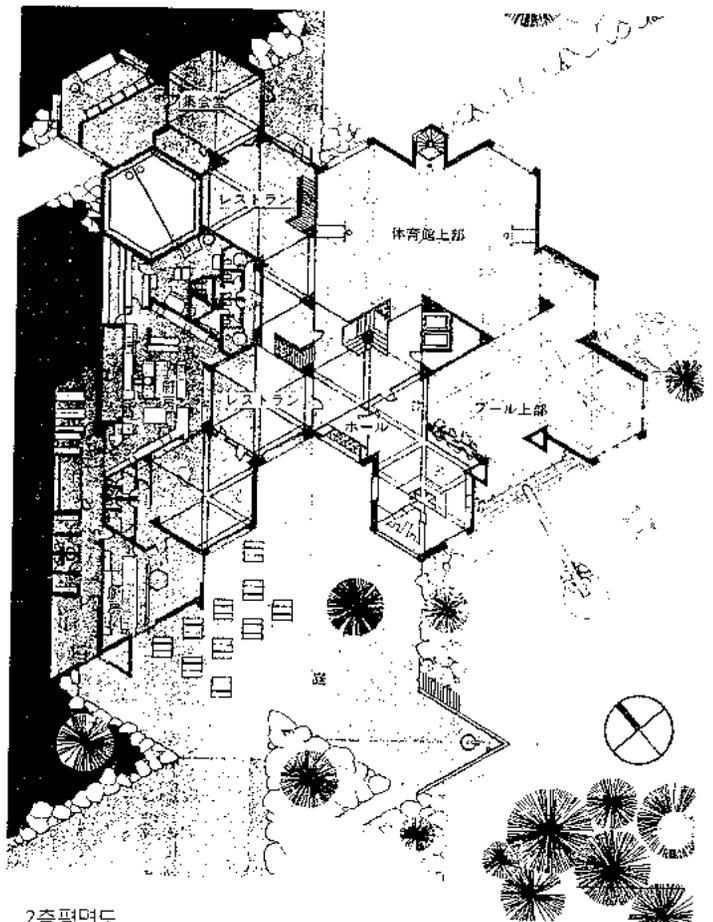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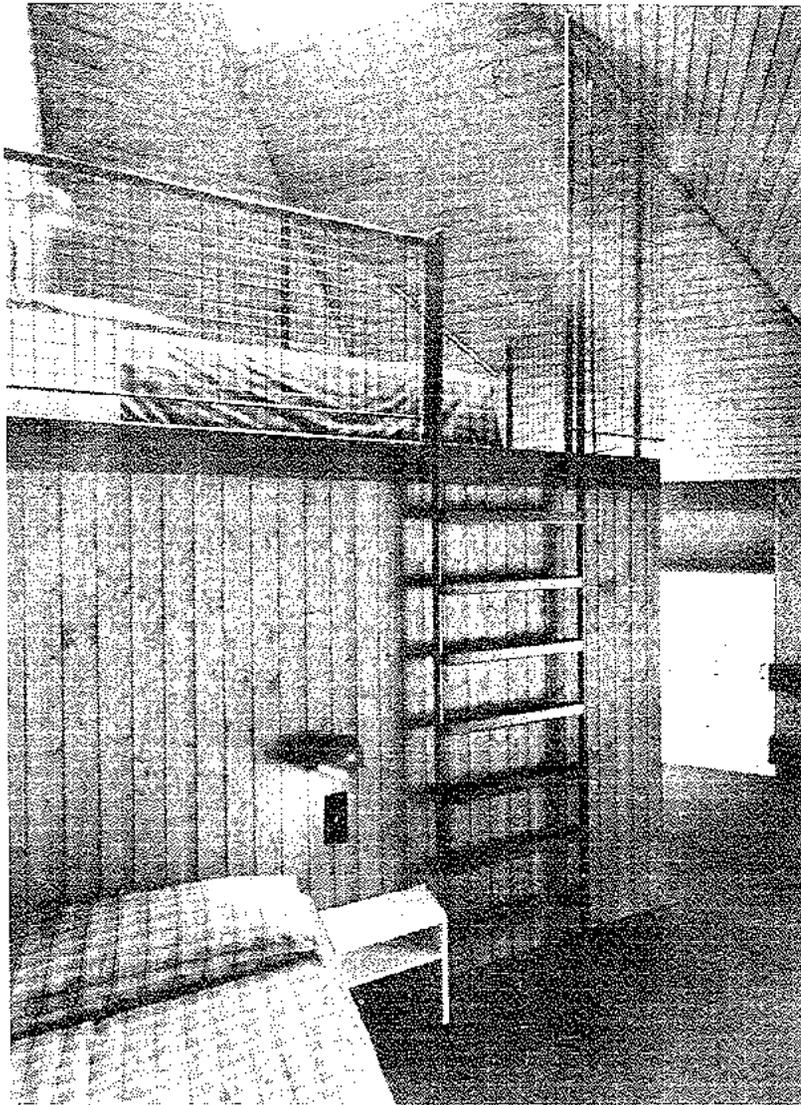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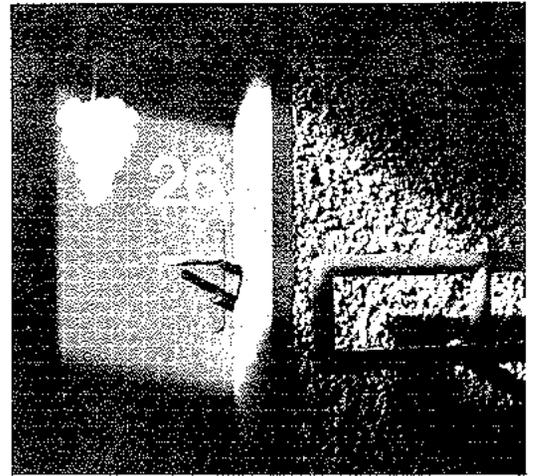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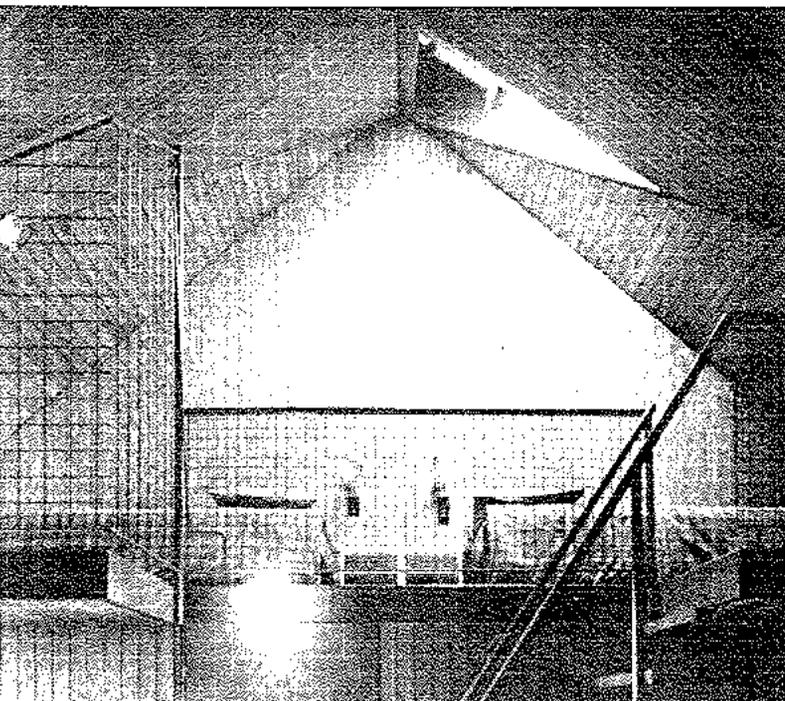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침실  
침실



침실출입구 디테일



TWANNBERG 센터는 스위스정부가 출자한 것으로 유토피아적인 모델개발이다. 이 파이롯 센터는 보통 사회심리 건축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사회적요소를 總合할 目的으로 설계되었다. 건강한사람과 장애인, 靑年과 老人, 個人과 集團이 모두 하나의 건축에서 골격으로 창조적 활동, 스포츠, 게임, 레저의 역할을 한다.

이 엄격한 공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公共建築과 같은 데이터를 피한다. 이 건물은 개인, 그룹, 단체취향주택으로 중앙의 넓은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둘러서 分節化한 프르트 타입의 유니트가 그라스모양으로 되어있는 村落形態이다. 수직 방향으로 혹은 수평방향으로도 공간이 되어있는 6각형의 디자인에 의해서 다양한 활동센터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

접회장, 중앙회의실(난로가 있음) 오락이나 춤을 추기위한 「TWANNBERG ROOM」 손님과 거주자의 식당, 현관, 접수, 스포츠 에리어 등이 서로 연관된 커뮤니티에리어로서 배치하고, 그 주위에 열세개의 2세대용주택 바브리온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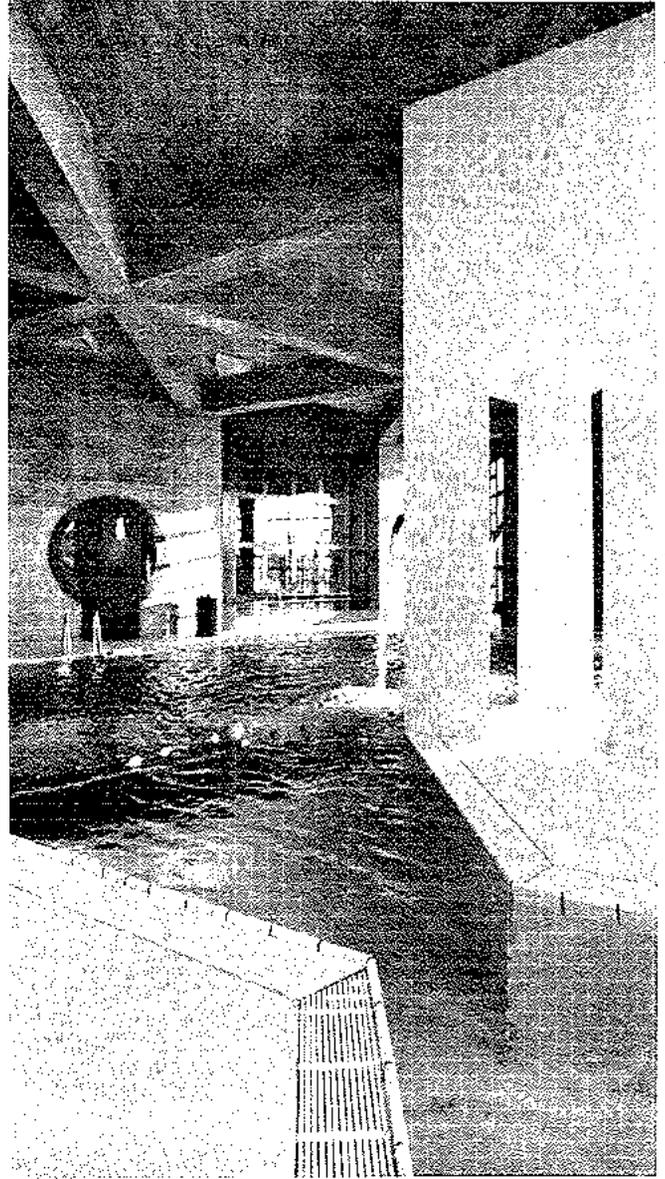
접수처와 남하로부터는 풀장과 스포츠에리어가 보인다. 수영을 안하는 사람을 위해 가동식 후로아가 달린 풀지붕 한쪽은 경사진 유리판으로 되어있는 굉장한 경관을 가질 수 있다.

共用되는 중심부분은 레스토랑이며 창밖이 벤취와 인접되어 있어 주말마다 몇백명의 乘객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분위기는 6각형모양이며 유연하게 약센트를 준 붉은금속의 타이루에 반영되어 있다. 목조부분을 덮은 프라스틱위에 거친돌을 붙인 탓으로 이 건물은 랜드스케이프 속에 묻혀 있는것 같다.



단면도



재복판 수영장



# 建築種算資料

(시리즈 3)

曹 凌 鉉  
(建設部技術指導課長)

1. 결속재는 철선 새끼줄 한가지만 사용한다.
2. 비계품은 비계높이(지상에서 비계최상부까지) 26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26m 이상의 비계 매기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이프 비계 매기(강관비계매기)와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택한다.
3.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4. 외부비계매기용

(비계면적 m<sup>2</sup> 당)

높이 m	3~7 (인)	7~10 (인)	10~13 (인)	13~16 (인)	16~20 (인)	20~23 (인)	23~26 (인)
외줄	0.03	0.04	0.05	0.06	0.09	0.13	0.19
경	0.04	0.05	0.06	0.09	0.12	0.19	0.25
상줄	0.05	0.07	0.09	0.12	0.15	0.24	0.37

[계산예]

상줄비계 (전용고 12m, 공사기간 9개월)

1) 손료 (m<sup>2</sup> 당)

긴 비계목 : 0.45개 × 0.5 = 0.225개

짧은 비계목 : 0.3개 × 0.25 = 0.075개

발판 : 0.15매 × 0.5 = 0.075매

철선 : 0.36kg × 1 = 0.36kg

2) 품 (m<sup>2</sup> 당)

$$\text{비계품} = \frac{0.05 \times A_1 + 0.07 \times A_2 + 0.09 \times A_3}{A_1 \times A_2 + A_3}$$

A<sub>1</sub> : 지상에서 높이 7m까지의 비계면적

A<sub>2</sub> : 지상에서 높이 7~10m구간의 비계면적

A<sub>3</sub> : 지상에서 높이 10~12m구간의 비계면적

5. 외줄 및 경비계 발판 계수품이 계산 예 : 0.036 × 0.25 × 3.6 × 0.1 매 × 300매 = 0.972매

상줄비계 발판 계수품이 0.030 × 0.25 × 3.6 × 0.15매 × 300매 = 1.458매

## 1-3-9 외부 겹비계

비계면적 1m<sup>2</sup>당

구분	품명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긴 비계목	ℓ=5.4m	개	0.075			0.3×0.25
	짧은 비계목	ℓ=1.8m	개	0.0165			0.15×0.11
	발판	목종 36×250×3,600	개	0.243			0.972×0.25
	철선	# 8~10	kg	0.25			

3개월까지	(세 끼)		(다발)	(0.075)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040		
	"	10m	인	0.043		
	"	13m	인	0.047		
	"	16m	인	0.055		
	"	20m	인	0.068		
	"	23m	인	0.084		
"	26m	인	0.103			
6개월까지	계					
	긴 비계목	ℓ=5.4m	개	0.105		0.3×0.35
	짧은 비계목	ℓ=1.8m	개	0.024		0.15×0.16
	발판	목종 36×250×3,600	개	0.340		0.972×0.35
	철선	# 8~10	kg	0.25		
	(세 끼)		(다발)	(0.075)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040		
"	10m	인	0.043			
"	13m	인	0.047			
"	16m	인	0.055			
"	20m	인	0.068			
"	23m	인	0.084			
"	26m	인	0.103			
1개년까지	계					
	긴 비계목	ℓ=5.4m	개	0.15		0.3×0.5
	짧은 비계목	ℓ=1.8m	개	0.034		0.15×0.23
	발판	목종 36×250×3,600	개	0.486		0.972×0.5
	철선	# 8~10	kg	0.25		
	(세 끼)		(다발)	(0.075)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040		
"	10m	인	0.043			
"	13m	인	0.047			
"	16m	인	0.055			
"	20m	인	0.068			
"	23m	인	0.084			
"	26m	인	0.103			

1-3-8 외부 외줄비계 備考에 포함.

## 1-3-10 외부상줄비계

비계면적 1m<sup>2</sup>당

구분	품명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3개월까지	긴 비계목	ℓ=5.4m	개	0.1125			0.45×0.25
	짧은 비계목	ℓ=1.8m	개	0.033			0.3×0.11
	발판	목종 36×250×3,600	개	0.3645			1.458×0.25
	철선	# 8~10	kg	0.36			
	(세 끼)		(다발)	(0.15)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050			
	"	10m	인	0.056			
"	13m	인	0.064				
"	16m	인	0.074				
"	20m	인	0.089				
"	23m	인	0.109				
"	26m	인	0.139				
6개월까지	계						
	긴 비계목	ℓ=5.4m	개	0.1575			0.45×0.35
	짧은 비계목	ℓ=1.8m	개	0.048			0.3×0.16
	발판	목종 36×250×3,600	개	0.5103			1.458×0.35
	철선	# 8~10	kg	0.36			
	(세 끼)		(다발)	(0.15)			
	비계공	3~7m 높이일때	인	0.050			
"	10m	인	0.056				
"	13m	인	0.064				
"	16m	인	0.074				
"	20m	인	0.089				
"	23m	인	0.109				
"	26m	인	0.139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개년까지	발판	목종 36×250×3,600	제	0.779		1.458 × 0.5	
	새끼	# 8~10 "	kg	0.38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050	(0.15)		
	"	10m "	인	0.056			
	"	18m "	인	0.064			
	"	12m "	인	0.074			
	"	20m "	인	0.089			
	"	23m "	인	0.109			
	"	26m "	인	0.139			

1-3-8 외부 외줄바겐 備考에 포함.

1-3-11 내부 수평비계 비계면적 1㎡당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수평비계	간비계목	ℓ=5.4m	제	0.0675		0.27 × 0.25	
	짧은비계목	ℓ=1.8m	제	0.066		0.6 × 0.11	
	발판	목종 36×250×3,600	제	0.3645		1.458 × 0.25	
	새끼	"	다발	0.10			
말비계 (받풍음)	비계공	"	인	0.06			
	간비계목	ℓ=7.2m	제	0.005		0.02 × 0.25	
	발판	목종 36×250×3,600	제	0.3645		1.458 × 0.25	
	각목	목종 90×90×3,600	제	0.1093		0.437 × 0.25	
	새끼	"	다발	0.03			
비계공	"	인	0.03				

1. 새끼대신 철신을 사용할때는 별도 계산한다.
2. 높이가 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세로순유는 공사기간 3개월 까지의 경우이다.
4. 발판의 재수량이 계산 예 0.036 × 0.25 × 3.6 × 0.15 × 300제 = 1.458제 - 각목의 재수량이 : 0.09 × 0.09 × 3.6 × 0.05제 × 300제 = 0.437제
5. 수평비계는 2기차 이상의 복합공시 또는 단일공사라도 작업이 복잡할 경우에 제정한다.
6. 말비계는 3.6m이하의 경미한 내부공사에 사용한다.

1-3-12 등바리 10㎡ 당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5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6		0.144 × 0.181	
	각재	"	㎡	0.0173		0.096 × 0.181	
	막쇠	"	kg	0.644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6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52		0.144 × 0.175	
	각재	"	㎡	0.0168		0.096 × 0.175	
	막쇠	"	kg	0.644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7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46		0.144 × 0.171	
	각재	"	㎡	0.0164		0.096 × 0.171	
	막쇠	"	kg	0.641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8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41		0.144 × 0.168	
	각재	"	㎡	0.0161		0.096 × 0.168	
	막쇠	"	kg	0.644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9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27		0.144 × 0.158	
	각재	"	㎡	0.0151		0.096 × 0.158	
	막쇠	"	kg	0.644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10회 사용	통나무	말구12cm	㎡	0.0216		0.144 × 0.15	
	각재	"	㎡	0.0144		0.096 × 0.15	
	막쇠	"	kg	0.644		0.7 × 0.92	
	철선	φ 4mm	kg	0.3			
	보울트	"	kg	0.92		1 × 0.92	
	목공 (형틀)	"	인	0.24			
	인부	"	인	0.53			
	잡재료	"	식	1	A×5%		
	계	"	"	"	"	"	"

1. 등바리를 철재파이프로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특약시방서에 명시하고 조립, 해체, 손로 및 운반비만을 계산한다.
2. 목구조에 대한 등바리는 실제수량으로 별도계산 할 수 있다.
3. 7m이상 일때는 비계공(10㎡당) 0.5인은 계산한다.
4. 최고 7m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일때는 3m 증가 한계마다 20%씩 증가한다.
5. 통나무의 규격  
길이 3.6~7.0m, 중경 12cm, 말구 12cm.

1-3-13 비계다리 다라면적 1㎡ 당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3개월까지	간비계목	ℓ=5.4m	제	0.075		0.3 × 0.25		
	짧은비계목	ℓ=1.8m	제	0.06		0.55 × 0.11		
	발판	목종 36×250×3,600	제	2.186		8.748 × 0.25		
	각재	목종 45×90×3,600	제	0.765		3.061 × 0.25		
	철선	# 8~10	kg	0.30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40				
	"	10m "	인	0.49				
	"	13m "	인	0.58				
	"	16m "	인	0.73				
	"	20m "	인	0.92				
	"	23m "	인	1.102				
	"	26m "	인	1.376				
	계	"	"	"	"	"	"	
	6개월까지	간비계목	ℓ=5.4m	제	0.105		0.3 × 0.35	
		짧은비계목	ℓ=1.8m	제	0.088		0.55 × 0.16	
발판		목종 36×250×3,600	제	3.061		8.748 × 0.35		
각재		목종 45×90×3,600	제	1.071		3.061 × 0.35		
철선		# 8~10	kg	0.30				
비계공		높이3~7m일때	인	0.40				
"		10m "	인	0.49				
"		13m "	인	0.58				
"		16m "	인	0.73				
"		20m "	인	0.92				
"		23m "	인	1.102				
"		26m "	인	1.376				
계		"	"	"	"	"	"	
9개월까지		간비계목	ℓ=5.4m	제	0.15		0.3 × 0.5	

1개년까지	짧은비계목	ℓ=1.8m	개	0.126		0.55×0.23
	발판	목중 36×250×3,600	개	4.374		8.748×0.5
	각재	목중 45×90×3,600	개	1.53		3.061×0.5
	철선	# 8~10	kg	0.30		
	비계공	높이 3~7m 일때	인	0.40		
	"	10m "	인	0.49		
	"	13m "	인	0.58		
	"	16m "	인	0.73		
	"	20m "	인	0.92		
	"	23m "	인	1.102		
"	26m "	인	1.376			
계						

-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 비계목은 비계높이(지상에서 비계 최상부까지) 26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6m이상의 비계배기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이쿠 비계매기(강관비계매기)와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택한다.
- 비계다리매기품

높이(m)	3~7	7~10	10~13	13~16	16~20	20~23	23~26
품(인)	0.4	0.7	0.9	1.35	1.7	2.3	3.48

[계산예]

비계높이 12m인 경우

$$\text{비계공} = \frac{0.4 \times A_1 + 0.7 \times A_2 + 0.9 A_3}{A_1 + A_2 + A_3}$$

A<sub>1</sub> : 지상에서 높이 7m까지의 비계다리면적

A<sub>2</sub> : 지상에서 높이 7~10m 구간의 비계다리면적

A<sub>3</sub> : 지상에서 높이 10~12m 구간의 비계다리면적

- 쌍줄비계에 있어서 비계다리를 가설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발판 및 각재의 재수율이 계산에  
발판 0.036×0.25×3.6×300개×0.9=8.748개  
각재 0.045×0.09×3.6×300개×0.7=3.061개

6. 새로손물은 공사기간 3개월까지의 경우이다.

1-3-14 낙하물방지

1m<sup>2</sup>당

구분	품명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철망 (3個月까지)	철망	# 21 아연도 눈크기 10mm	m <sup>2</sup>	0.33		1.1×0.3	
	비계목	ℓ=3.6m	개	0.11		1×0.11	
	못		kg	0.05			
	철선		kg	0.28			
	비계공		인	0.03			
	계						
철망 (6개월까지)	철망	# 21 아연도 눈크기 10mm	m <sup>2</sup>	0.385		1.1×0.35	
	비계목	ℓ=3.6m	개	0.16		1×0.16	
	못		kg	0.05			
	철선		kg	0.28			
	비계공		인	0.03			
철망 (1개년까지)	철망	# 21 아연도 눈크기 10mm	m <sup>2</sup>	0.55		1.1×0.5	
	비계목	ℓ=3.6m	개	0.23		1×0.23	
	못		kg	0.05			
	철선		kg	0.28			
	비계공		인	0.03			
발	발		m <sup>2</sup>	1.1			
	못		kg	0.05			
	비계공		인	0.04			
	계						
	계						

- 본표의 품은 높이 7m이내 일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표는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적외 및 품이다.
- 높이 7m이상일때는 외부 비계중 외줄비계 매기품에 준한다.

新刊書籍紹介

建築士・建築技師・應試를 위한 必携의 指針書!

(主觀式・客觀式)

## 建築計劃問題研究

黃在雄 共著  
金聖培

圖書出版 世進社 ☎ 92-3422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22-13

A5 494面 定價 4,800원

---

建築計劃問題의 集大成

☆ 主觀式・客觀式 1217問題 收錄  
 ☆ 試驗案內(應試資格・試驗科目・出題基準) 및 過年度 出題問題 收錄  
 ☆ 各 問題의 重要性 및 出題빈도, 出題水準에 따라 \*표로 表記  
 ☆ 現行 國家技術資格 問題와 出題型式의 一致  
 ☆ 客觀式・主觀式 問題의 比重을 均等히 하여 科目別로 計劃各論・計劃原論・  
 建築意匠・建築史・建築設備 問題 總整理

# “무엇이 궁금한가 ?”

/ 건축관계법령에 대한 각 지부회원 및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

〈기술부제공〉

(질의 1) : 건축사법 부칙('80. 1. 4)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규정의 “건축보조사”가 80. 4. 1 일 이후 부터 “건축사보”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23조 제 1항[시행령 제23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서 등록 활용할 수 있을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23조 제 2항[시행령 제23조 제 2항]의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보 (건축기사 1, 2급 소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귀부의 지적여부? (기술부)

(답변 1) : 질의에 대하여는 귀견이 타당합니다. (건설부)

(질의 2) : 회원 설계사무소의 광고를(방송, 신문, 팸플릿, 안내문등)할 수 있는지의 여부? (총복지부)

(답변 2) :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신문, 방송, 출판물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설계사무소에 대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 ① 타인에 대한 중상, 비방등의 행위
- ② 사실무근한 과대 선전 행위
- ③ 윤리규약 제13조에 관련한 행위
- ④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건축사의 품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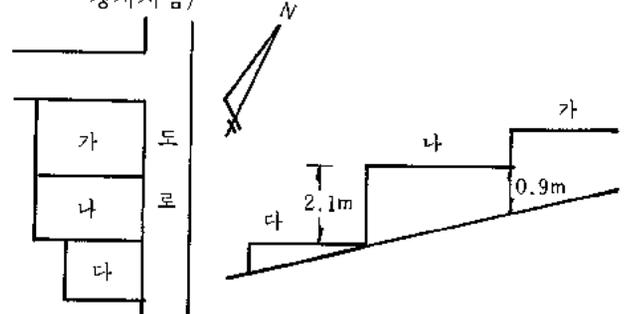
(질의 3) :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 1항 제 1호에서(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50m<sup>2</sup>)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컨대 산천포시의 현재인구가 약 6만명 정도인바 위규정의 적용여부와 아울러 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로서 지목이 전 혹은 답일경우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필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온바 귀견여부? (기술부)

(답변 3) :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이며, 동규정은 도시형태 및 시가지 규모등 당해구역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농지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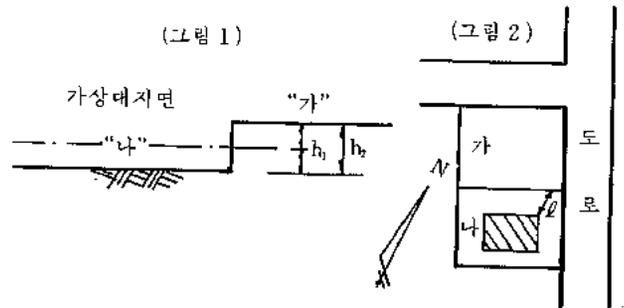
(질의 4) : 그림과 같은 상태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나”대지의 지표면은 어느지점이 기준면이 되는지 귀견여부? (일반인)

(단, 주거지역이며 원래대지는 측면도로와 같은 경사지임)



(답변 4) : ①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거지역내에서의 인접대지와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 높이를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나”대지의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가”대지와 “나”대지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그림 1)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하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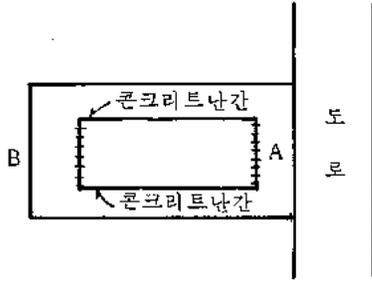


(그림 2)

②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그림 2에 표시한 거리(L)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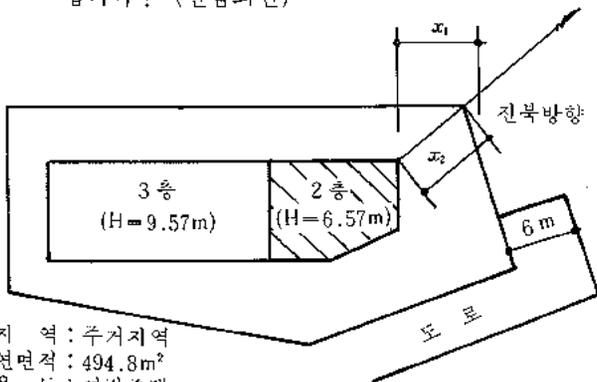
(질의 5) : 도로에 인접한 대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도로에 면한 부분의 옥상에 그림과 같은 난간(A,B 부분은 철제 파이프 난간으로서 당해 부분면적의 1/2이상이 공간임)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사선제한(높이제한) 대상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

견여부? (부산지부)



(답변 5) : ①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5 호 라목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림의 C, D부분의 난간벽은 각각 그 벽면의 1/2이상어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어야 하는 건축법 제 41 조 제 4 항 [시행령 제 167 조 제 2 항]의 규정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② 건축법 제 41 조 제 1 항의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에 있어서 도시한 A부분의 난간(그 벽면의 1/2이상 공간)은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A가 벽면일 경우 C, D 부분은 A에 대한 대민벽의 개념으로서 각각의 벽면으로 간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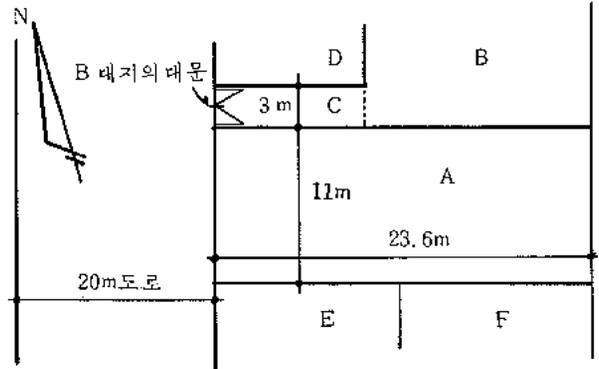
(질의 6) : 건축법 시행령 제 167 조의 관련사항으로 그림과 같은 경우  $x_1, x_2$ 의 이격거리는 얼마 확보 하여야 합니까? (전남회원)



지역: 주거지역  
 연면적: 494.8m<sup>2</sup>  
 용도: 연립주택

(답변 6) : ①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 167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림의 2층 증축부분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 배이하(그림의  $x_2$ 의 거리는 1.65m 이상)로 할 수 있을 것이나,  
 ② 같은법 제 2 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를 수평거리의 2 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2층부분의 북서측 방향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는 위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부)

(질의 7) : 그림과 같은 대지(A)의 경우 건축법 제 41 조(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적용함에 있어, 전면 20m 도로에 의한 법적용을 받아야 함이 낭연하다고 판단되나 하나의 대지(B)가 점유하고 있는 지면(C)의 대문과 담장이 구축된 현황이 도로가 아닌, 지적도상의 폭 3m 사도를 적용하여 사선제한을 받아서 높이 4.5m 이상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는데 대한 귀결 여부? (부산회원)



(답변 7) : ①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같은법 시행령 제 161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나. 같은법 시행령 제 1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완화의 경우등 특수한 조건하에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② A의 대지는 같은법 제 2 조 제 15 호 "도로"의 정의에서(사도법 제 2 조 및 제 3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서 적용을 받는 도로로함) 막다른 도로(2개이상 대지에 이용되는 통과도로가 아닌 도로)일 경우로서 위 "나"에 의한 높이제한의 완화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③ 따라서 A대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 13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 3m(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이상, 35m 미만)에 연결한 대지로서 대지와 막다른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므로 위 "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가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 8) : 건축사가 개업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회원, 비회원등) 영업이 아닌 자기 개인 점포 및 주택을 설계하고 또 건축허가 절차 이행과 감리등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8) : 건축사가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허가 절차 이행등이 가능합니다. (기술부)

## / 資料 /

다음은 지난 10월15일 공포된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령을 소개한 것이다.

### ◎ 대통령령 제10,484호 공동주택관리령개정령(10월15일)

공동주택관리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은 제외한다.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 총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 및 특별수선 총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이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서 서로 인근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

설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위생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에게 당해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존·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제6조 (행위허가의 기준등)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의 허가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주택관리인등에 의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등) ① 법 제38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하 “의무관리기간”이라 한다)은 그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준공일로부터 8월이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4월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동일한 사업주체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구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수개의 공구별로 준공한 후 구분관리할 경우에는 당해공구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의무관리기간의 종료전이라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할 수 있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법 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선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리기간 이후에도 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세대수
2. 입주 세대수
3. 공동주택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⑤ 법 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에 의하여 주택관리인이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약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3.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사용 절차(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4.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임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 및 책임
5.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노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적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한 입주자이어야 하며, 복리시설의 입주자도 포함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인의 선정을 포함한다)을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폐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주택의 관리방법(주택관리인의 선정을 제외한다)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5.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⑩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와 사업주체에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치관리기구)** 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자치관리기구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등)** 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사업주체의 명칭과 사업승인일자 및 준공일자
3. 자치관리기구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자치관리 개시예정일

② 제 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
2. 별표 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3. 단지배치도 및 부근안내도
4. 자치관리기구의 조직표 및 인적사항조서

제13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이 제 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
2. 기술인력 및 장비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때
3. 자치관리기구가 적법하게 구성된 때

제14조 (자치관리의 폐지등) ① 제 7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제 10조 제 4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주택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도 그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를 폐지하고 주택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관리 폐지신고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3. 주택관리인의 이력서
4. 감사의 결산보고서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5조 (관리비등) ①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 1항 각호에 제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 3항·제 4항 및 제 6항의 경우와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의 제 1항 제 1호의 일반관리비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의 월평균 일반관리비에 당해의무관리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 2 제 1항의 특별수선 총당금을 제 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준공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준공검사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전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술용역 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전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의 명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는자는 준공검사전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준공검사전자의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는 준공검사전청서를 제출할 때에 준공검사전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 1항의 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등으로 하자보수를 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준공검사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성한 공동주택의 총공사비(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대지조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가격을 각각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저금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사모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18조 (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준공검사전자에게 하자보수의 종료사실 및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전자는 하자의 유무 및 하자보수의 완료여부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사실등을 조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준공검사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의 명의로 예치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자의 하자의 유무 및 하자보수의 완료여부등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용역 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전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주택관리인 면허의 종류 및 기준등)** ① 법 제39조 제1항의 주택관리인면허는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을종면허를 받은자는 승강기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하여 관리한다.

② 주택관리인 면허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 건설부장관이 주택관리인면허를 행함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안의 공동주택의 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주택관리인 면허절차)**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관리인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주택관리인면허를 한 때에는 미리 면허의 종류 및 신청기간과 장소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이 주택관리인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주택관리인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인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 1월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인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주택관리인의 업무범위)** ① 주택관리인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로써 지정된 서울특별시·지할시 또는 도의 지역 안에서만 주택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인의 주택관리인이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의 주택관리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건설업자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주택관리인의 업무신고등)** ① 주택관리인이 주택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받아)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법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제1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제한 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20 이내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준공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마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고,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과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공동주택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 면허 및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 면허의 취소
3.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등 용도변경등의 허가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한 허가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3조 (종전관리주체등에 대한 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고,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인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제2항의 통지 또는 신고나 제3항의 인가신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준공된 공동주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거나 준공검사를 신청한 공동주택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 예치·보관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共同住宅管理令改正令 主要骨子

가. 共同住宅의 管理主体는 每月別로 管理費 및 特別修繕充當金の 徵收·使用·保管 및 預置등에 關한 帳簿를 作成하여 그 證憑資料와 함께 保管하도록 하고, 一定基準의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춘 管理機構를 當해 共同住宅團地 안에 두도록 함. (令 第3條第3項 및 第4項)

나. 入住者가 自治的으로 管理하지 아니하는 경우 住宅管理人에 依하여 義務的으로 管理하여야 할 共同住宅의 範圍를 定함. (令 第7條)

다. 事業主体가 義務的으로 管理하는 期間은 當該 共同住宅의 竣工日로부터 1年으로 함을 原則으로 함. (令 第8條)

라. 共同住宅入住者는 共同住宅의 管理 또는 使用에 있어 遵守하여야 할 共同住宅管理規約를 自治的으로 定하도록 함.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구 분	기 준
기술인력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사(2급 이상) 1인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전기사업법·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소방법 및 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
상 비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5천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형운반차량 1대이상

[별표 2]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허가의 기준

구 분	허 가 기 준
1. 용도 변경	부대시설 복리시설 법 제31조 제 1항의 구성에 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가.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 4항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사무소·소개업소·제조장 및 장의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 5항에 규정된 근린공공시설 다.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개축·제축·대수선	공동주택·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때
3. 파손·용도 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입주자의 동의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 선축·증축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서 지정된 용도인 때

(令 第9條 第1項)

마. 共同住宅入住者定者의 過半數가 入住한 때에 入住者는 入住者代表會議를 構成·運營하도록 하고, 入住者代表會議는 그 會議에서 議決한 事項·管理費의 賦課內譯 및 入住者의 建議事項에 對한 措置結果등을 遲滯없이 모든 入住者에게 通知하거나 公示하여 伝達하도록 함. (令 第10條第1項 乃至 第9項)

바. 入住者가 共同住宅을 自治管理하는 경우, 入住者代表會議에서 議決한 事項을 執行하는 機構로써 두어야 할 自治管理機構의 構成과 認可基準 및 節次등에 關한 事項을 定함. (令 第11條 내지 第13條)

사. 共同住宅入住者가 每月 納付하는 管理費의 構成項目과 項目別 納譯 및 이의 負擔方法을 定型化 하고, 그 外에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管理費를 徵收할 수 없도록 함. (令 第15條 第1項 내지 第3項)

아. 事業主体의 股疵補修期間·股疵補修保證金 및 그 執行節次를 定함. (令 第16條 내지 第18條)

자. 住宅管理人免許의 種類 및 基準을 定하고 그의 業務範圍를 明示함. (令 第19條 내지 第21條) (법제처 제공)

[별표 3]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비 목	구 상 내 역	세 대 별 부 담 액 산 정 방 법
1. 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제사무비·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2. 청 소 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 오물수거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 독 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등, 다만, 전기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 방 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제외한 금액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분양면적에 의한 산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한다)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량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간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계측기에 의하여 배분한다.
7. 급 탕 비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급탕용수비	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 급탕비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계측기에 의하여 산출한다.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4]

주택관리인 면허의 기준

구 분	면 허 증 류 별 기 준	
	갑 종	을 종
납 입 자 본 금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기 술	전기기사(2급이상) 면허취득자 1인 이상	전기기사(2급이상) 면허취득자 1인 이상
	기계분야 또는 기계안전관리분야기술자	기사(2급이상) 1인 이상 기사(2급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 1급 1인 이상
	소방실비안전관리분야 기술자	기사(2급이상) 1인 이상

능 력	연료사용기기 취급분야 기술자	열관리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또는 원동기취급기능사 1급 1인 이상	
	고압가스기체분야 또는 화학취급분야 기술자	기능장 또는 기능사 1인이상	
	위험물취급분야 기술자	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 1인이상	
	상 마	운반차량 1대이상	운반차량 1대이상

※ 위 표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중 해당분야의 것을 말한다.

□ 국제회의 일람표

(제공 : 국립건설연구소)

거 간	장 소	주 치	회 의 내 용
'81. 11. 29 - 12. 3	인도·뉴델리	• CIB • 인도 중앙 건축 연구소	개발도상국의 조적건물에 관한 국제회의
'82. 1. 28 - 29	네덜란드·앰스트르	CIB	산업부산물물의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
'82. 3. 8 - 10	미국·프로리다올랜드	WAEP	조립건축자재에 관한 3차국제회의
'82. 3. 25 - 26	코루부칼·리스본	CIB	CIB 경 의 회
'82. 3. 29 - 4. 2	코루부칼·리스본	ASTM·RIL EM CIB	구상의 개발 증진과 부흥에의 적용
'82. 3. 30 - 4. 1	에이레·더뷰린	CIB	선축환경에 있어서의 열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82. 4. 6 - 8	프랑스·파리	RILEM	조강 콘크리트에 관한 심포지움
'82. 5. 10 - 14	네덜란드·앰스트르트	CIB	CIB W14. 방화에 관한 국제회의
'82. 6. 9 - 11	유고슬라비아·벨그라드	SAVA 센터	시공 시스템에 따른 지붕 건물 의 외벽형태에 관한 국제회의
'82. 6. 22 - 24	스코트랜드·로치보넨드	CIB	CIB W76, 성능 개념에 관한 국제회의

□ 국외 자료소개

(제공 : 국립건설연구소)

제 목	발행기관	발행국명	발행일자	사용언어
Batiment international	CIB	네덜란드	'81. 5	영 어
Building Research & Practice • 에너지절약형 라디에이터 시스템 • 벽체에 있어서 열, 습기의 전이 • 규격화 설계방안 • 울렁된 경기장의 방수천공 지붕 • 스포츠스타디움의 다층지붕합판 • 석회 포출판의 시험				
Pre-Congress Report of the IFHP Workingparty • 토지정책에 관하여 : IFHP 실무 양의 사전제출 리포트	IFHP	~	'81. 8. 9	영 어
Supplement to list of DBR Publications 4/ 5 1981 • DBR에서의 '81. 4 - 5월사이 에 발간된 간행물 추가 목록	DBR	카 나 다	81. 4. 5	영 어
BRE Digest 252, 251 • 칸막이벽의 차음 • 저층건물의 소파 평가방법	BRE	영 국	'81. 7	영 어

제 목	발행기관	발행국명	발행일자	사용언어
• 시멘트제부재의 내구성 • 테라코타와 석재의 내구성 • 지붕빙수 및 마감재료와 유리외벽의 내구성 Synopsis 5. • 공동계획 : 전원지역의 건축계획에 관하여 • 건축계획 • 건축기술 • 태양열 에너지, 열펌프,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에너지 절약 Building & prefabrication 2/81 • 기술의 조립식공법으로의 이동 • 개발도상국의 조립식주택의 건설 • 개발도상국의 열가주택 건설을위한 조립식 라티탈보드 • 건축방법 - 열기 - 기술에 관하여 Swedish Building Research News 1981, 1 • 방부제의 응결방지물위한 여러방법 • 스웨덴 중부지방의 축열방법 • 하수로 부터의 계절 선환방법 • 운수단방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아파트건물의 실내온도 조성방법 •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에 관하여 Materials & Structures • 석재와 콘크리트의 강적·동적 파괴 성상 • 반부균등, 인장 축하중을 받은 콘크리트의 실험 • 건물의 프라스틱 재료의 수명 발명레터 • 저층건축물의 구조 내력의 성능 • 환경에 관한 내부방정 • 인도네시아 주택분야의 기술협력 • 센터뉴스 : 행정·단체 • 간행물 안내 : 제 4회 스웨덴 건축산업회의 보고서 •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시행 등에 관하여	SBR	스 웨 덴	'81. 5	영 어
	WAEP	독 일	'81. 6	영 어
	SBR	스 웨 덴	'81. 1	영 어
	RILEM	프 랑 스	'81. 5. 6	불어·영어

# 全國建築許可 統計

## 용도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용도별	원 면	9 월			1 ~ 9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주거용	동 수	5,921	5,100	86.1	65,264	41,812	64.1
	연면적	1,282,136	987,587	77.0	12,158,231	8,060,689	66.3
상업용	동 수	1,482	1,237	83.5	13,230	11,390	86.1
	연면적	402,833	564,318	121.9	4,555,207	4,015,295	88.1
공업용	동 수	227	219	96.5	1,884	1,876	99.6
	연면적	162,827	198,790	122.1	1,607,121	1,826,505	113.7
문교	동 수	224	210	93.8	1,770	1,721	97.2
	연면적	143,673	195,117	135.8	1,417,327	1,297,326	91.5
기타	동 수	562	348	61.9	3,801	2,989	78.6
	연면적	126,543	101,704	80.4	947,721	772,776	81.5
계	동 수	8,416	7,114	84.5	85,949	59,788	69.6
	연면적	2,178,032	2,047,516	94.0	20,685,607	15,972,591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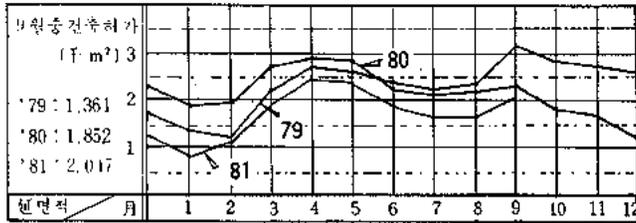
## 월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월별	'80		'81		전년 대비 (%)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1	5,998	1,846,698	2,364	843,447	45.7
2	6,344	1,851,785	3,536	1,040,968	56.2
3	13,530	2,883,090	8,123	1,931,949	67.0
4	14,129	2,906,362	9,875	2,481,179	85.4
5	11,595	2,803,050	8,401	2,370,273	84.6
6	9,330	2,094,130	7,866	1,923,246	91.8
7	8,431	2,055,584	5,817	1,634,202	79.5
8	8,176	2,066,876	6,692	1,699,811	82.2
9	8,416	2,178,032	7,114	2,047,516	94.0
계	85,949	20,685,607	59,788	15,972,591	77.2

## 건축허가전년대비도표

단위 : 백만평방미터



## 시·도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시·도별	원 면	9 월			1 ~ 9 월		
		연면적	'80	'81	대비%	'80	'81
서울	동 수	1,291	1,253	97.1	13,414	9,823	73.2
	연면적	518,515	764,576	147.5	4,951,837	4,528,760	91.5
부산	동 수	690	377	57.1	7,172	3,637	50.7
	연면적	245,900	105,674	43.0	2,064,494	1,252,164	60.7
대구	동 수	—	352	—	—	925	—
	연면적	—	82,316	—	—	220,885	—
인천	동 수	—	231	—	—	682	—
	연면적	—	84,101	—	—	229,001	—
경기	동 수	1,616	1,164	70.7	16,879	9,616	57.0
	연면적	373,703	260,509	69.7	4,093,914	2,560,311	62.5
강원	동 수	417	465	97.1	3,278	3,300	100.7
	연면적	68,084	52,604	77.3	806,650	773,082	95.8
충북	동 수	493	382	77.5	3,865	3,441	89.0
	연면적	82,019	55,144	67.2	601,640	520,990	86.6
충남	동 수	764	578	75.7	8,108	5,486	67.7
	연면적	187,067	100,765	53.9	1,466,688	1,053,723	71.8
전북	동 수	295	392	132.9	5,378	3,211	59.7
	연면적	56,902	76,838	135.0	989,904	529,672	53.5
전남	동 수	870	695	79.9	7,322	5,548	75.8
	연면적	132,315	119,058	90.0	1,132,180	924,634	81.7
경북	동 수	915	452	49.4	10,867	6,593	60.7
	연면적	351,217	131,551	37.5	2,637,575	1,588,198	60.2
경남	동 수	694	633	91.1	7,427	5,891	79.3
	연면적	119,567	176,549	147.7	1,630,114	1,472,711	90.3
제주	동 수	291	180	61.9	2,239	1,585	70.8
	연면적	42,743	37,831	88.5	310,611	318,430	102.5
계	동 수	8,416	7,114	84.5	85,949	59,783	69.6
	연면적	2,178,032	2,047,516	94.0	20,685,607	15,972,591	77.2

## 구조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구조별	원 면	9 월			1 ~ 9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철근	동 수	1,819	1,519	83.5	18,001	14,178	78.8
	연면적	1,319,157	1,311,943	99.5	12,159,211	10,579,785	87.0
조적조	동 수	6,178	5,333	86.3	64,738	43,201	66.7
	연면적	786,683	684,799	87.0	8,199,320	5,166,403	63.0
목조	동 수	220	124	56.4	1,816	1,399	77.0
	연면적	20,139	8,146	40.4	131,854	96,915	73.5
기타	동 수	199	138	69.3	1,394	1,010	72.5
	연면적	22,033	12,628	57.3	195,192	129,488	66.3
계	동 수	8,416	7,114	84.5	85,949	59,788	69.6
	연면적	2,178,032	2,047,516	94.0	20,685,607	15,972,591	77.2

# 會員動靜

□ 趙南奎 / 서울 / 49. 1. 15일생 / 경기공전 / 삼우건축설계 / 영등포구 신길동 478 / 단독 245



□ 朴鍾文 / 중남 / 44. 10. 8일생 / 대전공전 / 한국종합건축설계 사무소 / 은평구 증산동 38-5 / 합동214

## 제일

□ 서울支部 : △ 윤진우 / 구미건축연구소 / 종로구 수송동46-1 / 면허629 / 합동 291

□ 江原支部 : △ 정형용 / 로원건축설계사무소 / 강릉시 성내동 9-2 / 면허 168 / 단독 133

## 백경

□ 釜山支部 : △ 김우승 / 청구건축설계사 / 중구 동광동 1가15 / 단독76 / 이문남 / 조예건축사무소 / 부산진구 부전동 232-44 / 단독77 / △ 장상진 / 동신건축설계사 / 부산진구 부전동 395-4 / 종합17 / △ 송규태, 손병찬 / 원남, 유성건축설계사 / 동래구 명륜동596-3 / 합동25 / △ 심중세, 서용운, 표재찬, 윤영명 / 남도 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 593 / 합동42 / △ 김관호 / 신도종합설계사 / 부산진구부전동347-40

□ 京畿支部 : △ 김영복 / 동구현대건축 /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449-2 / 단독80 / △ 유재현 / (주) 삼우건축 /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200-2 / 단독79 / △ 한부성 / 보림종합건축공사 / 부천시 원미동92-1 합동25 / △ 홍재혁 / 화성종합건축 /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562-4 / 단독124 / △ 박태신 / 명성건축설계 /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465-2 / 단독90 / △ 이병권 / 이천종합건축설계 /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231 / 종합14 / △ 김광일 / (주) 신일종합설계 / 수원시 교동 90-3 / 종합23

□ 江原支部 : △ 한능순 / 동해종합건축 / 동해시 발한동32-7 / 단종 131 / △ 박재국 / 신기 건축설계사무소 / 태백시 황지 1동 81-7

□ 慶北支部 : △ 이태수 / 수명사건축 / 대구시 중구 동산동 103-6 / 단독19 / △ 정영철 / 부국종합건축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186-60 / 종합10 / △ 권정부, 박재우 / 아주건축연구소 / 대구시 중구 동문동 3-9 / 합동 43



“祝賀합니다” □ 釜山支部 : △ 변규택 회원 영애

결혼 10. 18일

□ 서울支部 : △ 김용업 회원 10. 2 일 / △ 오용석 회원 장남 10. 15 일 / △ 이도승 회원 5남 10. 16일 / △ 최창규 회원 차녀 10. 24일 / △ 장용운 회원 차녀 10. 24일 / △ 강의식 회원 장남 10. 27일

□ 忠北支部 : △ 박오균 회원 3남 결혼 11. 7일

□ 忠南支部 : △ 원동규 회원 차남 결혼 10. 24일

□ 慶北支部 : △ 강성욱 회원 차녀 결혼 10. 8 / △ 황용주 회원 장남 결혼 10. 24일 / △ 유배근 회원 3남 결혼 11. 9일

“오래사세요” □ 釜山支部 : △ 이진욱 회원 9. 16일

□ 서울支部 : △ 이정일 회원 모친 10. 9일 / △ 강성엽 회원 모친 10. 28일

“快癒를 바랍니다” □ 慶北支部 : △ 이진호 회원 금성 충수염.

□ 서울支部 : △ 김영찬 회원 “삼가 명복을 빕니다”

□ 釜山支部 : 정환호 회원 부인 별세. 9. 26일

□ 서울支部 : 유순규 회원 부친 별세 10. 2일

□ 慶南支部 : △ 홍운석 회원 부친 별세. 10. 28일.